

캄보디아

정보수정일자 : 2014. 09. 01

작성처 : 프놈펜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5
한국과의 주요이슈 / 23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 27
주요 산업 동향 / 37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41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동향 / 43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46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50
대한수입규제동향 / 52
관세제도 / 53
주요인증제도 / 55
지식재산권 / 56
통관절차 및 운송 / 57
수출유망품목 / 63
시장특성 / 64
바이어 발굴 / 66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68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70
수출 성공실패사례 / 71
수출 시 애로사항 / 7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74
- 투자 인센티브 제도 / 75
- 외국인 투자동향 / 78
- 한국기업 투자동향 / 80
- 한국기업 진출현황 / 82
-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84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87
- 투자방식 / 88
- 투자진출형태 / 89
- 진출형태별 절차 / 91
-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102
- 투자입지여건/ 103
-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105

3. 사업관리

- 노무관리제도 /108
- 조세제도 / 113
- 금융제도 / 117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18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121
-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123
- 비즈니스 에티켓 / 124
- 이주정착 가이드 / 126
- 생활여건 /129
- 취향정보 / 137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138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139
-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145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46
- KOTRA 무역관 안내/150



Base 802467 (R02153) 12-97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서남부 -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 북위 10-14°, 동경 103-107°
면 적	○ 181,035km ² -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절반 - 동서 580km, 남북 450km
기 후	○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 20-40℃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 - 대체로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인 구	약 15,205,539명 자료: (2014년 1월 US Census Bureau)
인구 증가율	1.68%(2011), 1.69%(2012), 1.63%(2013) 자료: (2013년 US CIA World Fact Book)
주요도시	Phnom Penh(230만 명), Sihanouk Ville(20만 명), Battambang(25만 명) (2013) (*자료: Phnompenh.gov.kh, Battambang.gov.kh)
화 폐	- Riel, CR 또는 KHR(Cambodian Riel)로 표기 - 경제 전반에 걸쳐 미 달러화 통용 - US\$ 1 = 4042리엘(2012년 평균)
민족(인종)	크메르(90%), 베트남(5%), 화교(1%), 참족(4%) 등 30여 인종
언 어	○ 크메르(Khmer)어 - 지식층 및 비즈니스 계를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 통용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 확산 -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어 통용
종 교	불교(국교, 96.9%), 무슬림(1.9%), 기독교(0.4%), 기타(0.8%)
건국(독립)일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
국가 원수	○ 국왕: Norodom Sihamoni(국가 원수) ○ 총리: Hun Sen(실권자)
입 법 부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

정 당	○ 여당: CPP(Cambodian People's Party) 및 FUNCINPEC (민족연합 전선) 연립정부 ○ 야당: Sam Rainsy Party 등 다수 군소 정당
정부 성향	친 서방 비동맹 중립

나. 경제 지표

총 GDP (명목)	US\$ 104억(2009), US\$ 113억(2010), US\$ 129억(2011), US\$ 142억(2012), US\$ 154억(2013)*자료:IMF
1인당 GDP	US\$ 720(2009), US\$ 783(2010), US\$ 812(2011), US\$ 909(2012), US\$931(2013)
실질 GDP 성장률	0.1%(2009), 5.0%(2010), 6.0(2011) 6.5%(2012), 6.2%(2013) *NSDP(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survey)
실 업 륜	0.7%(2007년), 0.1%(2008년), 0.3%(2009년), 0.2%(2010년) 0.2%(2011년)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 10세 이상의 노동력을 가진 인구 중 일주일에 최소 한 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 *자료:위 데이터는 정부추산 통계이며 2012 US CIA World Fact Book에 따르면, 약 3.5%로 추산.
물가 상승률	5.3%(2009), 3.1%(2010), 4.9%(2011), 3.4%(2012), 3.7%(2013) *자료:IMF
환 율	US\$ 1 = 4,042리엘(연평균 기준)
경상수지	US -5억\$ (2009), US -4억\$ (2010), US -10억\$ (2011), US -14억\$ (2012), US -21억\$ (2013) *자료:IMF
외 채	US 29억\$ (2009) US 33억\$ (2010) US 38억\$ (2011) US 45억\$ (2012), US 50억\$ (2013) *자료:IMF, Worldbank
외환 보유고	US 26억\$(2009) US 30억\$(2010) US 30억\$ (2011) 34억\$ (2012), 36억\$ (2013) *자료:IMF, Worldbank
산업 구조	○ 생산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1차 산업(농·어업, 산림업 등): 36.0%(2010), 36.7%(2011), 35.6%(2012), 28.8%(2013) - 2차 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23.3%(2010), 23.5%(2011), 24.3%(2012), 26.4%(2013) - 3차 산업(서비스, 수송 등): 40.7%(2010), 39.8%(2011). 40.1%(2012), 44.8%(2013) *자료:ADB Asian Development Bank

무역 수지	○ US -16억\$ (2008) US -15억\$ (2009) US -16억\$ (2010) ○ US -20억\$ (2011) US -27억\$ (2012) - 2009: 수출 US 30억\$, 수입 US 45억\$ - 2010: 수출 US 39억\$, 수입 US 55억\$ - 2011: 수출 US 52억\$, 수입 US 73억\$ - 2012: 수출 US 58억\$, 수입 US 85억\$ - 2013: 수출 US 69억\$, 수입 US 90억\$ *자료:IMF
수출입 주종 품목 (2013년)	○ 수출: 의류, 천연고무, 농수산물, 축산물, 담배, 목재 등 ○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다. 한국-캄보디아 관계

체결 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7) ○ 투자보장협정(1997) ○ 항공협정(2001) ○ EDCF공여기본협정(2001) ○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2001) ○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2002) ○ 도로개보수 EDCF 협정(2002) ○ 수자원개발 EDCF 협정(2006) ○ 문화협정(2006)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2007년 11월 21일 서명)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2008년 11월 1일 발효)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09년 6월 2일 서명)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Korean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설치 협정 (2010년 4월 21일 발효)
교역 규모	○ 2009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2억 7,332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1,820만\$ ○ 2010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3억 3,299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4,344만\$ ○ 2011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4억 5,072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8,727만\$ ○ 2012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5억 9,300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1억 2,600만\$ ○ 2013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6억 1,464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1억 3,613만\$
수출입 주종 품목(2013)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식물, 자동차, 음료, 중장비, 산업제품, 무선전화기, 등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섬유제품, 천연고무, 수산물(해조류), 비철금속제품 등
재 캄보디아 교민(2013)	약 6,000명(선교사 가족 포함)(대부분 프놈펜 거주, 시엠립 1,000명)

자료: KITA

2. 정치사회 동향

가. 캄보디아 역사

1) 선사시대 및 초기 역사

기원전 4200년경부터 선사시대의 신석기 토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중국 동남쪽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이주해 온 것이라 추정된다. 메콩강 일대에서 수렵 채집 및 벼 농사를 하면서 정착생활을 시작하였다.

2) 후난(Funan) 왕국 86-550

인도로부터 종교와 정치제도를 들여와 1세기경 캄보디아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후난 왕국이 건립되었다. 3세기초 왕국의 전성기를 맞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서쪽으로는 버마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 인도 등의 주변국들과의 무역이 성행하였다.

3) 첸라 왕국 550-802

후난왕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워진 첸라 왕국은 점차 영토를 확장시켜 7세기에는 후난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였으며, 이후 8세기에는 육첸라(land Chenla)와 수첸라(water Chenla)로 양분되었다.

4) 앙코르 왕국 802-1431

크메르 문명의 황금기라 불리는 앙코르 왕국은 9세기에서부터 13 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 하였으며, 캄보디아라는 이름의 유래이기도 하다.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 앙코르왓(Angkor Wat)이나 앙코르 톰(Angkor Thom)도 앙코르 왕국의 건축물이며, 강력한 정권 하에서 문화적 독창성에 있어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14세기부터 점차 몰락하여 1431년 태국에 정복당한다.

5) 캄보디아의 암흑기 1431-1863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영토가 축소되는 캄보디아의 암흑기라 할 수 있다.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잦은 침략과 정복을 당하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잦은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당한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게 된다.

6) 프랑스 식민 지배기 1863-1953

1863년 노르돔 왕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된다는 조약에 서명하고 단계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1941년 프랑스 식민정부에 의해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가 왕으로 즉위한다.

7) 크메르 공화국(Khmer Republic)과 내전 1970-1975

1954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보수, 우익, 급진 세력이 각각 나누어져 참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보인다. 1966년 우익성향의 론 놀(Lon Nol)이 총선에서 승리한다. 론 놀 수상은 왕정에 대항하여 1970년 쿠데타를 일으켜 우익정부를 수립하고, 크메르 공화국(Khmer Republic)으로 국명을 개칭하였다. 집권 이후에도 끊임없이 세 개의 세력이 내전을 벌이다 미군의 베트남 철수 후 론 놀은 지지세력을 잃게 된다.

8)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 1975-1979

폴 포트의 지휘 하 공산주의 세력인 크메르 루즈는 프놈펜에 입성해 1976년 민주 캄푸치아로 국명을 개칭하고 전 국민의 강제 농촌 이주와 강제 노동이라는 극단적인 공산체제로의 회귀를 시행한다. 자본주의나 베트남을 포함한 외세와 연관된 사람은 모두 숙청의 대상으로 삼아 1976년 에서 1979년 까지 4년간 무려 1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무고하게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1979-1991

1979년 베트남 군대와 연합하여 캄푸치아 민족구국통일전선(KUFNS)는 캄보디아를 정복하고 폴 포트의 크메르 루즈를 태국 국경 근처로 쫓아냈다. 인민당의 삼린은 친베트남의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을 건립하게 된다. 그러자 크메르 루즈가 포함된 반베트남 3개 계파가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민주캄푸치아연합정부(CGDK)를 구성하여 내전에 들어간다. 1989년 캄보디아에 주둔하던 베트남군대가 철수하자 내전은 더욱 격화되었다.

10) 현재 캄보디아 1991-

1991년 4개의 계파를 중심으로 하는 최고민족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가 구성되었고 의장에는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부의장에서는 훈 센(Hun Sen)이 지명되었다. 1991년 10월 4개 정파와 19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파리평화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내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1993년 노로돔 시하누크는 왕으로 재즉위하며 입헌군주제가 시행된다. 1997년 7월 선거로 훈 센은 제2수상에서 제1수상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중이나 7월에 있었던 선거 이후로 야당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정국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봉제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시위가 자주 일어나 봉제공장 시설물 파괴,

비출근 투쟁 등의 과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나. 훈센 정권의 정치체제 및 정국 현황

1) 개요

캄보디아는 입헌군주국으로 현 국왕은 2004년 10월 29일 에 왕위에 오른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이다.

헌법상 캄보디아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도의 정책을 채택하고 캄보디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행정부 및 사법부 권한이 분리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1조)

캄보디아는 국회와 상원제로 이루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은 2013년 7월 28일에 실시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여당인 CPP가 68석 야당인 CNRP가 55석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 정국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다음 총선은 2018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

2) 약사

□ 제1기 연립정부(1993.9~1998.7)

- 1993.5월 제1차 총선에서 국회 120개 의석 중 훈신평당이 58석(45.47%), CPP가 51석(38.23%) 차지
- 1993년 9월 23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9월 24일 시하누크 왕 즉위, 중앙 및 지방의 모든 권력을 분점하는 독특한 연립정부 구성
- 라나리드 훈신평당 총재와 훈센 CPP 부총재를 공동총리로 임명

□ 제2기 연립정부(1998.7~2003.7)

- 1998.7월 제2차 총선 결과, CPP 64석, 훈신평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
- 1998.11.30. 훈센 총리가 단독 총리로, 라이벌인 라나리드 왕자는 국회의장에 임명되고, CPP와 훈신평당간 50/50의 권력 배분의 연립정부를 출범

□ 제3기 연립정부(2003.7~2008.7)

- 2003.7월 제3차 총선 결과 CPP 73석, 훈신평당 26석, 삼랑시당 24석 차지
- CPP는 의석 수에서 73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헌법규정상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총 의석수의 2/3(82석) 확보에 실패, 훈신평당과 삼랑시당이 연대하여 민주연합을

결성,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총선 이후 1년 가까이 신정부 구성 지연

- 2004.6월 초 훈센 총리와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간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라나리드 국회의장 임명, 훈센 총리 임명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
- 2004.7.15. 국회 원구성 및 내각 인준안 국회 통과,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공식출범(총 26개 부처 및 2개 외청)

□ 제4기 정부(2008.7~2013.7)

- 2008.7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훈센 총리가 소속된 CPP가 득표율 58.11%로 전체 123석 중 90석을 차지하는 압승, 훈신펙당은 기존 26석에서 2석만을 차지하는 참패를 기록하고, 삼랑시당은 26석, 신생정당인 인권당과 라나리드당이 각각 3석, 2석을 획득

□ 제5기 정부(2008.7~2013.7)

- 2013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훈센 총리가 소속된 CPP가 전체 123석 중 68석을 차지하는 한편 제1야당인 CNRP가 55석을 차지하였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 되고 있음
- 다음 총선은 2018년 7월로 예정

훈센 총리의 사각전략

- 훈센총리는 1998년 제 2기 정부에서 개혁 추진이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하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과 빈곤타파를 위한 3각 전략 추진.
- 2004년 3기 정부 출범시 3각 전략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 ②모든 근로자에 대한 고용 창출, ③평등 사회 구현, ④정부의 효율성 제고의 4개 축의 전략 추진
- 2008년 4기 정부에서 사각전략 2단계 추진을 천명함.
- 사각전략은 선정(Good governance) 및 경제 성장을 핵심 목표로 체계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핵심전략 과제에 관한 일괄 패키지
- 부패척결 ②사법제도 개혁 ③행정 개혁 ④국방제도 개혁 의 4대 분야를 국정개혁의 과제로 선정함
- 경제성장을 위한 사각 성장의 각 축은 ①농업분야 강화 ②물리적 인프라 건설 및 부흥 ③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④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 개발 임
-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 전략의 구체적 이행과 빈곤감축 및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목표로 2009-2013 국가개발전략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을 채택 이행 중.

3) 정치체제

□ 행정부

캄보디아는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Throne Council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다. 행정 수반은 총리이고, 개최되는 하원 총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2008년 기준 프놈펜은 8개 구로 나뉘져 있으며, 지방 행정조직은 23개의 주 159개 군(Srok), 1,417개 면(Commune,Khum), 14,073 개 촌(Phum)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 명한다.

캄보디아 내각 명단 (2014)

직위	이름
Prime Minister	Hun Sen (CPP)
Council of Ministers	Sok An (CPP)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Ouk Rabun (CPP)
Commerce	Sun Chanthol (CPP)
National Defense	Tea Banh (CPP)
Economy & Finance	Aun Porn Moniroth (CPP)
Ministry of National Assembly – Senate Relations and Inspection	Men Sam An (CPP)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Cooperations	Hor Nam Hong (CPP)
Health	Mam BunHeng (CPP)
Information	Khiev Kanharith (CPP)
Interior	Sar Kheng (CPP)
Justice	Ang Vong Vathana (CPP)
Planning	Chay Than (CPP)
Public Works & Transport	Tram IvTeek (CPP)
Youth, Sport & Education	Hong Chunarun (CPP)
Industry, Mines & Energy	Cham Prasidh (CPP)
Culture & Fine Arts	Phoeung Sokolna (CPP)
Posts & Telecommunications	Prak Sakhon (CPP)
Cults & Religion	Min Khin (CPP)
Social affairs, Veterans & Youth Rehabilitation	Vong Sauth (CPP)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	Im Chhun Lim (CPP)
Tourism	Thong Khon (CPP)
Environment	Say Sam Ol (CPP)
Water Resources & Meteorology	Lim Kean Hor (CPP)

직위	이름
Women's Affairs	Ing Kantha Phavi (CPP)
Rural Development	Chea Sophara (CPP)
Labor & Vocational Training	Ith Sam Heng (CPP)

□ 사법부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오랜 전란으로 사법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법제도는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는데 판사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사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왕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판검사 및 변호사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법부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헌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을 해석하며,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을 보호하는 의무를 갖는다. 동 위원회는 9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3분의 1이 매 3년마다 교체된다.

캄보디아의 법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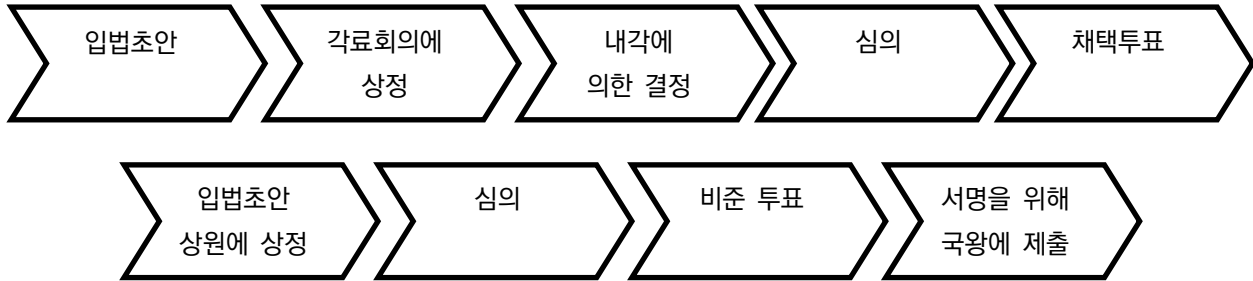
- 1) 헌법: 캄보디아 왕국의 최고법
- 2) 조약과 협정: 헌법 제 26조에 따라 국왕은 국회와 상원의 승인이 이루어진 다자간 혹은 양자간 국제조약 및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다. 해당비준 후에 국제 조약(다자간 혹은 양자간) 및 협정은 법이 되어 사법적 결정을 위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 3) 법률(Chhbab): 국회에서 채택한 법
- 4) 왕실법률(Preah Reach Kram) 및 왕실 칙령(Preah Reach Kret): 국왕의 헌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왕의 이름으로 공포된다.
- 5) 시행령(Anu-Kret): 내각에서 채택된 후 총리가 서명한다. 시행세칙이 내각에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장관의 서명이 필요하다. 총리는 자신의 규제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6) 부령(Prakas): 자체적인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정부부처가 공포한다
- 7) 결정문(Sechkdei Samrech): 총리의 개별적인 결정문 및 장관 또는 행정관의 결정문으로 자기 자신의 규제 권한을 행사할 때 사용된다.
- 8) 시행세칙(Sarachor): 일반적으로, 특정한 규제조치를 설명하거나 명확히하기 위하여 또는 지시를 내리기 위하여 정부수장으로서 총리가 또는 부처의 공무원으로 장관이 공포한다

□ 의회

캄보디아의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제헌의회이며 1999년 3월 상원을 신설하여 현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 61석과 하원 123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상원 6년, 하원 5년이다. 의회 회기는 1년에 2차례 소집되며, 각 회기는 3개월 동안 지속된다. 캄보디아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가예산, 국가계획, 차관, 대출, 조세 의 신설, 변경과 폐지 등을 승인한다. 한편, 법률의 공포는 우선 국회에 의해 승인된 후 왕이 서명하며 서명된 법률은 서명 후

10일이 지나면 먼저 프놈펜에 발효되고 20일이 지나면 전국에 걸쳐 발효된다.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과정



□ 선거 제도

캄보디아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하원)의원은 매 5년마다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하원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직접 선출이 아니며 중대선거구 정당투표 방식으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한다. 가령 유권자 10만 명의 선거구에서 유권자 1만 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경우 30%를 득표한 정당에서 제출한 의원후보자 순위에서 3번까지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방식이다. 최근의 국회의원 총선은 2013년 7월 28일에 치루어졌다.

상원의원은 기초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단위 Commune별로 선출된 위원이 선출한다. 상원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으며 전체 선거구는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수는 유권자수에 따라 다르다. 선거로 선출된 상원의원은 57명이며 국왕이 임명하는 2명, 하원에서 임명하는 2명 등 총 6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왕은 세습이 아니라 Throne Council에 의해 선출되며 종신직이다. 캄보디아 왕은 안동왕, 노로돔왕, 시소와쓰왕 혈통의 후손으로 적어도 30세 이상의 왕실 일원이어야 한다. 총리는 다수당 국회의원 중에 서 국왕이 지명한다.

□ 정당 제도 및 현황

캄보디아 정당 제도는 다당제로서 2013년 7월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 분포는 CPP당이 68석으로 하원 전체 123석의 59%, Sam Rainsy의 CNRP당이 55석으로 41% 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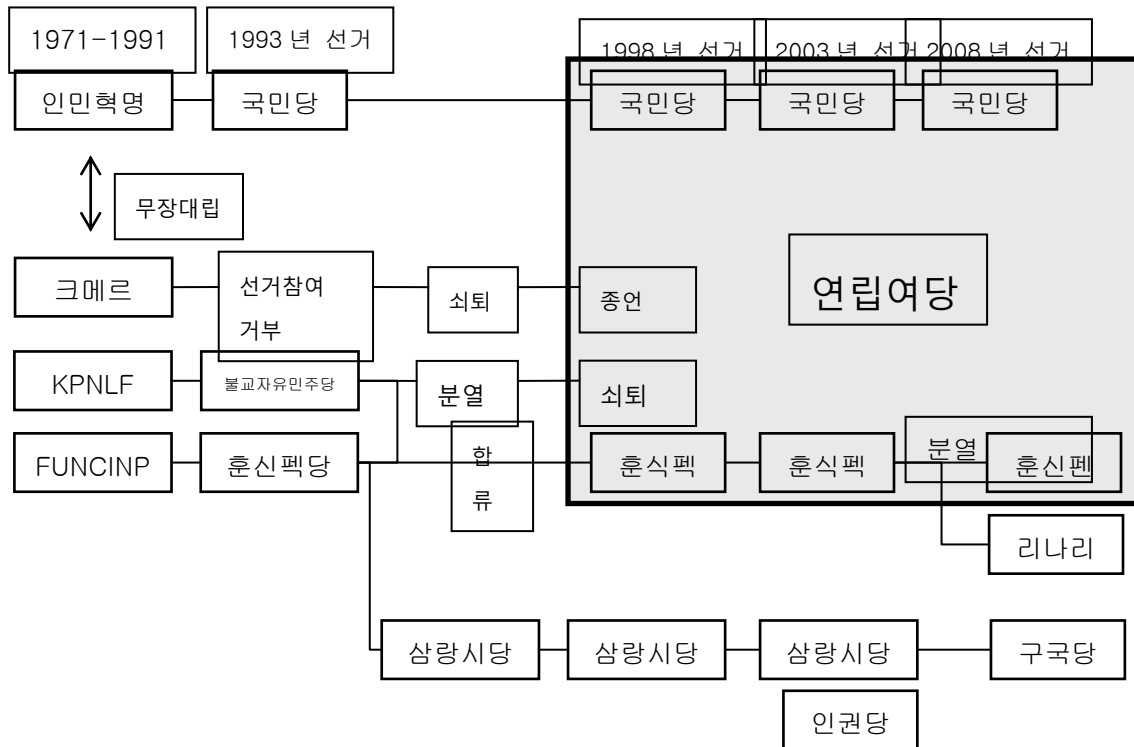
CPP 즉,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은 1979-1989년간 캄보디아가 베트남 군 대에 의해 정복되어 통치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캄푸치아 인민 혁명당(Kampuch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KPRP)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왕당파 성격의 민족연합 전선(FUNCINPEC)은 한때 시아누크 국왕에 의해 이끌어져 오다 라나리드 왕자에 의해 정당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라나리드 왕자는 2006년 10월 시하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의 사위인 Keo Puth Rasmeyand에게 지도자 자리를 빼앗긴 후 자신의 이름을 딴 정당을 만든 후 활동을 시작했으나, FUNCINPEC당사의 불법매각을 이유로 고소당한 후 18개월형 및 US\$150,000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후 2008년 9월 시하모니 국왕에 의해 사면받고 귀국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1993년 총선 당시 다수당이었던 FUNCINPEC은 1997년 7월 무력 사태로 라나리드 왕자가 국외로 피신하고 없는 차제에 CPP의 훈센 (당시 제 2수상)에 의해 당이 와해되고 세력이 약해져 1998년 7월 총선에서 제2당으로 전락하였으며, 2003년 총선에서는 세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2008년 제4차 총선에서는 2석만 획득하는 낭패를 보았으며, 1석 확보도 어려울 것 같아 2012년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출마를 포기하였다. 2008년 총선에서 26석을 획득하면서 제1야당이 되었다. 2007년 창당한 Human Rights Party(인권당)는 2008년 총선에서 3석을 획득하고 Sam Rainsy당에 이어 제2야당이 되었다. 2013년 총선을 앞두고 Sam Rainsy당과 인권당이 합당하였다. 크메르 민족당을 자신의 이름인 "Sam Rainsy" 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바 있는 구국당 지도자 Sam Rainsy는 현재 국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연립 정부의 정책에 거의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맹렬한 야당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이밖에 군소정당으로는 Khmer Democratic Party, Khmer Angkor Party, Cambodian Progressive Party, Vongkot, Khemarak Party, Cambodia Women's Party 등이 있다.

2007년 창당한 Human Rights Party(인권당)는 2008년 총선에서 3석을 획득하고 Sam Rainsy에 이어 제2야당이 되었다. 이밖에 군소정당으로는 Khmer Democratic Party, Khmer Angkor Party, Cambodian Progressive Party, Vongkot Khemarak Party, Cambodia Women's Party 등이 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정당 총선 결과표



*삼랑시당과 인권당은 2012년 합당, 구국당으로 창당

캄보디아 주요정당

□ 캄보디아 국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

- 캄푸치아 인민혁명당의 후신. 현재 다수당

□ 훈싹팍당(민족연합전선: FUNCINPEC)

- 베트남 투쟁을 위해 시하누크 공이 이끌었던 정파로서, 1993년 시하누크가 국가수반이 되어 아들인 리나리드 왕자가 총재직 수임
- 2006년 10월 당내 갈등으로 라나리드 왕자 총재직 축출

□ 구국당 (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 2012년 10월 제 1야당인 삼랑시당과 제 2야당인 인권당이 13년 총선을 앞두고 합당
- 구국당 대표는 삼랑시당 대표인 Sam Rainsy로 2009년 유엔비어 유포등의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국외로 망명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는 캄보디아 정계로 복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활동 진행. 부대표는 Kem Sokha로 인권당 대표
- 2013년 5월 국가선관위(NEC)의 부정의혹 제기와 투명선거 요구 시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출마가 금지되어있는 삼랑시의 법적문제 해결 요구.
- 인권,환경 문제를 이슈화, 활발한 반정부활동 참여
- 최근 봉제업 노동자 및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대 지휘

□ 라나리드당(Norodom Ranariddh Party)

- 2006년 10월 훈신펙당에서 축출된 라니리드 왕자가 2007년 창당, 2008년 7월 총선에서 2석 획득
- 라니리드 왕자는 말레이시아 체재 중 캄보디아 법원으로부터 훈신펙 당사의 불법매각으로 인한 이익 수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008년 9월 훈센 총리의 건의에 따른 시하모니 국왕의 사면을 받고 귀국 후 정계 은퇴
- 라나리드 왕자 은퇴 이후 민족당(Nationalist Party)으로 개칭하였으나, 2010년 12월 라나리드 왕자 정계 복귀와 함께 다시 라나리드당으로 개칭

5) 주요이슈

□ 크메르 루즈 문제

- 크메르 루즈의 와해
 - 크메르루즈는 시하누크 주도의 망명정부(1982), 파리평화협정(1991)에는 참여하였으나, 1993년 제1차 총선에는 불참, 시하누크 국왕은 크메르루즈에 대하여 무조건 휴전을 제안하고, 1994년 5월 및 6월에 각각 평양과 프놈펜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 1994년 7월 캄보디아 의회는 크메르루즈를 대학살의 책임자, 범죄집단, 불법단체로 공식 규정
 - 1996년 중반까지 캄보디아 북서부 태국과의 접경 밀림지대로 잠입, 동 지역 일대의 보석과 목재를 태국으로 밀수출한 재원으로 무력저항 계속하였으나 1996년 2월 이래 국민적 화해를 위한 정부측의 투항유도 노력과 장기전에 염증을 느낀 크메르루즈 병사들이 계속 투항
 - 1998년 4월 폴포트 사망, 1998년 12월 키우삼판과 눈치아의 투항, 1999년 3월 타목 체포 및 잔여 크메르루즈 간부의 정부투항으로 크메르루즈 세력 와해
- 유엔에서의 논의 경과
 - 1997년 6월 크메르루즈 내부의 붕괴가 진행되던 중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는 UN 사무총장에게 크메르루즈 지도자 재판 실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
 - 1997년 7월 무력 충돌사태 이후 크메르루즈 재판 추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크메르루즈 붕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회는 크메르루즈 지도자에 대한 재판 실시를 강력히 요구
 - 1999년 3월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전문가위원회가 임시국제재판소 설립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채택 무산, 6월 훈센 총리는 기본적으로는 국내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외국인 판·검사 일부 충원 등 국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추진 제시
 - 2000년 2월 UN 사무총장은 혼합법원을 구성하되, 동 재판소 운영에 관해 ‘과반수의 외국인 판사, 독립적인 국제검사, 재판부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전원 체포, 사면이 기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캄보디아 정부가 약속할 것’의 4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훈센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우호국가 출신 검사가 참여하는 국내재판정 구성 방안을 제시

- 2000년 7월 Hans Corell UN 사무차장보와 Sok An 캄보디아 관방장관 간 크메르루즈 지도자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사법부내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및 캄보디아 국내법 초안 작성
- 2000년 12월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루즈 재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1년 10월 캄보디아는 일방적으로 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UN 측에 통보, 2002년 2월 UN은 재판소 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상 중단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훈센 총리는 UN 사무총장앞 교섭복귀 희망서한 송부
- 크메르루즈 지도자 처리를 위한 특별 재판소 설립
 - 2002년 8월 UN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정부와 동건 협의 계속을 위해서는 UN 총회 또는 안보리의 명확한 mandate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2002년 11월 UN 총회 3위원회에서 동 mandate를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캄보디아 등 15개국 공동제안)
 - 2003년 1월 Sok An 관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UN을 방문, UN 및 캄보디아 정부간 관련 협정 체결에 원칙적 합의
 - 크메르루즈 전범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정 내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캄보디아 국내법 제정(2004년 10월 5일 국회 통과, 8일 상원 통과)
 - 2006년 7월 3일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정식 출범
 -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는 2010년 7월 크메르루즈 감옥소(S-21)의 Kaing Guek Eav (Case 001)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고, 2011년 상반기중 최종심 판결 예상
 - 2010.9월 크메르루즈 최고지도자 4인(Nuon Chea 부서기장, Ieng Sary 외교장관, Ieng Thirith 사회장관, Khieu Samphan 정부수반)에 대해 기소가 결정된 바(Case 002), 2011년 상반기중 1심 재판에서 30년 형 언도
 - Case 003 및 004: 상기 2개 케이스 외 추가 전범에 관한 문제로서 캄보디아정부측은 동 추가 재판 불가 입장으로 동 진행 여부 불확실
 - 2011. 6월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Nuon Chea 부서기장, Ieng Sary 외교장관, Ieng Thirith 사회장관, Khieu Samphan 정부수반)의 전범 재판이 진행됨.
 -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는 2010년이래 예산난으로 인한 재정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당초 계획된 2010년 활동 기한을 넘어 대체로 2015년 완료될 것으로 전망

□ 1997 무력 충돌 사태

- 사태 발생 배경
 - 1997년 3-4월 훈신펙당 소속 의원 8명이 반라나리드를 선언하여 라나리드 제1총리에게 정치적 타격 초래(훈신펙당은 국회 내 다수당의 지위 상실)
 - 1997년 6월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룬디 경찰청장 양측 경호원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양 정파간 긴장 고조
 - 1997년 7월 5일 양 정파간 무력충돌사태 발생, 훈센 제2총리는 라나리드의 무기 불법반입 및 크메르루즈와의 불법협상, 크메르루즈의 도심 투입행위 응징을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훈신펙당은 라나리드가 아닌 다른 인사를 제1총리로 추대할 것을 촉구

- 사태 발전 추이
- 사태 발발 직후 일부 군인 및 군복을 착용한 도적의 약탈이 자행되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조치로 도심질서는 곧 회복되었으며, 내무부 산하에 외국 투자업체의 약탈 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등은 특별기 등을 이용하여 프놈펜에 있던 자국민을 철수. 수도권 지역은 곧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바탐방, 시엠립, 시하누크빌, 반테이 맨체이 지역 등에서 양 정파간 소규모 분쟁 발생
- 1997년 7월 10일 캄보디아 정부는 내각회의 소집, 행정업무 정상화
- 1997년 8월 6일 캄보디아 국회는 비밀투표를 통하여 훈신펙당을 대표하는 제1총리로 Ung Huot 외무장관을 선출
- 1997년 8월 7일 체아심 국가원수대행은 신임 제1총리에 대한 최종인준 절차인 Royal Decree(칙령)에 서명, Ung Huot 제1총리 겸 외무장관 정식 취임
-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Ung Hout 제1총리에 대해 헌법규정 해석 문제와 정통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 11일 북경에서 체아심 국가원수대행, 훈센 제2총리 등과 시하누크 국왕을 알현, 국왕의 추인으로 해소

다. 사회 동향

1) 인구 및 연령 분포

연도	전체 인구(천명)	0세-14세(%)	15세-64세(%)	65세-(%)
1950	4346	42.2	55.1	2.7
1955	4840	42.3	55.0	2.7
1960	5433	42.5	54.8	2.7
1965	6141	42.8	54.4	2.7
1970	6938	43.2	54.0	2.8
1975	7098	42.3	54.9	2.8
1980	6506	39.0	58.1	2.9
1985	7920	42.1	55.0	2.9
1990	9532	43.8	53.4	2.8
1995	11169	47.5	49.7	2.8
2000	12447	41.6	55.4	3.0
2005	13358	36.4	60.3	3.3
2010	14138	31.9	64.3	3.8

자료: UN 2011

- 1960년에서 1975년 까지의 캄보디아 인구는 매년 약 2.2%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남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의 크메르 루즈 집권기에 약 백만명에서 이백만명의 국민이 죽은 것으로 조사됨.
-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할 것이며, 2013년 현재 198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의 아이들이 20대를 이루고 있어 두터운 청장년층을 구성하고 있음.

2) 민족 구성 및 종교

□ 민족 구성

- 인구의 약 90%가 크메르족이며, 그 외에 참족(이슬람교 신봉), 중국계, 베트남계
- 중국계의 상업분야 진출이 두드러지며, 크메르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참족 및 베트남계는 어업에 주로 종사
- 소수 민족으로는 시엠립주 동북부와 캄퐁툼주에 걸쳐 거주하는 쿠이(Kuy) 족(약 14,000명), 라타나끼리주에 거주하는 탐푼(Tampuan)족(약 15,000명), 몬돌끼리주에 거주하는 스티엥(Stieng)족(약 3,200명)이 존재

□ 종교

- 헌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소승불교) 신자이지만,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이슬람교 3%, 기독교 2%)
-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앙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

3) 교육

□ 개요

-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루즈의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
- 교육시설, 교사, 교육매체가 모두 부족하며, 프놈펜의 경우는 그나마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는 매우 열악
- 초등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중·고등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현황

- 교육제도는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은 6-3-3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9년으로 규정
- 취학률(2009-2010 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94.8%, 중학교 31.9%, 고등학교 19.4%
-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나 최근 사립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의 부족으로 오전,

오후반 2부제로 학교를 운영

캄보디아 교육 통계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명)	1,895	6,665	1,172	383
학생 수(명)	99,130	2,240,651	585,115	323,583
교사 수(명)	3,211	45,531	24,022	10,056
수료율(%)	-	89.76	42.13	27.83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2012

□ 대학

- 대학은 종합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이 있으며, 왕립법률경제대학, 국립경영대학 등 존재
- 그외 우리나라의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Faculty가 법률, 경영, 의학, 약학, 공학 등 각 분야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

라. 국제 관계

1) 개요

- 역사상 빈번한 외침과 내란의 경험으로 인해 캄보디아 헌법은 영구중립, 비동맹 정책과 세계 모든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
- 캄보디아의 중립성을 해하는 군사 동맹 또는 군사 협정 비가입
- 캄보디아 영토내 다른 국가의 군사기지 불허 및 유엔 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 금지. 단, 방위 및 안보를 위한 군대훈련 및 장비 지원 형태의 외국의 원조는 수용
- 핵무기, 화학 무기 및 생물 무기의 제조, 사용 및 저장 금지
- 1999년 4월 ASEAN 가입을 통해 양자외교에 대한 지나친 편중과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 지역 및 국제사회 편입을 지속 추구
- UN(1955), ASEAN(1999), WTO(2004), ASEM(2004), World Bank, IMF, ASEAN FTA 체결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에 가입
- 2002-03년 간 ASEAN 의장국 수임 후, 2010년 CLV.CLMV.ACMECS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2012년 ASEAN 의장국 수임 예정으로 ASEAN 내 캄보디아의 역할 및 위상 제고 노력
- 2011 최초 개최되는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적극 지지하는 등 메콩소 지역협력을 통한 후발 ASEAN 회원국의 개발격차해소 및 2015 ASEAN 공동체 달성에 적극적 관심 표명
- 2012년 캄보디아는 ASEAN+3 정상회의와, EAS(동아시아 정상회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ASEAN 역내 국가들과 공조 강화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강화

-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등과의 실질 협력 강화 및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국가와의 국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안정 달성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확보를 위해 주요 원조공여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과의 관계도 강화
- 베트남과 캄·베트남 국경획정에 관한 조약(1985) 부속 조약 체결 문제를 마무리(2005.12 비준서 교환), 베트남과의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국경문제 해결의 진전(일부 국경은 아직 미해결)
- 태국과는 프레아 비헤아 사원 인접 지역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2011년 7월 국제 사법재판소가 위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지정하고 즉각철수를 명령, 현재 영구적인 휴전상황

2) 주요 외교 사안별 입장

□ 한반도문제

- 캄보디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지지
- 남북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ASEAN 등 지역무대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하면서 중립적인 태도 견지 경향
- 2010년 천안함 사태 시에는 훈센 총리의 친서로 무력행위 규탄
- 2013년 개성공단 출경사태에는 자국 외국인 노동자 안전 주시

□ 동남아 지역 이슈

- 미얀마 관련, 2010.11월 미얀마 총선 실시가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2011.11.15 미얀마 군사정권의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을 환영
- 동티모르의 2011년 ASEAN 가입 신청관련 지지
- 남중국해 문제관련 국제 이슈화하지 않으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남중국해 당사국행동선언(DOC)의 조속한 이행 가이드라인 작성 지지
- EAS 확대이후 ASEAN 중심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운영 의제와 관련 기존 의제에 추가하여 정치·안보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

□ 중동분쟁

- 독립주권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지지하며, 관련국들이 증오와 역사적인 적대감을 버리고 항구적으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공존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양국 국민과 역내 평화를 위해 평화와 조화 속에 살아갈 필요성을 강조

□ 대만문제

- 대만 문제는 중국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
-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로서 '진정한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며, 중국의 '1국가 2체제' 방식의 통일정책을 지지
-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등 중국 본토로부터의 모든 분리독립 시도에 반대

□ UN개혁

- 오늘날의 변화된 국제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을 지지
- 일본, 독일,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지지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구, 남미를 대변하는 비상임 이사국도 늘려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을 15 내지 25개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캄보디아는 2013-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2012년 비상임이사국 진출 실패)

3) 지역 협력

□ ASEAN

- 1994년 ASEAN 옵서버 지위 획득
- 1995년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및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 1996년 4월 ASEAN 회원국 가입 신청서 제출
- 1996년 11월 ASEAN 정상회담 시 라오스, 미얀마와 동시가입 원칙 결정
- 1997년 7월 23로 예정되었던 ASEAN 가입이 1997년 무력충돌사태 등으로 무산되고, 라오스 및 미얀마만 ASEAN 가입
- 1999년 4월 30일 ASEAN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2002-03년 ASEAN 의장국 수임 후, 2010년 CLV/CLMV/ACMECS 정상회의 개최
- 2012년 ASEAN 의장국 수행을 통해, ASEAN 내 캄보디아의 역할 및 위상 제고 노력

□ ASEM

- 제5차 ASEM 정상회의 시 ASEM 미가입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동시가입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EU 측이 미얀마에 대해 민주화 및 인권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얀마의 ASEM 가입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
- 2004년 7월 훈센 총리는 미얀마가 ASEM에 가입하지 못하면 캄보디아도 ASEM 정상회의에 불참 선언
- 제5차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SOM에서 13개 신규회원국 가입문제 타결
- 2004년 10월 제5차 ASEM 정상회의시 EU 10개국 및 ASEAN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ASEM 동시가입

□ 역내 협력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4국간 협력
 - CLMV 4개국은 신규가입 ASEAN 회원국이자 후발개도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ASEAN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라는 공동입장을 견지하면서 IAI(Initiative for the ASEAN Integration)의 실질적 수혜 기대와 함께 결속 강화
-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3국간 협력
 - 1999년 훈센 총리의 ‘개발 삼각지대(Development Triangle)’ 구상 제의에 따라 비공식 총리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2004년 9월 채택된 개발삼각지대 종합개발계획이 2004년 11월 제10차 ASEAN 정상회의에 제출, 승인
 - 2010.11월 6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CLV)간 정상회의시 2010-2010 3국간 개발삼각지대 마스터플랜 개정 및 동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개발파트너의 재정기여 확보 방안 등 협의
 - 2012.11월 8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간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경제삼각지대 개발방안 논의와 삼각지대와 일본과의 협력, 7차 투자 결과 및 증진방안 논의.
- Great Mekong Sub-region
 - 2002년 11월 제1차 GMS(Great Mekong Sub-region) 정상회의에서 주최국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및 베트남 6개국 정상이 참가, 인프라, 에너지개발, 무역·투자 확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놈펜 플랜’ 추진 합의
 - 2008.2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8월 제16차 각료회의 개최
- ACMECS
 - CLM+태국 4개국은 2003년 8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 5개 우선순위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
 - 같은 해 11월 정상회의를 개최,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등 경제협력전략 수립하고 상기 경제협력을 Ayeyawady - Chao Phraya - 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ACMECS)이라고 명명, 2004년 5월 베트남이 참여함에 따라 회원국이 5개국으로 증가

- 2010. 11월 제4차 ACMECS 정상회의시 ASEAN 후발 개도국 4개국의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2010-2012 ACMECS 로드맵을 채택하고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4) 국제 기구 가입 현황

□ UN

- 1955년 캄보디아 UN 가입
-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주 UN 캄보디아 대표부에는 훈신평당 소속 Sisowath 대사와 CPP 소속 Ouch Borith 차석대사간 대표권 문제 분쟁 발생
- 라나리드 왕자가 1997년 9월 개최 제52차 UN 총회에 참가연설을 하겠다고 신청, 법적으로 누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혼선 초래
- 1997년 9월 2일 시하누크 국왕이 Ung Huot 제1총리 및 Hun Sen 제2총리를 UN총회 수석대표에 임명하여 캄보디아의 UN총회 대표권 문제 일단락
- 1998년 12월 4일 UN 신임장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출한 Ouch Borith 대사 신임장 심사 후 만장일치로 승인
- 1998년 12월 7일 UN총회 본회의에서 상기 신임장이 승인된 직후 캄보디아의 UN대표권은 회복

□ WTO

- 1994년 12월 캄보디아 WTO 가입 신청 및 WTO 캄보디아 가입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 1999년 6월 캄보디아 정부,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각서 제출
- 2001년 5월 이후 수 차례의 WTO W/G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일본, EU, 호주 등과의 양자협상도 개최
- 2001년 12월 캄보디아 정부, 상품 및 서비스 최초 양허안 제출
- 2003년 9월 WTO 각료회의에서 캄보디아의 WTO 가입 확정
- 2004년 9월 캄보디아 국회에서 WTO 가입안 비준

5)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아동권리협약: 1992.9.22 서명, 1992.10.15 비준
- 무력분쟁하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6.27 서명, 2002.5.30 비준
-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6.27 서명, 2002.5.30 비준
- 여성차별철폐협약: 1992.9.22 서명, 1992.10.15 비준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2001.11.11 서명, 2005.8.31 비준
- 인간 밀매에 관한 의정서: 2001.11.11 서명, 2005.11.25 비준
- 지뢰금지협약: 1997.12.3 서명, 1999.7.28 비준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정치 - 외교

1) 외교

- 1962.7.11. 주 캄보디아 총영사관 개설(총영사: 이택근)
- 1967.1.13. 주 캄보디아 총영사관 철수
- 1970.5.18. 한·크메르 공식 외교관계 수립
- 1970.7.1. 주 크메르 대표부 설치(대표: 이택근)
- 1970.8.15. 주 크메르 대사관 승격(대사: 이택근)
- 1975.4.5. 주 크메르 대사관 철수, 외교관계 중단
- 1996.5.15. 양국간 대표부 설치 합의
- 1996.9.18. 주 캄보디아 대표부 공식업무 개시
- 1997.10.30. 한·캄보디아 공식 외교관계 재개

2) 정상급 교류

- 2000.2. 전두환 전대통령(친선 방문)
- 2001.4. Hun Sen 총리 공식방한
- 2002.11. 김석수 국무총리(ASEAN+3 정상회의 참석 및 공식방문)
- 2006.3. Hun Sen 총리 방한
- 2006.11.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 2008.2. Hun Sen 총리, Hor Namhong 외교장관(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 2009.10.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 2012.11 이명박 대통령 (ASEAN+3 정상회의 참석 및 공식방문)

3) 주요 조약 체결 현황

- 2008.11.1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 2008.12.30 EDCF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 2009.6.4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및 발효
- 2009.11.29 한-ASEAN FTA 서비스협정 발효
- 2010.10.17 한-ASEAN FTA 투자협정 발효

나. 사회 - 문화

1) 재외국민

- 2007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던 캄보디아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황기를 겪으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약 6,000명으로 추산
- 직업군별로는 선교사, 봉제 및 건설업체 등 상사직원, 식당업, 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대부분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시엠립 등지에도 약 1,000명 거주
- 특히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지역의 선교 거점국가로 다수의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기선교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도 증가 추세(2006년 6월 캄보디아 종교부는 노상 선교활동, 방문 전도활동 등은 제한하는 부령을 발령)

재외국민등록 현황(2013.10 기준, 재외국민 등록률 65.9%)

구 분	인원 수	합 계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8명	4,372명
일 반	4,307 명	
유 학	57명	

자료: 대한민국 대사관

2) 관광교류

- 우리나라는 수년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중 1~2위 유지
- 2004-2008년간 5년 연속 1위를 고수, 2009년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제 위기 상황 전 수준으로 회복, 2010-2013년간 베트남에 이어 2위 유지

연도별 캄보디아 방문 한국인 수

연도	인원
2007	329,909
2008	266,525
2009	197,725
2010	289,702
2011	247,381
2012	306,550
2013	435,009

자료: Ministry of Tourism

3) 문화 예술 교류

- 2001.4. 한·캄보디아 문화교류계획서 서명(2001-02년간 예술, 교육, 영화 등 양국간 문화교류 시행)
- 2001.12. 한국전통예술 공연단 방문 공연
- 2003.11. 국악 공연단 방문 공연(동남아지역 순회공연 일환)
- 2004.6. 앙코르와트 유물전시회 개최(2004.6.29-9.12, 서울역사박물관)
- 2004.8. 캄보디아 Royal Ballet 방한 공연(2004.8.31-9.5)
- 2006.9. 제1회 한국영화제 개최
- 2006.12.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방문 공연(시엠립 2회, 프놈펜 1회 공연)
- 2008.10. 제3회 한국영화제 개최 ※ 피아노 치는 대통령 / 플란다스의 개 / 식객 / 괴물 상영
- 2008.11. 경기도립전통무용단 공연
- 2009.11. 제4회 한국영화제 개최
- 2010.4. 2010년 문명의 자취 행사계기, 정동극장 무용단 전통 공연
- 2010.11. 한국 농수식품무역협회 주관 한국 농식품 캄보디아 판촉전 개최
- 2010.12. 제6회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계기 우리전통공연단 “축제의 땅”의 판굿 공연
- 2010.12. 제5회 한국영화제 개최
- 2012.11.24 한국 국립발레단 프놈펜 공연
- 2013.6.12.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에 한캄협력센터 개원
- 2013.6.22 Quiz On Korea 개최
- 2013.7.5 K-POP 페스티벌 개최
- 2013.9.20 제7회 한국영화제 개최

4) 한류 동향

분야	~2013年 한류 동향	2014年 한류 동향 및 전망	총 평
전체	★★★★	★★★★★	방송, 영화, 음악 등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한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패션스타일 또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방송	★★★★	★★★★★	*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국 드라마 - 캄보디아 현지 방송국 중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은 방송국이 없을 정도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 옥탑방 왕세자와 대조영 등 캄보디아 한류 열풍에 힘입어 방영된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한국드라마는 시청률 보증 수표로 자리 잡음. 대부분의 드라마는 현지어로 더빙되어 방송됨. - 런닝맨을 비롯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 또한 수출되어 보통 자막과 함께 방송됨. - 한국 뮤직비디오와 음악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하는 채널이 따로 있을 정도로 K-POP 관련 방송 또한 인기 있음. 그 중 My TV의 경우 공영방송인 CTN 에 이어 14%로 시청률 2위를 기록하고 있음.

분야	~2013年 한류 동향	2014年 한류 동향 및 전망	총 평
			- 싱가포르의 S One 채널과 한국의 MTV 채널 등 외국 채널에서도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만을 방영하는 채널이 존재함.
영화	★★★★	★★★★	*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해 관심이 높아지는 한국 영화 - 안방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 배우들이 인지도를 높여가는 만큼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인 소리아 백화점에는 영화 및 드라마의 DVD 를 판매하는 상점이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 영화 및 드라마임. 단, 전량 불법 복제품임. - 프놈펜 현지 영화관에서도 과속스캔들 등 한국 영화가 캄보디아어로 더빙되어 상영되기도 하지만 자주 상영하는 편은 아님.
음악	★★★★★	★★★★★	* 캄보디아 한류 열풍의 핵 K-POP - My TV, Sea TV 등에서 한국 가요의 뮤직비디오 및 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함. - 훈센 공원과 리버 사이드(Riverside)에서 매일 저녁 K-POP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문화가 발달함. 한 명의 강사가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면 현지인들이 1000리엘(약 300원)을 내고 따라 추는 형식이지만, 워낙 K-POP 매니아 층이 두터워 안무를 대부분 외우고 있을 정도임. - 샤이니, 원더걸스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을 카피한 그룹이 존재함.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전무하여 저작권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음. 대부분의 한국 유명 가요가 현지어로 번안되어 노래방 기계에 등록된 상태임. - 빅뱅, 소녀시대, 2NE1 이 가장 인기 있으며, 2013년에는시스타와 타히티가 방문하여 협동 공연을 하였고, 2014년에는 티아라와 미스에이가 프놈펜에서 공연을 함. - 한국 가요가 가사에 영어를 섞어 쓰듯 캄보디아 가요도 한국 가요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랑해' 같은 가사를 섞어 씀. - 최근 원더걸스 등의 팬클럽이 가수의 이름으로 지방에 우물을 파는 등 자선 활동을 한 바 있어 현지인 사이에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임
애니/만화 /캐릭터	★	★	* 애니메이션의 수출은 전무한 상태 - 해외 수출이 활발한 국산 애니메이션이 캄보디아 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톰과 제리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만화영화임. - 어린이들의 옷 중 앵그리버드(Angry Bird)를 비롯한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있으나 정식 라이선싱 상품은 아님. - 어린이들에게는 만화가 인기있고 PC 게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만화영화는 시청률이 높은 편이며, 한국애니메이션의 진출이 유망해보임.
게임	★★	★★★★	* 프놈펜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PC 보급 - 2013년 동안 인터넷 모바일 폰은 급속히 늘어났고 이에 모바일 게임 수요가 늘어남 - 온라인 게임 외에 오락실 게임은 쏘반나 등 큰 쇼핑 센터의 오락실 개장으로 인해 흥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게임 기기는 없음.

분야	~2013年 한류 동향	2014年 한류 동향 및 전망	총 평
패션/뷰티/의료	★★★★	★★★★	* Made in Korea 의 로열티가 붙는 패션/뷰티/의료 시장 -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인기로 젊은 층에서 한국 패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특히 한국 중고의류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음. - 부유층 고객을 타깃으로 한 뷰티 살롱들이 입점하고 있음. 피부 미백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메이커의 썬크림(sun screen)이 현지인에게는 가격이 매우 높은 편임, - 현재 네이처 리퍼블릭, 미샤, 토니모리 등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임.
음식	★★	★★★	* 현지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음식 - 프놈펜 도심의 경우 많은 한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으로 인해 한국 음식점이 상당수 있음(외국 음식점으로는 중국 음식점 다음으로 많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때문에 현지인들이 즐기기는 무리가 있음. 그러나 한국인보다 현지인을 타깃으로 하여 가격을 낮춘 한국 음식점이 소수 존재함. -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 또한 증대되고 있음. 2011년 개최된 한국 음식 페스티벌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캄보디아인들의 관심은 엄청났음. 김치, 김밥, 삼겹살 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 - 프렌차이즈 업체로는 투레쥬르와 커피빈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프렌차이즈업체들이 진출할 예정.
관광	★	★★	* 큰 관심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낮은 관광 산업 -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지만, 한국 관광을 할 여력이 되는 가정은 많지 않음. 한 고등학교의 설문 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이 가장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로 뽑힐 정도로 젊은 층에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결혼의 증가로 캄보디아 신부들이 한국으로 가는 경우 많음. 가족 중 한 명이 한국에 떠나있는 경우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고 여행가고 싶어 함. - 한국 여행사에서는 의료 관광 상품을 준비 중에 있음.
협한류 여부 (한류 거부)	★	★★	* 협한류의 기운 감지하기 어려움 - 아직까지 협한류의 동향은 없음. 단 한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수출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서의 동남아 비하 발언 삼가 요망. - 다수의 봉사활동 및 지원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좋으며, 한국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made in Korea 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좋은 편임.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지표

1)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지 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	6.0	7.1	6.5	6.2
1인당 GDP	US\$	792	853	915	931
소비자물가 상승률	%	6.0	4.5	3.0	3.7
수출	백만US\$	3,884	5,276	6,036	6,915
수입	백만US\$	5,466	6,879	7,662	9,056
무역수지	백만US\$	-1,582	-1,603	-1,627	-2,141
민간소비 증가율	%	4.8	2.5	8.9	-
민간투자 증가율	%	21.3	10.3	5.7	-
외국인투자 금액(당해분)	백만US\$	762	1,332	1,339	1,200
외환 보유고	백만US\$	2,249	2,533	3,022	3,600
실업률	%	-	-	-	3.5%
환율(연평균환율)	US\$	4,191	4,071	4,054	4,024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2) 경제 개황

-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 및 정국안정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과 2009년 주춤하였으며 2010년 이후 꾸준히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단, 캄보디아 가공산업의 가장 큰 산업인 봉제업은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노조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커 최저임금 관련 투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 캄보디아 정부는 WTO 가입(2004.9)을 계기로 총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투자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비효율성,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 수준에 따른 부패현상 등이 아직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소로 잔존한다.

- 2004년 7월 출범한 제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는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전략(사각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한다.
- 2006년 3월 제8차 원조공여국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의 구체적 이행과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06-2010)과 전략적 국가개발계획 수정본(NSDP 2009-2013)을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나. 경제성장률

1998년도 1% 성장에 불과하였던 캄보디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원조 재개, 의류 수출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2004년 10.0% 성장에 이어 2005년에는 13.4%, 2006년 10.8%, 2007년 10.1%, 등 4년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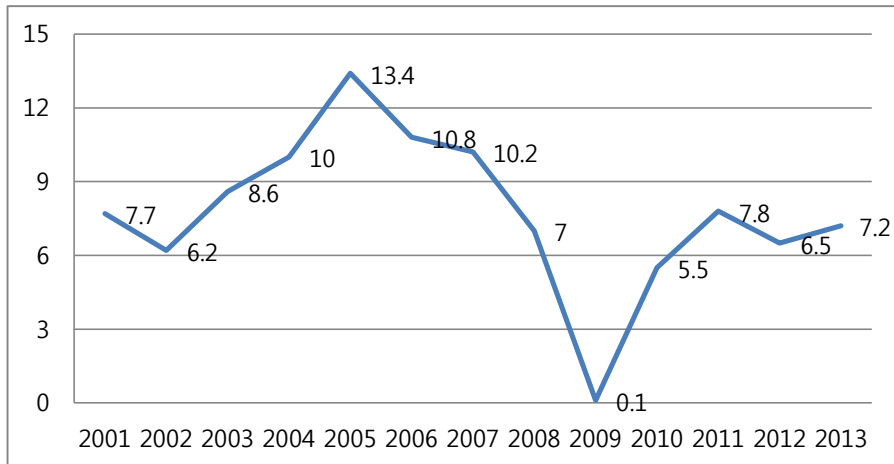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2008년, 캄보디아의 GDP 성장률은 의류, 제조업, 관광업 및 건설업의 부진으로 6.8%까지 하락하였으며, 2009년 성장률은 0.1%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봉제와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이 예상 되었으나 총선 이후 불안한 정세와 봉제업 노동자 파업이 악재로 작용하였다.

GDP 성장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5.5	7.8	6.2	7.2

자료: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및 상무부

GDP 성장률 추이 (2001-2013)



자료: IMF, 캄보디아 통계청

주: 2014년 2월 확인자료

국제 원유가 인상, 베트남의 WTO 가입 등 대외 요인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원유가의 상승으로 경제성이 좀 낮은 태국만의 유전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12년 산유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정확한 매장량 및 사장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

베트남의 2006년 WTO 가입으로 캄보디아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경우 이와 경쟁해야 하는 캄보디아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26.7%가 유엔이 정한 최저 생계선을 밑도는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금리

예금금리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2012년 하반기 은행과 소액 금융기관의 경쟁 과열과 리엘화의 안정성 강화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대출금리는 2013년 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리 추이

(단위: %, 12개월, 평균)

연도	Feb-13	Mar-13	Apr-13	May-13	Jun-13	Jul-13	Aug-13	Sep-13	Oct-13
크메르화 예금금리	5.93	5.90	5.95	5.95	5.98	5.98	5.94	5.91	5.90
달러화 예금금리	4.44	4.44	4.41	4.41	4.43	4.39	4.39	4.38	4.37
크메르화 대출금리	11.76	11.80	11.84	11.88	11.93	11.93	11.93	15.76	15.76
달러화 대출금리	11.71	11.72	11.76	11.76	11.71	11.42	11.37	11.91	11.43

자료: NBC(National bank of Cambodia)

라. 환율

1997년 동남아 외환 위기 때 약 40% 평가절하된 이후 착실한 경제 성장 및 원활한 자본 유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Riel화는 1불당 3,800~3,900선에서 안정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인이 확대됨으로써 미 달러화 대비 리엘화 환율은 지속적인 약세 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 4,025리엘에서 2005년에는 4,116리엘을 기록하였다. 2006년 과 2007년에도 리엘화의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말 이후 달러화의 국제적인 약세로 인해 환율은 3,90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2008년 3월 이후 4,000 리엘에서 4,100리엘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리엘화가 4,000~4,100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반적인 통화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통화가 불안정하더라도 캄보디아 내에서 조차 달러화가 사실상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 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소폭 환율 변동이 있었으나 2014년 4월 현재 환율은 약 4,015원 대로 2013년 하반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있으므로 평균 4,000원대에서 변동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 추이 (달러표시 리엘화 환율)

연도	2011	2012	2013	2014
환율(평균환율)	4,071	4,054	4,033	4,015

자료: NBC(National bank of Cambodia)

마.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연말 기준)

연도	2010	2011	2012	2013
물가상승률	4.0	5.5	2.9	3.7

자료: IMF

1998년 14.8%에 달했던 캄보디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안정적인 리엘화 환율 및 쌀 가격 하락, 정부 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로 돌아서 연간 약 2%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후 물가상승률은 2008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8년에 19.7%로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국제유가의 급상승 및 국내 쌀 공급 부족으로 식품 등의 가격 이 급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후반에 들어서서 시작된 음식료품 및 연료 가격의 하락, 리엘화 및 미달러화가 평가절상된 데다 기준을 인상 등 통화 긴축조치의 효과도 가시화됨에 따라 안정화였다. 2009년에는 세계 수요의 위축 등으로 인한 전반적 상품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는 0.7% 하락했다. 2010년에는 캄보디아 전반적인 경제 성장 및 소비자 소비심리 확대 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4.0%로 안정되었다. 2012년 캄보디아 내 상품시장은 가격의 안정화로 물가 변동률의 폭은 3%에 그친 상황이다. 2013년 물가 상승률은 국제 곡물가 상승 및 원자재 상승과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인해 작년 2.9%에 비해 더 높은 3.7%를 기록하였다.

캄보디아는 많은 원자재 및 상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은 물가 상승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 실업률 및 최저임금

1) 실업률

통계조사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의 여건상 최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관별 통계자료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현재, 캄보디아의 실업률은 3.7% 정도로 아시아 국가의 평균인 4%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발표 실업률은 2011년 0.2%) 2009년 이후 활성화 되었던 관광업과 봉제업으로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일부 공업단지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2) 최저임금

2014년 2월부터 봉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미화 \$80 수준에서 \$20 인상한 \$100로 인상 책정하였으나, 노동자들은 \$160 로 올리길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인상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가파른 인상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시뮬레이션

- 한 달간 26일, 매일 10시간(초과근무 주말제외 매일 2시간) 근무한 초임 여공의 경우

추가 수당 테이블

수당명	시급	근무시간	수령금액
만근수당	N/A	N/A	\$10
교통수당	0.5(일당)	26(일)	\$13
식대	0.5(일당)	21(추가근무일)	\$10.5
추가근무수당	0.57	42(시간)	\$24.23
수당합계	-	-	\$57.73

주1: 따라서 총수령 금액은 최저임금 \$95 + 추가수당 \$57.73 = 152.73

주2: 추가근무수당 시급 계산식은 최저임금÷26(근무일)*1.5(평상시 시급의 추가 1.5배)

주3: 상기 수당 (교통수당, 추가 근무 식대)는 공장에 따라 상이함.

2012년에 임금 인상 후 1년여만에 또 다시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주문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봉제업체에 부담을 가중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봉제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국가인 미얀마, 베트남에 비해서 산업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 재정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6%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역 관련 세금 누수 현상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으로 조세 행정은 개선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00명의 조세감사관 채용 및 국내수요의 증가로 조세 징수가 확대되고 경상지출이 확대되지 않아 재정적자 규모는 다소 축소 되었다.

조세 이외의 여타 재정 수입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유 재산의 처분 및 사용과 관련된 재정 수입은 여전히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대 관광 수입원인 앙코르 와트 입장 수입도 상당액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유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모든 권한 및 실무 행위가 관방부(Council of Ministry)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재정 수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단지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아예 처분 행위 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 수지 적자의 75% 정도는 대외 무상 원조 및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 자립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 주요 경제정책

1) 개요

2008년 9월 구성된 제4기 정부(2008-13)는 농업, 물 및 관개 시스템, 운수 인프라, 전력, 인재육성, 노동집약형 및 수출주도형 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등 10개 분야를 우선산업으로 선정하여 경제발전 추진 중이다.

2) 경제 성장을 위한 분야별 해결 과제

□ 농업분야 강화

- 농업생산성 향상과 다양성 강화
- 토지개혁 및 지뢰제거
- 수산업분야 개혁
- 임업분야 개혁

□ 인프라 확충

- 운송 인프라 건설 및 개선
- 수자원 관리 개선 및 관개시설 확충
- 에너지분야 발전
- 정보 통신 기술 발전

□ 민간분야 발전 및 고용 창출

- 민간분야 역량강화 및 투자 유치 확대
- 고용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 중소기업 육성
- 사회보장 제도 창출

□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

- 교육의 질 향상
- 보건 서비스 개선
- 양성 평등 정책 이행

자. 경제 전망

1) 단기 전망

캄보디아 정부는 연간 6~7%의 실질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캄보디아 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캄보디아 핵심산업인 봉제부분은 2013년 1분기 14억 달러를 수출하며 작년 1분기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설비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봉제제품 주수입국인 EU, 미국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및 베트남의 임금 상승 때문에 생산기지가 이전했기 때문이다. 한 편 관광산업역시 방문객이 전분기 대비 18%가 증가하는 등,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현재 캄보디아는 투자대상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13년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6.5억달러로 10%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외자 유입은 캄보디아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 농업 생산량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호조 속에서 캄보디아에서도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등장했으며, 이들이 현지 소비트렌드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외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캄보디아의 경제 단기적 성장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 속에 캄보디아에서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의 조짐 역시 보이고 있으며 봉제공장의 노사분규 및 최저임금 상승, 높은 빈부격차는 캄보디아 정부의 당면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중장기 전망

캄보디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섬유와 관광의 경우, 섬유는 EU, 미국으로부터 최혜국관세특혜(GSP) 협정이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경쟁국들 역시 혜택을 적용 받아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분야는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업은 개발산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장이 예상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향상, 인프라 스트럭처 복구 및 신설,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인력 양성 등의 4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과제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농업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관개 시설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수송 인프라를 개선하며, 종자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영농 방법의 개선, 작물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수산 분야의 개혁, 경지 정리와 지뢰의 제거,

2015년까지 총 면적의 60%까지 숲을 확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인프라 건설 및 복구 과제에는 수송망의 확충, 수자원 관리 및 관개 시스템 구축, 에너지 부문의 개발과 전력 확충,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민간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한 투자 유치 강화, 노동집약적 수출 중심의 가공, 제조 공장 유치,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의 육성, 고용 창출과 작업 환경의 개선,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인력개발 및 양성부문에서는 학교의 증설과 취학자 확대, 영아 사망률의 획기적인 개선 및 HIV 감염률 저하, 양성 평등의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황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캄보디아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업 이외의 산업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1995년 UNTAC 등 선진국의 원조와 차관에 힘입어 7.4%의 산업 성장률을 보인 이후 일부 분야의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캄보디아의 산업은 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GSP 혜택을 겨냥한 의류 봉제업을 제외하면 아직도 이렇다 할 산업이 거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농업

농림 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비교적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 발전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메콩강과 그 지류들, 톤레삽(Tonle Sap)호수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 주변의 퇴적 지대에 양호한 농지들이 분포해 있다.

농업의 중심 작물은 쌀인데 전체 경작지의 90%를 사용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국민 칼로리 섭취량의 75%가 쌀로 충당되고 있다.

쌀 생산 방식은 문화적 전통, 지방 특색, 토양의 종류, 강의 범람 시기, 이앙 시기 및 농업 용수의 양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대별된다.

- 우기 저지대 재배
- 침수지 부유식 재배
- 부분 관개를 통한 범람지역 재배
- 저지대 관개답 재배
- 고지대 천수답 재배

쌀 이외의 작물로는 슈가팜, 캐슈넛, 등나무, 옥수수, 타피오카, 콩, 사탕수수, 고무, 후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단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미비, 생산성 향상기술 미흡, 농자재 생산 및 수급 미흡, 유통구조 및 농업연구 R/D투자 미흡 등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열악으로 모든 작물의 생산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2011년 10년 만의 가장 큰 홍수의 영향으로 예상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쌀 생산량은 관개시설의 확충 및 비료 사용 확대 등 전반적인 농업 인프라의 발전으로 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심각한 홍수 피해로 우기에는 감소함. 이외의 곡물 생산의 경우, 상당수 작물을 카사바로 전환하여 생산량이 급증 했으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카사바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다. 어업은 높은 강수량으로 강의 유량이 많아져 어류 포획량이 증가하였다.

2013 식품수급평가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2013년 한 해 동안 4,820,000톤 상당의 벼를 초과로 생산했다(도정미 기준 3,080,000톤). 이 수치는 2012년도 생산량에 비해 1.96% 증가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쌀 이외에도 941,000 헥터 면적의 농지에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담배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은 1,540,000 톤에 이른다. (2012년도 대비 13.67% 증가)

다. 봉제 산업

봉제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거의 유일한 2차 산업으로서 2013년 11월현재 캄보디아 섬유 제조업체 협회(GMAC: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는 총 590여곳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계 공장이며 한국 봉제 공장도 60개사 정도가 진출해 있다. 지역별로 보면 프놈펜 지역이 198개 업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칸달 지역이 51개이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캄보디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봉제 산업의 고용 인원은 약 45-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2차 산업 총 고용의 41%에 해당하며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봉제업은 WTO가입으로 인해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greement: MFA)에 기반한 수입수량 쿼터가 철폐되어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7년 8.1%, 2008년 3.3%의 수출증가율을 보임.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불황으로 19%의 수출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24%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특히 EC의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규정 개정으로 캄보디아 등 최빈국(LDCs) 국가들이 유럽시장 수출 시 관세혜택 범위가 기존 부가가치율 70%에서 30%로 조정됨에 따라 유럽지역이 주 수출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2년에는 9%의 성장률을 보이며 45억달러를 수출하였으며, 13년 1분기에는 13억 4,000만달러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걸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봉제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공장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과격한 시위와 그에 따른 유혈사태, 군, 경의 과잉진압 등 봉제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80이던 봉제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014년 2월 \$100까지 올려줬지만, 노동조합은 \$160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계획이 없다며 참여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봉제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 건설업

건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최근 2~3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 노동력이 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주거 시설이 부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주거 시설이 대거 들어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건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의 상업용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급 주거시설, 고급 상업용 건물 개념으로 직접 시행하는 업체가 등장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인의 소득 수준, 주거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 고급 아파트 건설 등은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토지 가 격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기업이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개발 계획 없이 토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좀 더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참여가 필요하다.

2011년 주택 건설 인허가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데 힘입어 예상 성장률을 뛰어넘는 4.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3년 총선 선전용으로 공공부문의 건설이 증가하여 건설 전체적으로 7.2%의 성장을 한 것으로 예측됨.

마. 관광업

관광업은 캄보디아가 육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이다. 앙코르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은 연간 42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관광업의 급속한 성장 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 부문의 다양화를 위해 시하누크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관광 리조트 개발, 북동부의 고원 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 관광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적인 자원 부족으로 민간업체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캄보디아는 앙코르 문화유적 관광이라는 단순 관광에서 탈피하여 문화유적 관광과 휴양을 겸한 복합적인 관광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식업과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에 힘입어 10.7% 성장하였으며, 유럽 발 경제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3년 관광수입은 12년 대비 13.6%의 성장률을 보이며 2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 관광객 수는 4,210,165 명으로 2012년 동일 기간 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바. 제약·의료 산업

1) 의약품 시장 동향

일부 원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 수입국은 프랑스, 태 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호주 등이다. 연간 4,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수입 및 밀수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부 입찰은 연간 600만 달러 정도이나 일부 의약품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역수출(밀수)되기도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반제품 수입 후 포장만 하는 1개 제약사와 단순히 원재료를 수입하여 항생제 정도를 제조하는 4개의 현지 제약회사가 있는 것이 고작이다.

2) 병·의원 및 약국 현황

종합병원은 정부 운영 위주이며 일부 외국 병원(프랑스, 싱가포르) 프놈펜을 중심으로 소재 하고 있고, 정부가 관장하는 종합병원은 21개 주에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전문의는 프놈펜 의과대학교 및 극소수 프랑스에서 유학한 의사들이며 장비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가 낙후되어 있다. 의과대학 7년 과정을 마치고 지방 종합병원의 3년 봉사 근무 후 해당 병원장의 추천에 의해 전공 과목이 선정되고 보사부 심의 후 개인 의원의 자격이 부여되면 개업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계 한의원도 일부 있으며, 최근 들어 대만 및 중국계 준 종합 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심장수술이나 뇌수술, 화상재건, 암수술, 신경수술 등 정교한 의술 혹은 첨단의료기구를 요구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가격 또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경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중산층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나가는 실정이다.

프놈펜대학교 약학과 출신의 약사는 극소수이나 대부분 종합병원의 검사실, 약제실 근무하 고 있으며, 실제 약국을 개업한 약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약국은 정부에서 주는 허가증을 받고 개업하거나 무면허 약국이 60~70%가 넘고 의약품 판촉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약사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국이 제대로 정착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약국 숫자의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나 대략적으로 프놈펜 시내 약국이 약 200~400개, 지방까지 합쳐 약 3,000~4,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 그린에너지

□ CDM 시장 동향

캄보디아 정부는 CDM사업을 국가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한 기회,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극 장려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기업의 CDM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탄소배출권 이전수익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 및 권한을 해당기업에 부여한다. 2009년 4월 말 기준 캄보디아에는 총 6개의 청정에너지 사업이 경영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바이오 가스(메탄 채취), 바이오 매스, 생물 에너지, 폐열/폐가스 활용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CDM프로젝트를 허가받는 과정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나, 프로젝트가 캄보디아의 국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CDM시장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선 캄보디아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낮으며 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공업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규모 탄소배출이 없다. 따라서 캄보디아에서는 소규모 CDM프로젝트가 적절하며,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창출보다는 기술이전 또는 지역 개발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대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내 CDM시장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개발비용, 미숙한 현지 노동력,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며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가운데 늘어나는 전기수요에 맞춰 바이오매스 에너지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2020년까지 전국에 전기공급을 목표로 삼으며 바이오매스에너지와 함께 각종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은 Nordic Development Fund (NDF)와 메콩강 지역 (GMS,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정부들의 공동자금을 확보하며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을 증진시키는 지역적 기술지원프로젝트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까지 바이오매스 실험연구와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관과 인적자원의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가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의거된 신축성 메커니즘의 하나인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도입을 본격화해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시행하고 친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마련한다면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ARF)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지역의 정치·안보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 연합)에 1999년 4월 30일 마지막 회원국(10번째 가입국)으로 영입되면서부터 지역 경제 체제 속에서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일념으로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의 제반 관세 철폐 스케줄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

ASEAN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회원국으로 끌어들여 빠른 시일 안에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낮춰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AFTA)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을 세웠으며, 결국 1997년 7월 라오스, 미얀마가 각각 ASEAN에 가입했다. 한편,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 회의를 통해 저개발 국가로 는 처음으로 WTO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승인되어, 2004년 10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WTO 의 14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ASEAN 가입 후, 2008년 11월까지 한-아세안 FTA 미 발효국가인 캄보디아는 2006년 서명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캄보디아 한국 FTA는 2008년 11월 1일부터 공식 발효하여 이행하게 되었다.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동향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89억 달러 정도로서 주요 수출 품목은 외국인 투자 진출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 고무, 농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 전자 제품, 담배, 의약품, 철강 제품 등이다.

2012년 중 대외수지는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 속에 2011년 10억 달러에서 2012년 1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했다. 특히 경상 수지 적자는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적자로 보인다.

1) 교역 대상국별 수출입 통계

교역 대상국별 수출

(단위: US\$ 백만)

국 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미국	1,880.4	1,904.5	1,553.1	1,903.4	2,552.0	2545.2	1597.0
홍콩, 중국	463.8	812.7	1,647.3	1,384.8	39.0	61.2	701.1
영국	147.3	150.7	179.7	235.2	386.0	651.0	510.8
독일	184.9	133.5	108.8	112.3	504.0	601.7	420.8
캐나다	189.2	292.0	195.8	274.2	527.9	599.2	360.2
싱가포르	132.2	109.7	481.8	429.5	173.0	517.6	413.3
네덜란드	78.8	147.0	145.1	235.5	69.0	85.4	118.7
베트남	79.3	165.0	115.3	96.0	69.0	449.1	77.8
스페인	115.1	123.7	105.5	101.2	161.6	185.4	143.1
일본	33.6	31.0	79.78	89.5	280.0	367.7	219.1
계	4056.6	4350.1	4981.4	5571.0	6515.4	7791.8	5949.9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교역 대상국별 수입

(단위: US\$ 백만)

국 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싱가포르	179.3	293.5	208.8	155.5	1,000.0	1087.2	167.6
태국	512.3	673.3	464.7	689.9	2,931.0	4141.9	676.2
홍콩	683.5	568.7	224.2	552.6	770.0	891.6	502.5
베트남	347.7	455.8	439.2	486.7	2,648.0	3044.6	618.1
중국	628.0	902.2	881.4	1,184.9	2,550.0	2976.8	2424.2
인도네시아	134.0	96.2	145.5	175.0	285.5	321.4	173.6
한국	191.7	221.5	118.8	247.8	496.0	652.6	259.9
일본	140.7	110.3	209.1	156.5	226.0	257.5	156.4
말레이시아	107.3	118.3	132.0	165.3	284.0	273.9	122.3
미국	36.3	212.8	90.6	129.8	204.0	248.8	1075.4
계	6535.8	4419.8	3896.3	4891.9	12623.2	15241.6	7042.7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2) 주요 교역 품목별 수출입 통계

상위 10개 수출 물품 2011-2013

(단위: US\$ 백만)

품목	2011	2012	2013(1-9)
의류	4,270.60	4,281.37	3,702.75
은행권, 지폐	1,597.86	2,300.74	1,044.33
플라스틱류	-	297.97	257.10
탈것	291.34	280.72	201.17
쌀	104.67	139.68	175.51
고무	192.69	167.47	123.52
설탕	12.72	10.13	51.11
모자, 헤드기어	-	6.24	14.27
카사바	-	3.98	12.07
목재류	45.79	15.85	11.11
계(백만USD)	6515.67	7504.15	5592.94

자료: 캄보디아 상무부 무역통계연보 (hs code 4단위 숫자 물품기준)

상위 10개 수입 물품 2011-2013

(단위: US\$ 백만)

품목	2011	2012	2013(1-9)
의류	2,181.06	2,438.26	1,985.31
종이류	32.31	45.56	1,020.57
탈것	230.00	525.02	507.74
석유	777.59	212.98	382.31
항공기	-	-	169.80
담배	131.74	156.52	134.98
의약품	82.73	92.39	121.63
미가공 알루미늄	2.69	37.84	74.20
중장비	4.68	20.71	68.59
시멘트	60.41	78.94	57.50
계(백만USD)	3503.21	3608.22	4522.63

자료: 캄보디아 상무부 무역통계연보 (hs code 4단위 숫자 물품기준)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 황

한국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지난 2001년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매년 평균 2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수출은 이라크 사태 및 SARS 등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8.4%가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5년에 14.2%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006년에도 수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42.1%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는 200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대 캄보디아 수입은 연간 500~7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며, 2006년의 경우 540만 달러를 기록 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수출 산업이 절대적으로 열악하여 수출 상품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대 캄보디아 수입이 1,437.8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천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4억 507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00.9% 증가한 8,727만 달러 달러를 기록해 3억 6,345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도 대 캄보디아 수출은 전년 대비 34.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 캄보디아 수출은 2009년 이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빠른 경기회복을 나타냈으며 수입 역시 수출에 비해 총 금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2010년부터 2년간 100%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2년에도 44.7%의 증가율을 보임. 2013년도 대 캄보디아 수입은 136,313(US\$ 천)로 전년 대비 약 7.9%, 수출은 614,644(US\$ 천)로 전년 대비 약 3.6%의 증가율을 보였음. 2013년 수출액 증가폭이 작아지긴 하였으나 대 캄보디아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약 2.4%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입 추이

(단위: US\$ 천)

연 도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205,093	42.2	5,461	-8.4	199,632
2007	281,426	37.2	8,873	62.5	272,553
2008	294,383	4.6	14,378	62.1	280,005
2009	273,323	-7.1	18,202	26.6	255,121
2010	332,998	21.8	43,445	138.7	289,553
2011	450,780	35.4	87,343	101.0	363,438
2012	593,295	31.6	126,359	44.7	466,936
2013	614,644	3.6	136,313	7.9	478,331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나. 대 캄보디아 수출

- 캄보디아 주력 산업인 봉제업, 농업 관광업, 건설업이 지속적인 성장기조를 이어나가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직물류, 수송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 대 캄보디아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물제품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음.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루미늄조가공품은 2012년 이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류 열풍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 식문화에도 관심 집중, 특히 음료는 2011년 479%, 2012년 19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2013년에도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품목별 對캄보디아 수출

(단위: US\$ 천, %)

순위	품 목	2011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60,778	23.0	160,832	0.0	153,979	-4.3
2	알루미늄조가공품	2,874	-2.3	44,608	1,452.1	69,080	54.9
3	화물자동차	44,467	118.7	79,465	78.7	66,843	-15.9
4	기타섬유제품	52,992	21.3	63,140	19.2	48,732	-22.8
5	음료	5,502	479.6	16,366	197.5	27,644	68.9
6	무선전화기	0	-	3,036	-	20,357	570.6
7	편직제의류	8,161	67.2	12,513	53.3	15,909	27.1
8	건설중장비	5,342	52.7	14,242	166.6	13,459	-5.5
9	연초류	15,751	62.0	21,047	33.6	13,392	-36.4
10	의약품	10,123	33.4	10,165	0.4	11,598	14.1
총 계		450,780	35.4	593,293	31.6	614,644	3.6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다. 대 캄보디아 수입

- 대 캄보디아 수입품 중 편직제의류는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11년 125.3%, 2012년 91%, 또한 2013년에 19.3%증가 하였으며, 직물제의류 역시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섬유기업들의 현지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천연고무는 2012년 -59.3% 수입 감소하였고 2013년 역시 -35.0%를 기록 계속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전선이 2013년에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된 수입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對캄보디아 수입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제의류	31,156	125.3	59,521	91.0	71,033	19.3
2	직물제의류	7,602	46.7	10,887	43.2	15,227	39.9
3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4,080	-17.2	7,770	90.4	7,436	-4.3
4	천연고무	27,071	145.5	11,020	-59.3	7,158	-35.0
5	유선통신기기부품	1	-	109	-	6,521	5,910.0
6	전선	248	-	1,820	634.1	5,343	193.7
7	연괴 및 스크랩	-	-	0	-	3,659	-
8	스포츠화	1,234	171.5	2,983	141.8	2,729	-8.5
9	기타신발	2,250	148.9	1,846	-17.9	2,554	38.4
10	기타의료위생용품	1,465	100.2	2,410	64.5	2,326	-3.5
총계	-	87,343	101.0	126,359	44.7	136,313	7.9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3. 수입규제제도

캄보디아는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입 규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수입 화물은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적 전 검사는 SGS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2006년 5월부터 BIVAC으로 대행 회사가 변경되었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1999년 11월 이후 중단되었으나 2000년 10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의 부활은 캄보디아 정부의 종합적인 수입 통관 개선책 CISS(Comprehensive Import Supervision Scheme)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지난 1995. 8월 이후 5년간의 SGS 선적 전 검사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6,800만 달러에 달하는 검사 대행 수수료 미납 문제로 선적 전 검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동 제도가 시행 이후 캄보디아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물품은 수출국 소재 BIVAC을 통해 선적 전 검사(PSI)후 CRF (Clean Report of Findings)를 발급 받아야 하며 PSI 없이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는 CIF 가액의 7%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CRF에는 해당 수출품의 수량, 품질, HS 코드 및 일반적인 수출 가격 등이 명시된다.

□ 선적 전 검사의 실익이 없어 PSI가 면제되는 16개 품목

- FOB 가액 기준 4천 달러 이하의 물품
- 보석
- 예술품
- 폭발물 및 발광물
- 군수품 및 무기
- 산 동물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 이사물 및 개인 휴대품
- 소포 및 상업용 샘플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구호 물품
- 외교 물품
- 원조 물품
- 정부 구매품
- 고철
- 담배
- 재수출품

한편, 선적 전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며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FOB 가액의 0.8%, 벌크 상태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톤당 0.30달러를 부과되 최소 금액은 건당 210달러로 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로 수출입 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CAMCONTROL이 수량 및 품질을 검사 하고 있는데, 워낙 비리가 많고 화물 통관 지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CAMCONTROL은 캄보디아 상무부 소속기관이다.

주로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 및 수량 일치 여부 검사와 수량 차이에 대한 조사를 대행하며, 보험 서베이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실제 수출입의 제반 단계에 일일이 간섭하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옥상옥 기관으로 무역업체에서는 원성의 대상이다. 2010년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수입물품가격의 하향 신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물품 선적 전 검사 제도를 폐지하였다.

캄보디아 정부가 오래 전부터 운영해왔던 선적 전 검사제도의 폐지한 것은 선적 전 검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물품가격을 세관에서 재 산정한 후 산정한 물품가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과거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선적 전 검사 대상 물품가액이 낮게 설정돼 대부분의 수입화물에 대해 선적 전 검사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세관에서 국제물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물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채널이 확보돼 있어 선적 전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입물품가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돼 온 선적 전 검사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제한·금지규제 사례 중 우리 나라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오른쪽 핸들의 차량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오른쪽 핸들 차량 수출국에 대하여 수입규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쟁을 완화시켜 주는 플러스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 많이 수입되던 중고 컴퓨터는 2006년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폐 컴퓨터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 캄보디아 주종 수출 상품인 중고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중고 의류 등 중고 제품에 대해서도 특별한 수입 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 관세 제도 개황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세율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을 따른다.

□ 비과세 및 세금 공제

다음에 열거한 수입은 세금이 면제된다.

-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성 및 투자성 수입, 이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살충제 등 농약,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기계류(트랙터 제외)
-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 및 국가간의 쌍무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

□ 세율

기본적으로 4단계의 세율이 있다. 필수 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은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 자재는 35%,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는 50%이다.

Rice paddy, rice seeds, 농업 소도구들, 비료, 스포츠용품, 교육용품 및 교과서는 수입 관세가 0%인 몇 안 되는 물품에 속한다. 금, 은 및 동전은 0.3%의 관세가 부과되며, 디젤과 윤활유에는 20%, 가솔린에는 45%가 부과된다.

그 이외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품목	관세율
미가공 야채, 과일 및 땅콩, 홍차, 식용유, 설탕, 소금, 의약품, 자전거, 비료를 제외 한 화학물, 플라스틱과 고무 원재료, 포장재료, 비금속, 쇠, 강철, 석탄, 일부 기계류	7%
손목시계	10%
밀, 원두커피, 치약, 사진용 필름, 제품화되지 않은 담배, 기계류, 공구류, 트랙터를 포함하는 장비류, 트럭, 산업 무기물 제품, 여러 종류의 방사	15%
경유와 디젤, 윤활유와 시계	20%
생선·육류, 고급 낙농 제품, 밀가루, 커피, 초콜릿과 설탕 제품, 곡류 및 prepared products, 화장품·화장실 용품, 의류 및 섬유 제품, 신발류 및 가죽 제품, 냉장고, 식기 세척기, 가전 제품, TV, VCR, 전축,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튜브, 브레이크액, 부동액, 시멘트, 원목, 합판, 페인트 및 니스, 카펫과 장판, 천, 모방사, 전기 변압기, 강철제품, 강철 컨테이너, 녹말·아교, 효소	35%
가솔린	45%
향수, 진주, 다이아몬드, 음료 및 주류, 담배, 자동차 및 일반 차량, table games and funfair articles	50%

주: 세율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은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에 문의 (<http://www.mef.gov.kh>)

6. 주요인증제도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 제도는 없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사정에 비추어 고유의 인증제도는 당분간 도입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7. 지식재산권

가. 상표법

종전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캄보디아에서도 2001년 12월 초 최초의 상표법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동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한 회사나 개인에 대해 US\$ 250~5,000의 벌금 또는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업체나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상표법 입법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즉, 캄보디아에서 입법과 그 시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관점인데 컨설팅 업체 Pricewaterhouse의 경우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여전히 저작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행 중인 상표법은 법원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또 다른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법정 벌금 자체가 과소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이득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실무 부서는 상무성 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이며 등록 시 상표 샘플 및 동 상표 소유권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표는 등록 이후 10년간 유효하며 5년 경과 시 동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나머지 5년간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다.

나.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캄보디아 정부는 상무성 주도로 Legislativ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45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입법 중이다. 한편, 92년 UN 치하에서 발효된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는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일종의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1996년 10월 미국과 무역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8.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가. 개 황

캄보디아의 경우 공산품 생산이 전무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이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어 육로를 통한 국경 운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는 시아누크빌 항과 프놈펜 항이다.

프놈펜 항은 메콩강을 이용한 인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의 거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아누크빌 항은 국제 거래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바다 항구이다. 현재 시아누크빌 항은 일본의 원조에 의해 항만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교역 물동량 해소 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항은 프놈펜과 씨엠립에 소재하고 있는데 씨엠립 국제공항은 주로 앙코르와트 관광객을 위한 여객 운송이 주 임무이며, 화물 취급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반해 프놈펜 국제공항 인근에는 대부분의 외국계 봉제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어 항공 화물은 대부분 프놈펜 국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운송 비용은 운송 시기와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해상 운송의 경우 프놈펜에서 시아누크빌 항을 기준으로 20ft 컨테이너 1대를 통관 완료 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 대략 600~700달러 정도 소요된다.

나. 통관절차

수입 물품의 통관은 통관 서류 구비, 서류 심사, 물품 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

□ 통관서류구비

- 선하증권(Bill of Lading, Airway Bill)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Packing List)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 품질증명(Quality Certificate)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를 구비한다.

□ 통관 서류 제출

상기 통관 구비 서류를 갖춘 후 KAMSAB(Kampuchea Shipping Agency and Broker)에 제출하고 DO(Delivery Order)를 발급 받는다.

□ 수입 허가 및 관세 산출

통관 구비 서류 및 DO를 세관에 제출한 뒤 수입허가(Import Permission)를 얻는다. 동 수입 허가에 근거하여 납부해야 할 관세를 산출 받는다.

□ 관세 납부

산출된 관세를 지불하고 난 뒤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 수입 물품 반출

수입 물품 반출은 세관의 보세 창고 구역에서 세관원에 의한 실사를 통해 실제 수량이 선적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세 납부의 적정성을 재검토 받으며, 다음은 CAMCONTROL 라는 기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주로 CAMCONTROL은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상 여부가 감지되면 실험실 등으로 채취 샘플을 의뢰하기도 한다. CAMCONTROL의 검사 후, 최종적으로 Economic Police라고 하는 기관의 검사를 거쳐 반출하게 된다.

아. 운송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 Asian Tigers- Transpo International (Cambodia) Ltd.
- Address: #86, St. 160, Phnom Penh
- Tel.: (855-23) 880 951, Fax.: (855-23) 880 952
- Email: transp@online.com.kh

- Brightway Logistics Co., Ltd.
- Address: #151Eo, St. 143, Phnom Penh
- Tel.: (855-23) 224 122, Fax.: (855-23) 888 567
- Email: brightway@online.com.kh

- Cambest Shipping Co., Ltd.
- Address: #18AB, Confederation de la Russies, Phnom Penh
- Tel.: (855-23) 884 725, Fax.: (855-23) 884 726
- Email: cambestship@online.com.kh

- Cardamom Media Group Co., Ltd.
 - Address: #43D, Preah Monivong Blvd., Phnom Penh
 - Tel.: 099 300 700
 - Email: borom@cardamom.com
- Cam Freight Service Co., Ltd. (CFS)
 - Address: #6, Street 592, Phnom Penh
 - Tel.: (855-23) 883 901, 023 883 902, 023 987 060
 - Fax.: (855-23) 993 709
 - Email: sandysmith@everyday.com.kh
 - Homepage: www.camfreight.com
- Chay Da Logistics Co., Ltd.
 - Address: Room 224, Phnom Penh Center, Phnom Penh
 - Tel.: (855-23) 224 611
 - Fax.: (855-23) 221 760
 - Email: chaydalogs@camnet.com.kh
- Cambodian Shipping Lines & Logistics
 - Address: #333B, Preah Monivong, Phnom Penh
 - Tel.: (855-23) 219 161
 - Email: PNH@logistic.com.kh
- CTSI Logistics Inc
 - Address: #108, Samdech Sothearos (St. 3), Hong Kong Center
 - Tel.: 023 219 161
 - Email: peter_hooi@ctsicam.com
- DHC Freight Co., Ltd.
 - Address: #31B, Okhan Men (St. 200), Phnom Penh
 - Tel.: (855-23) 215 670
 - Fax.: (855-23) 221 822
 - Email: dhc.freight@online.com.kh
 - Homepage: www.dhcfreight.com
- DHL Danzas Air & Ocean Ltd.
 - Address: #149-151, Ang Duong (St. 110), Phnom Penh
 - Tel.: 023 210 879
 - Fax.: 023 362 960
 - Email: wendy.chenhuiyi@dhl.com
 - Homepage: www.dhl.com

- DPEX Worldwide
 - Address: #105F, Oknh Men (St. 200), Phnom Penh
 - Tel.: (855-23) 986 818
 - Fax.: (855-23) 217 425
 - Email: pnh@dpex.com
 - Homepage: www.dpex.com
- Flow Forwarding (Cambodia) Co., Ltd.
 - Address: #15H, At. 118, Phnom Penh
 - Tel.: (855-23) 882 081
 - Fax.: (855-23) 882 202
 - Email: info@flow-cambodia.com
 - Homepage: www.flow-cambodia.com
- Intra Co
 - Address: #2-3, St. 118, Phnom Penh
 - Tel.: (855-23) 428 656
 - Fax.: (855-23) 218 579
 - Email: intra.cargo@online.com.kh
- Global SKL Shipping Co., Ltd.
 - Address: #355-357, Kampuchea Krom (St. 128), Phnom Penh
 - Tel.: (855-23) 881 625
 - Fax.: (855-23) 721 993
 - Email: mol.pnhmgr@online.com.kh
 - Homepage: www.molpower.com
- KAMSAB
 - Address: #109Eo & 2Eo, Sisowath, Phnom Penh
 - Tel.: (855-23) 725 419
 - Email: kamsab@camnet.com.kh
- Kuehne and Nagel Ltd.
 - Address: Sihanouk Blvd. coner Sothearos, 1st Floor, Room #124- 125, Phnom Penh
 - Tel.: (855-23) 224 192, 023 224 195
 - Fax: (855-23) 224 196

- Email: sopong.meas@kuehne-nagel.com
- Homepage: www.kuehne-nagel.com

- Linehaul Expresss
 - Address: #01Eo, Jawaharlal Nehru (St. 215), Phnom Penh
 - Tel.: (855-23) 883 729
 - Fax.: (855-23) 884 720
 - Email: linexpnh@online.com.kh, indolinkpnh@online.com.kh
 - Homepage: www.linexsolutions.com

- MSE KPM Co., LTd.
 - Address: #335-357, Kampuchea Krom Blvd., Phnom Penh
 - Tel.: (855-23) 885 763, 023 885 764
 - Fax.: (855-23) 886 765
 - Email: msekpm@online.com.kh
 - Homepage: www.skl.com.kh/mse_kpm

- Mercury Freight Cambodia Ltd.
 - Address: Unit 9A, Century Plaza, Pochentong Road, Phnom Penh
 - Tel.: (855-23) 890 189
 - Fax.: (855-23) 890 289
 - Email: merpnh@camnet.com.kh, cambodia@mercuryfreight.com
 - Homepage: www.mercuryfreight.com

- Narita Transport
 - Address: #142, Norodom Blvd., Phnom Penh
 - Tel.: (855-23) 210 013, 023 210 014
 - Fax.: (855-23) 218 560
 - Email: Narita.pnh@narita.com.kh
 - Homepage: www.panalpina.com

- OVCL Cambodia Ltd.
 - Address: #333C, Preah Monivong Blvd., Phnom Penh
 - Tel.: (855-23) 723 644
 - Fax.: (855-23) 990 333, 023 220 590
 - Email: ovcl@online.com.kh
 - Homepage: www.ovcl.com

- Pacific Sun Trans (Cambodia) Co., Ltd.
 - Address: #738Bis, Kampuchea Krom (St. 128), Phnom Penh
 - Tel.: (855-23) 990 848
 - Fax.: (855-23) 990 849
 - Email: pstcambodia@everyday.com.kh
 - Homepage: www.pstrans.net

- S. Dam Express Co., Ltd.
 - Address: #394, Mao Tse Toung, Phnom Penh
 - Tel.: (855-23) 882 835
 - Fax.: (855-23) 882 835
 - Email: sdam@cttnet.com.kh

- SDV Cambodge Ltd.
 - Address: #22, St. 240, Phnom Penh
 - Tel.: (855-23) 427 955, Fax.: (855-23) 724 954
 - Email: pnh@sdv.com
 - Homepage: www.sdv cambodia.com

- Trans-Link Cambodia Ltd.
 - Address: #2Eo, Vimol Thoam Thong (St. 246), Phnom Penh
 - Tel.: (855-23) 212 111
 - Fax.: (855-23) 211 122
 - Email: translink@camnet.com.kh

- TWD Forwarders & Movers Co., Ltd.
 - Address: #44, Street 432, Phnom Penh
 - Tel.: (855-23) 993 820
 - Fax.: (855-23) 993 114
 - Email: twd@online.com.kh

- Trans Star Freight Pte Ltd.
 - Address: #622Eo, Mao Tse Tong Blvd., Phnom Penh
 - Tel.: (855-23) 883 637
 - Fax.: (855-23) 883 839
 - Email: sampiv@transstarfreight.com
 - Homepage: www.transstarfreight.com

9. 수출유망품목

2014년 대 캄보디아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은 섬유원단 및 직물제품이다. 위 제품들은 봉제업 성장에 힘입어 한국으로부터 봉제의 원자재인 직물과 의류부자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인건비 상승과 규제 강화를 피해 출구전략으로 공장이전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봉제기계 및 설비, 발전기 등 부대설비 도 함께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 유망 수출 상품으로는 중고 차량으로 최근 현지시장의 소득 수준 증가로 인하여 차량 구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 수입차종 역시 덤프 1.5t, 1t트럭과 구형 승합차량, 경차, SUV로 특정 차종에 대하여 선호가 뚜렷하며 2000년도 초반 연식에서 점점 연식도 올라가고 있어 저 부가 가치 차량에서 고부가 가치차량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산 중고 3g 스마트폰으로 최근 들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지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 대 캄보디아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지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가격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현지 진출에 앞서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10. 시장특성

가. 시장 규모

폴포트 정권(75-79) 당시에 중국의 문화 혁명을 모방하다 실패한 캄푸치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탓에 타임머신을 타고 30 여 년 전으로 되돌아 왔다고 하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캄보디아 경제는 1993년 유엔 임시통치 기구(UNTAC) 하에서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거의 모든 사회 간접 시설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어 있었다.

이후 UN, IBRD, ADB,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원조 하에 국가 기능을 서서히 회복하여 가고 있지만 아직도 홀로서기에는 경제력, 정치력, 사회제도 등 제반 분야가 미숙한 형편이다.

1993년 이후 확대된 국제 사회의 원조 및 선진 각국에서 제공하는 MFN, GSP, 섬유 봉제 분야 논쿼터 등 교역상의 특혜에 힘입어 캄보디아의 수입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고, 연간 약 90억 달러(2013년 기준)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ASEAN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캄보디아는 인구 5억의 ASEAN 회원국 총 수입액의 0.3%를 점유하고 있다.

□ 우회 수출 기지

미국 및 EU 수출을 겨냥한 의류 봉제 공장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미국 등 27개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수혜 받고 있다.

□ 중고 및 재고품 위주의 가격 시장

1인당 GDP가 931달러 정도에 불과한 최빈국 중 하나이며 품질보다 가격 지향적인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류, 직물,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 중장비 등의 품목에서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모조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면서,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은 중고품을 정품이라 여기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기도 함.

가격 민감도가 높은 캄보디아 시장에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은 대부분 중고품이다. 한국산 제품들은 현지 소비자에서 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여겨지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격차가 심해 현지 고소득자의 전시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인근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로의 중개 밀무역 시장

지리적, 제도적 우위를 이용, 주변국 밀무역이 성행하고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검문이 허술한 국경지역을 통해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수출입 통계상으로 확인 가능한 시장 크기보다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이 많다.

□ 대외 원조 의존형 소비 시장

매년 누적되는 재정 및 국제 수지 적자를 대외 원조로 보전하고 있으며,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생필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화교의 상권 장악

정 관계와 밀착한 화교에 경제력이 집중되어있는 반면 품목별 전문 수입상은 미약한 실정이다.

11.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봉제 공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규모를 갖춘 제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별 경제 단체는 캄보디아 섬유제조업체 협회가 전부라고 있을 정도로 경제 단체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섬유 관련 제품의 경우 캄보디아 섬유제조업체 협회를 통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캄보디아 섬유제조업체 협회(GMAC: The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 Address: #175, ST. 215, Phnom Penh
 - Tel.: (855-23) 301 180, 023 301 181
 - Fax.: (855-23) 311 180 023 311 181
 - Email: GMAC@online.com.kh
 - Homepage: www.gmac-cambodia.org

섬유 이외의 품목에 대한 바이어 발굴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디렉터리 및 옐로우 페이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보원이다.

-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 Address: #22, Kromounsar , Phnom Penh
 - Tel.: (855-23) 212 265, Fax.: (855-23) 212 270
 - Email: ppcc@online.com.kh/ sokna@online.com.kh
 - Homepage: www.ppcc.org.kh
- 옐로우 페이지
 - Address: #62, St. 125, Phnom Penh
 - Tel.: (855-23) 218 100
 - Fax.: (855-23) 211 511
 - Email: yp@interquess.com
 - Homepage: www.yellowpages.com.kh

이 외에 바이어 발굴이 가능한 기관 혹은 매체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프놈펜 무역관은 구매단 파견 및 시개단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입수한 바이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IT 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관계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및 단체는 캄보디아 섬유제조업체 협회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온라인을 통한 기업 신용 정보 및 업종별/품목별 기업 정보를 서비스해 주는 기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KOTRA 바이어 찾기 서비스(www.kotra.or.kr)

수출 희망품목에 대하여 해외 잠재 바이어를 발굴한다.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바이어 반응 등) 바이어 수는 1개 무역관 당 잠재 바이어 5개사이며 조사기간은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약 3주(현지 사정으로 기간이 연장 및 취소 가능) 정도 소요된다.

수수료(VAT포함)는 1회 150,000원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2배로 적용된다.

주의사항: 보고서 내용이 지역에 따라 샘플 보고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공된 바이어 정보는 거래 성약이나 바이어로부터의 회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보고서 작성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이며 영문에 대한 번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보고서상 바이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2개월내 A/S를 신청이 가능하다.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한국은 선진국, 한국 상품은 고가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캄보디아시장은 품질보다도 가격을 최우선시하는 관계로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진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및 재고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신제품에 대해서는 태국산 또는 베트남산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산 신제품 거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한국 상품을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재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나. 구매 시즌

대체적으로 11월-4월의 건기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5월-10월의 우기에는 제반 수요가 침체된다. 또 같은 상품이라도 시즌에 따라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중고 트럭의 경우 우기에는 소형, 건기에는 대형 트럭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구매 시즌은 2월~4월의 결혼 시즌으로 4월의 크메르 구정이 겹쳐 각종 수요가 최고도에 달하며 우기에 속하기는 하나 9월의 크메르 추석 및 건기가 시작되는 10월말 물축제 기간에도 각종 생필품 위주의 수요가 집중된다.

다. 문화적 금기 사항

아시아권의 나라로 캄보디아에는 특별한 문화적인 금기 사항은 없으나 전통적인 소승 불교 국가이므로 사찰을 방문할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캄보디아 인들은 불교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반바지 차림은 안되며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모자를 벗어야 하고 사찰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 특히 부처상 앞에 앉을 때는 발을 부처 앞에 향하게 앉으면 안되며 부처상이나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은 금기시된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기므로 어렵더라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차분한 어조로 잘못된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될 때는 캄보디아에 고급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식층의 대다수는 폴포트 집권 시절인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사살되거나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라.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캄보디아는 시장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대부분 소량수입이며 바이어들의 자금여력도 충분치 못하여 일반적으로 90-120일 연불L/C지불 조건과 송장 상 언더벨 류를 요구하고 있다.

재고 직물,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선적 시 30%를 현찰로 지불하고 상품 인수 후 잔금을 완불하는 방법도 통용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른 또는 고의에 의한 클레임 발생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

즉, 샘플과 다른 제품이 선적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게 되는데 가능한 바이어 입회 하 선적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클레임 제기 가능성을 사전 봉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캄보디아 수입상의 다수는 화교들인데 보통 실제 수입 가능 물량의 120~130%에 대 해 인콰이어리를 내고 수출업체의 반응을 보면서 다른 공급선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콰이어리 물량보다 적게 오퍼하여서 어려운 공급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 상사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주로 현지 관행을 많이 따르는 편인데, 향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 문을 받아 변호사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하다. 캄보디아의 비즈니스맨들은 국 제거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계약서 조항 모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을 통한 해결의 실마 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13. 주요전시회 개최일정

□ The 9th Cambodia Import-Export & One Province One Product Exhibition (OPOP)

- 주관: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 일시/장소: 12월 15~18, 2014/Koh Pich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 협찬: 캄보디아 산업자원에너지부, 관광부, 투자청
- 전시장 구성: 대표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관람장 구성

□ Cambodia International Machinery Industrial Fair

- 주관: Chan Chao International Co., Ltd
- 일시/장소: 8월 15~18, 2014/Diamond Is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 협찬: Ministry of Commerce of Cambodia, Cambodia Chamber of Commerce, Taiwan Association of Machinery Industry (TAMI), Taiwan Turnkey-Project Association (TTA), Taiwan Exhibition & Convention Association (TECA)
- 전시장 구성: 대표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관람장 구성

□ Cambodia Gems & Jewelry Fair

- 주관: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 일시/장소: 6월 12-15, 2014, Koh Pich Exhibition Center in the Royal Capital City of Phnom Penh
- 협찬: 미정
- 전시장 구성: 대표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관람장 구성

□ Cambuild'14

- 주관: Chan Chao International Co., Ltd
- 일시/장소: 9월 10-12, 2014, Diamond Island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 협찬: 미정
- 전시장 구성: 대표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관람장 구성

□ Cambodia International Textile & Garment Industry Exhibition

- 주관: Chan Chao International Co., Ltd
- 일시/장소: 8월 15-18, 2014, Diamond Island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 협찬: Ministry of Commerce of Cambodia,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Cambodia, Cambodia Chamber of Commerce, Taiwan Association of Machinery Industry (TAMI), Taiwan Exhibition & Convention Association (TECA)
- 전시장 구성: 대표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관람장 구성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 박카스

캄보디아의 음료 수요는 1990년대 말 개방경제 전환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현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생겨나며 전국에서 음료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현지 음료 시장은 코카콜라, 레드불과 같은 다국적기업들과 Sagiko, Yeo와 같은 주변국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캄보디아 에서 2011년 에너지음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에는 진출 2년만에 누적 수출액 150억원을 달성하였다.

2010년 박카스 제품이 소개 된 것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에 한국 무역상이 수입을 하였으나, 현지화에 실패하여 시장에서 철수 한 전례가 있다. 이 후 캄보디아 시장에서 성공의 원동력은 현지화에 있었다. 수출 성공은 유능한 현지유통업체 Camgold Co.Ltd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아제약은 현지 유통업체와 과감한 프로모션과 옥외간판을 통해 피로회복 기능을 부각시켰고 그 결과, 캄보디아 서민들에게는 피로회복제 이상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에너지음료의 강자인 레드불을 뛰어넘는 예상 외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능력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현지 사정에 맞는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수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 현대차

캄보디아 자동차시장은 중고차가 장기간 점유해왔으며 2000년대 초까지 신차 판매는 도요타 캄보디아가 유일했다. 캄보디아 시장은 가격민감도가 높아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차가 70%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캄코모터스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캄코모터스는 꼬꽁 SEZ에 조립공장을 세워 DKD(완성차 조립 수출) 방식을 적용하여 신차 가격을 줄이고, SEZ에 입주함에 따라 관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 또, A/S 서비스도 구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캄코모터스는 11년 상반기에 신차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13년 현재 캄보디아 자동차 시장 2위로 현재 도요타 자동차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 실패사례

□ 콤바인

2000년대 중반 캄보디아가 이머징 마켓으로 주목 받자 농업국가인 캄보디아에 국내 농기계업체들이 진출하였다. 그러나 현지에 콤바인 수출은 기대에 비해 여의치 않고 있다. 한국의 농기계는 가격과 기술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현지에서 수출이 실패한 원인으로 현지화에 실패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콤바인은 좁은 한국 농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나 현지의 넓고 습한 농경지에서 이를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술적인 문제로 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지에서는 구형버전의 일본 농기계를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 농기계 업체들은 현지에서 고전을 겪고 있다.

15. 수출 시 애로사항

수출 및 수입 시 통관비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20ft 컨테이너 기준 110 달러 상당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 시 태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하여 각종 행정 서류의 발급 비용이 과다하여(C/O, 독성 검사 CERTIFICATE) 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의 경우 통관 비용(관세 15~25%, 부가세 10%, 통관 수속비, 운송비 등)이 통관 물품가의 40%를 상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화물 통관 시 항구의 각종 부두 장비가 열악하고 희소성으로 인해 크레인 등의 사용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 자재 중 면세 대상 품목이 포함되었을 때 확인과 통관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창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우선 캄보디아는 내수 인구가 약 1,520만 명으로 매우 적고 그 중 85% 이상이 1인 GDP 450 달러 이하에 허덕이는 세계 최빈국이니만큼 캄보디아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은 진출하기에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태국과 베트남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으므로 캄보디아 내 내륙 지방에서 반입하는 것보 다 국경을 통한 물류 이동이 오히려 용이하므로 국경 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국경 통과 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채 간이 통관 되므로 현지 생산 공산품의 경우 어지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가격 싸움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다. 한편, 투자 고려 시 주요한 포인트로 꼽히는 사회 간접 자본 중 도로, 전기, 용수 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며 인건비 역시 크게 저렴한 편이 아니므로 사전에 엄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전기의 경우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전력 사정이 원만치 않아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 생산에 임하고 있으며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해야 하므로 역시 사전 투자 대상 지역의 지하수 사정을 점검해야 한다. 투자를 승인한 후 잦은 세제 변경과 신규 세제 시행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기도 하며 관련 정부 기관과 부처의 부정이 만연하여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관 시 세관, 경제 경찰, 검사 기관 등의 중복적인 개입과 이들의 부당한 뇌물 관행으로 역시 물류 비용 증가가 현지 투자 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가 공격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있고 또한 기존의 정책들도 변화하고 있다. 해외송금에 대한 제재가 없고 현지 사업가들과의 협력관계 역시 증대되고 있어, 향후 다대한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은 인구에 비해 남한의 약 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으므로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이던 천연고무, 타피오카, 쌀, 콩, 고구마, 야자유, 캐슈넛(cashew nut) 재배 등의 농업 생산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 진출한다면 향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투자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되지만 현재 최저 임금을 놓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투자 상황에 있어서 악재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가. 개황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에게 금융상의 특별 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 우대하며 외환 송금에 대하여 제약이 전혀 없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세제 등 우대 제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9% 부과
- 프로젝트 성격, 정부 우선 사업 분야 투자 시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
- 다음 용도에 쓰이는 건설 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산업
 - 특별진흥구역(SPZ)내의 공장 보유 기업
 - 관광 산업, 고용 창출 산업, 임, 가공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 기업 이윤 재투자 시 재 투자분에 한해 법인세 면제
- 배당금, 이익금 국내외 지급 불문 비과세
- 외국 국적 근로자 고용 가능
- 완성품에 한해 수출 세 100% 면제

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CDC 즉,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치하여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투자 분야로 간주될 수도 있다.

- 무역업, 운송 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 음식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 클럽 등 유흥업종
-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컴 관련 산업
-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제정하고 공포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제반 재무적인 의무 사항 완료 후 아래 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 수입 대금 지급
- 국제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 로열티 및 관리자 경비의 지급
- 이익의 송금
- 일정 조건에 부합한 투자 자본의 송금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에 토지 관련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 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투자 기업이 기업 활동을 종료하거나 철수할 때는 투자개발위원회에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내방을 하여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재무성에 증명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 해산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 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다.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으로 면세로 수입된 기계, 기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 가능하다.

다.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경제구역을 프놈펜, 시하누크빌, 꼬콩, 포이펫, 파일린 등지에 설정하여 수출중심산업과 자유무역구역을 장려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시하누크빌 지역에는 50헥타르 규모의 특별경제구역이 이미 마련되었고, 프놈펜인근지역에도 특별경제구역이 승인되어있다.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CDC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하위령 제147호에 따라 CDC내에 특별경제구역을 담당할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위원회(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 Board)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특별경제구역을 창설 및 관리하고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경제구역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이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캄보디아 내 특별경제구역의 개발, 관리,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활동의 조율 및 투자의 촉진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이하 “CDC”)의 일괄승인절차(One-Stop Service mechanism)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적으로 적합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하며 설립주체와 관련하여,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사기업(private enterprise), 혹은 국가와 사기업간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사업부지의 경우,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헥타 이상의 경계가 명확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출가공무역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및 개별사업자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를 울타리를 쳐서 구분하여야 한다.

□ 인센티브 사항

구역개발자의 경우 개정 투자법 제 14.1 조에 따라 최장 9년까지 소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역 내 기반시설건설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와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통관은 물론 수입관세 및 기타 다른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역내개별사업자의 경우 개정 투자법 제 14.9 조와 다른 관련 규정에 정한대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0%의 부가가치세율로 세금혜택을 받은 역내개별사업자는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세금 감면액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생산 투입물로 생산한 산출품(Production Outputs)이 재수출되는 경우 상기한 부가가치세 세금감면은 계속 유효하지만, 산출품이 캄보디아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량만큼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혜택은 특별경제구역 내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CDC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또한 토지를 담보로 하는 파이낸싱에서는 불리한 점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동향

캄보디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2008년도 최고금액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금액의 경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승인액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국가별 투자액으로는 한국이 약 8,180만 달러(12년 비 -69.9%)로 크게 감소하며 6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이 약 4억4,850만 달러로 1위(12년 비 +70.1%), 베트남이 2억 4,150만 달러로 2위(12년 비 +180.8%), 홍콩이 1억 980만 달러로 3위, 영국이 8,890만 달러로 4위(12년 비 +261.3%), 8,520만 달러를 투자한 대만(12년 비 -10.9%)이 5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주 투자 산업군은 봉제업, 농업이었다. 기존 對캄 한국투자를 주도했던 건설, SOC 인프라 구축, 임대업 분야의 프로젝트 투자가 2010년을 기점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주요 투자 산업군인 봉제업의 경우, 2012년 초까지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졌으나 현재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금액 통계

(단위: US\$ 백만)

2010년		2011년		2012		2013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한국	1,026.6	영국	2,221.8	중국	263.6	중국	448.5
중국	694.0	중국	1,192.7	한국	272.3	베트남	241.5
말레이시아	171.8	베트남	630.9	일본	210.2	홍콩	109.8
베트남	114.7	홍콩	331.2	태국	123.0	영국	88.9
대만	91.1	말레이시아	235.3	홍콩	114.4	대만	85.2
호주	49.7	미국	144.4	대만	95.7	한국	81.8
싱가포르	37.2	한국	144.2	베트남	86.0	싱가포르	54.5
미국	36.0	대만	82.1	싱가포르	82.7	태국	31.8
덴마크	29.5	북한	17.1	영국	24.6	일본	24.6
홍콩	27.5	싱가포르	13.7	미국	5.3	사모아	18.5
기타	418.4	기타	3,189.7	기타	997.2	기타	3310.5
총계	2,696.5	총계	7,010.4	총계	2,275.0	총계	4495.6

주: CDC 투자승인기준

2013년 캄보디아 총 투자는 봉제업의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 가운데 관광업의 업황이 크게 회복되었다. 봉제업의 경우 2012년 대비 약 109% 증가하였으며 경쟁시장(태국, 베트남)의 인건비 증가로 투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중국역시 캄보디아에 공적원조 및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봉제업의 경우 중국계 기업의 신규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분야별 직접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건)

분야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	598.1 (22)	495.7 (20)	724.9 (24)	526.5 (18)	1080.2 (19)
제조업	819.0 (47)	770.5 (56)	578.5 (106)	769.1 (113)	1,346.0 (111)
인프라, 서비스	331.3 (3)	982.1 (2)	567.2 (4)	-	4.7 (1)
관광업	3,884.4 (11)	131.8 (3)	588.8 (7)	896.5 (6)	1875.0 (2)
계	5,859 (99)	2,697 (102)	7,010 (152)	2,274 (155)	4,495 (162)

주 1: CDC 투자 승인 기준

주 2: ()은 건수, 2012년은 10월기준

자료: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 (CDC)

관광 및 농업 분야를 제외한 봉제 등 제조업 분야는 프놈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여건이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 분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캄보디아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 분야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앙코르와트가 소재한 씨엠립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 분야는 프놈펜 및 씨엠립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 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1997년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 승인 기준 1994~2013년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실적(누계)은 약 4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CDC 투자승인 기준 총 10억 982만 달러 규모를 기록해 동년에는 우리나라가 제1위 투자국이였다. 1994~ 2013년간 투자실적(누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제2위 투자국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액은 약 8,18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대비 약 70% 감소하였다. 2013년 타 국가의 캄보디아 투자가 총 45억 달러로 2012년 대비 약 97%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캄보디아투자 총액 중 약 1.8%의 낮은 비율을 기록하여 2010년 38.0%와 큰 대비를 보였다.

한편, 비록 CDC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요식업, 관광업(여행사 포함), 도·소매업, 미용업 등 현지인과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진출한 영세 규모의 투자 진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투자 진출 전수 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 추이

(단위: US\$ 백만, %)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284.0 (204)	125.6 (176)	1,178.7 (244)	139.9 (236)	132.6 (194)	4,346 (2,338)

주: ()은 건수, 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업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6년부터 다수의 봉제 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대캄보디아 투자 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여타 제조업, 건설, 농가공, 조립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 분야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 부가가치 산업인 전력, 통신 및 인터넷과 같은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캄보디아에 일고 있는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건설 분야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 이외에 자원 활용형 농업 분야의 투자 비중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합작 투자보다 단독 투자가 선호되는 특징을 보였으나 최근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 캄보디아의 업종별 투자

(단위: US\$ 백만)

연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2008	63.5	19.5	25.6	177.8	50.9	817.8	107.6
2009	5.8	2.1	42.3	116.5	10.3	72	41
2010	5.9	1.0	22.3	20	26.8	11.6	37.4
2011	14.1	1,039	57.5	10.5	17.5	23.7	12.7
2012	9.7	0	62.2	9.8	11.6	13.0	30.0
2013	5.2	-	58.9	19.6	3.1	3.1	42.7
누계(08~13년)	104.2	1061.6	268.8	354.2	120.2	941.2	271.4

주: 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기업의 진출 분야

- 제조업: 의류, PVC 파이프, 통신케이블, PE 백
- 농업: 타피오카, 팜 오일
- 무역: 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 건설: 아파트, 배수로 공사, 도로, 상하수도
- 서비스: 은행, 미용센터, 통관, 자동차 정비, 컨설팅
- 기타: 호텔, 식당, 여행사, 골프 연습장, 가라오케, 극장

5.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만족도

2014년 3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고된 캄보디아로 진출한 우리 기업은 누적기준 총 721여개사로 봉제업을 선두로 한 제조업부분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건설업, 관광객 수요에 발맞춘 호텔, 숙박, 음식업 등이 따르고 있다.

한국기업 진출 현황

업종	기업수	신고금액	대표기업
부동산 및 임대업	146	1,487	월드시티, 연우개발
건설업	81	629	포스코건설, 한일건설, 현대 엠코, 부영
제조업	156	404	경안전선, MH바이오, 인경, SCF, OGID, 약진 한솔섬유
도소매업	121	151	락앤락
금융 및 보험	13	133	신한은행, 국민은행
호텔숙박음식업	37	87	임페리얼가든
광업	12	1,113	GS칼텍스, 캄보시아나
방송통신정보서비스	18	31	경안(카민텔), 다이알애니
합계 (기타 포함)	721	4,346	

자료: 수출입은행 (2014.03)

주: 기준 100만달러, 신고금액 기준

이러한 다양한 진출분야에 따라 만족도 또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분야가 진출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2005년 이전 초창기에 진입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투자자의 경우 캄보디아 진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진출기업은 금융위기 이전에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지 못해 시세 급락, 거래부진에 따른 자금이 묶여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도하지 않게 부동산 장기 보유의 길을 걷게 된 경우 캄보디아 투자를 후회하고 있는 투자자도 있다.

제조업 분야 중 봉제업의 경우 현재 호황기를 거쳐서, 현재 원숙기를 맞고 있다. 한때,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현재 많은 바이어들이 캄보디아로 몰리고 있어 수주량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거리가 늘어 났었지만 현재 캄보디아 임금수준 상승에 따라, 캄보디아로 진입하려는 봉제 관련 업체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빈국 대우에 따른 유럽 무관세 수출 등 선진국 수출 관세 혜택도 톡톡히 보고 있어 봉제업 분야의 탈중국화, 탈베트남화 기업의 문의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신발, 등 봉제업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상품들에 대한 생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걸친 봉제업 종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요구 시위와 파업으로 인하여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등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그 외 제조업 분야는 캄보디아의 풍부한 농산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가공수출 및 내수시장 공략, 그리고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건설 기자재 제조 기업 등이 진출해 있다. 진출 이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곳도 많으나, 초기 투자금 기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곳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금융업의 경우 소규모 투자(신한, 국민은행의 경우 점포 3개, 1개로 운영 중)를 통한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인 예금 대출 비중을 크게 높여 현지화에 성공하여 영업 이익률은 양호한 편이다. 한국계 금융업의 투자 규모는 캄보디아 시중은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외 호텔숙박음식업으로 투자진출한 경우 한국 관광객 혹은 주재원의 수요에 민감한 편으로 한국인이 주 고객층인 곳의 경우 큰 이익을 보지 못했지만, 현지인 및 외국인 고객을 다수 확보한 몇몇 호텔 및 식당은 진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6. 투자 진출성공, 실패 사례

가. 진출 성공 사례/ KOREX Plastic의 내수 시장 성공 사례

KOREX Plastic은 국내 대한 통운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플라스틱 배관재 회사로 1997년 4월29일에 수도 프놈펜에 설립되었다. 설립 직후인 1997년 7월에 발생한 정치 쿠데타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1999년부터는 조금씩 판매도 늘어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 높아져 향후 캄보디아 농촌 개발 붐을 타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현지인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파이프 공장이 1개 있으나 KOREX사는 설립 당초부터 생산성이 탁월한 사출기와 장비를 국내에서 들여와 2개 라인만 갖고서도 경쟁사인 현재 업체의 생산성을 3~4배나 앞서가 시장 선도는 시간 문제였다.

한편 주변국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KOREX가 생산하지 않는 건설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캄보디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경쟁 상태에 직면해 있지는 않고 있다.

KOREX사는 23명의 현지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항시 대화와 가족적인 분위기로 어려움을 풀어나가며 고비를 함께 넘어가는 것이 내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급여 인상 데모에 대해 지사장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직면하고 있는 신설 부가세와 관세 부담을 전부 공개하여 운명 공동체 인식을 함께하는 등 노사 관계의 개선, 추후 장기 근속자에 대한 회사측의 최대한 배려, 야간 작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하여 현지 종업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판매 가격에 있어서는 경쟁사보다 4~5% 낮게 책정함으로써 Low End user인 캄보디아 농민 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회사의 배려가 주효하여 현지 TV에 수 차례 모범 사례로 보도되는 등 현지에서 견실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 시사점

개발도상국 투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지 종업원에 대한 홀대보다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진정한 복리 증진책으로 회사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여 노사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KOREX사가 직원 1통장 갖기 운동을 벌여 전 종업원이 회사 경리 부서에 통장을 맡겨놓고 다달이 저축을 계속하는 등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기업 문화를 뿌리내려 가고 있는 점은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앞으로 진출할 기업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나. 진출 성공 사례/ 인재 가먼트의 현지 투자 성공 사례

인재 가먼트는 수출용 의류 생산업체로 2005년 캄보디아에 진출하였다.

2007년 기준 약 1,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셔츠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인재 가먼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을 때 과감히 캄보디아에 투자를 결정하고 착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최초 단계에 한국인에 의한 현지 감독 및 간부를 양성한 후로는 이들을 통한 종업원을 교육시켜 현재는 캄보디아의 어느 봉제 공장보다도 2~3배 높은 생산성을 보일 만큼 탁월한 인적자원을 양성해 놓았다. 섬유류 교역 자유화에 따른 세계 섬유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드는 추세에 부응하여 항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종업원의 이탈을 막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항시 복리 후생에 최대 역점을 두고 기숙사 해결, 식사 무료 제공, 영어 교육, 가라오케 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 여타 외국 동종 업체가 생각지도 않는 분야에까지 솔선수범하여 높은 생산성을 도출해 사세 확장과 발전의 궤도에 올라 있다.

□ 시사점

현지인에 의한 현지 종업원의 관리와 감독, 정성 어린 종업원 복리 증진책이 현지인의 자발적인 애사심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었다. 위기가 기회라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해외 수입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더 많은 수주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적기 공급이 지속적으로 상승 관계를 그리며 발전한 우수 사례로 향후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본받을 점이 많다고 하겠다.

다. 진출 실패 사례/ M-Telecom 실패 사례

1996년 8월 열악한 캄보디아 통신 시장에 뛰어 든 우리 나라 K통신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M 텔레콤은 TLMRS(주파수 공용 통신 장비 시스템)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M 텔레콤이 자본을 조달하고 기술 파트, 특히 주장비를 국내 L 전자가 맡아서 진출한 캄보디아 통신 시장 참여 사업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9년 1월 150여 만 달러에 이르는 장비만을 캄보디아 체신청에 기증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

당시의 캄보디아 통신 시장은 외국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국내·국제전화 시스템이 열악하여 전국적인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국제 통화도 제한적이었으며 통화 품질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에 M 텔레콤은 주파수 공용 통신 사업에 착안하여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초 수요 예측과는 크게 달리 시장의 반응이 너무 낮았고 급작스럽게 확대, 성장되어 가는 휴대폰 시장에 기대했던 일부 잔존 시장마저도 잠식당하여 부득이 동 프로젝트를 중도에서 그만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후 프로젝트 불발의 원인 분석에 몇 가지 점이 지적되었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당시 장비를 지원했던 L 전자의 주장비가 기술적으로 최신의 첨단 장비가 아니어서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는 점과, 당시 격변하고 있던 세계 통신 시장에 대한 예측 부족과 캄보디아 통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수요 예측이 빚나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시사점

개발 도상국의 후진 시장에도 품목에 따라 가중치가 달리 두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이 프로젝트에서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생필품이나 일반 소비용품의 경우 후진 시장이 대개 가격 시장으로서의 수요 변화와 구매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통신, 컴퓨터 등의 첨단 기기 시장에서도 이러한 가격 중시 성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고 패션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이동 통신 분야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우리의 앞선 이동통신 상품을 갖고 진출했다면 실패는 고사하고 이미 상당히 안정된 시장 확보도 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황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2013년 기준 1인당 GDP 931달러 정도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 창출 등 사회 경제 전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온 역량을 쏟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1958년 뉴욕 협약에 비준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 법률 등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외국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입법하고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최초의 외국인 투자법이 '89년 7월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44개의 개략적인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 초기에 채택되었던 규정과 비슷하다. 이어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1994년 8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캄보디아 투자법은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근거로 투자 승인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9% 부과 및 8년 간 과세 면제, 원자재 및 생산 설비 수입 관세 면제, 이윤 송금 자유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하면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은 CDC에 위임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 과정 단축을 기하고 있다.

8. 투자방식

투자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Green Field Operation과 기업인수(M&A)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Green Field Operation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직접 모든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하고 기업인수 방식의 경우 기존기업의 시설, 영업망,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reen Field Operation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승인 과정에서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기존기업의 인수(M&A)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금 편딩 방식에 있어서 직접투자를 할 것인가 간접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해외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서 향후 배당금을 통하여 과실송금이 가능하고 간접투자는 해외법인에 대출을 하는 형식으로서 이자소득의 상환을 통하여 과실송금이 가능하다. 각각 지배구조 및 관련 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의 투자구도를 설계하는 것이 향후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일부 정부 토지를 양허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주식양수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구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경영권, 과실송금, 관리 및 세제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투자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신뢰할 수 방법은 KOTRA, 대사관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현지에 진출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참조하면 많은 공개된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9. 투자진출형태

가. 투자 형태의 결정

100% 단독 투자, 현지인과의 합작(주로 51%: 49%) 여부는 투자 진출 업체의 내부 방침에 따르겠지만 캄보디아 진출 시 단독과 합작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가 있다.

첫째, 현지 투자 시 토지를 구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현행 캄보디아의 헌법 및 관련법상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나 새로이 설립될 합작 법인의 지분 중 현지인이 51%를 차지하게 되면 법인 명의로 토지 구입 소유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현지인에게 명의를 빌 리고 서류상만 지분을 인정하는 형태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한다.

둘째, 투자 후 완성된 생산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에 투자한 후 생산제품을 제3국 등지에 수출에 전념하게 될 경우 현지인 파트너의 기여도는 거의 기대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현지 파트너들은 노동력 동원, 작업감독, 토지 제공 이상의 능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및 낙후된 경제 체제 하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이나 경영 마인드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한국의 발전상을 듣고 심리적으로 기대보려는 저의가 더 많은 실정이다. 환원해서 언급하면 생산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인과의 합작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향후 소유권 분쟁의 불화의 원인으로 발전될 소지를 안게 된다.

셋째, 현지 마케팅 능력 혹은 토지 제공 여부에 대한 기대 심리는 전향에 언급된 것과 같이 현지 파트너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국내에서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많고 대부분 단독 투자를 하더라도 1~2년 이내에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캄보디아 시장이 인구 1,500만 내외의 협소한 시장이며 대다수 국민이 1인당 GDP 931달러의 구매력이 극히 취약한 소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토지의 경우 캄보디아는 토지 공급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풍부하며 최장 70년까지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 가능하므로 우리 나라와 같이 꼭 소유의 개념에 집착할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지가 상승이 지역에 따라 있는 편이지만 정작 지가 상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금성이 여타 국가보다는 더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합작 투자 가능성

대다수의 외국 투자 기업은 현지 파트너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캄보디아 기업 특히 국영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100% 단독 투자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적절한 파트너 물색은 규정이나 투자법 등 명문화된 법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투자 기업가의 경험과 통찰력, 직감이 요구된다.

현지 파트너 물색 과정의 첫 단계는 누가 또는 어느 기관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일로 캄보디아와 같이 경제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가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점의 파악은 파트너 물색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현지 금융 조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현지인의 대다수는 현금 투자보다 토지 등 현물 투자를 희망하고 있지만 적절한 지가 산정 등이 난제이다. 현지 파트너 대상자 중 권력층에 가깝다거나 친인척 관계를 내세우거나 비즈니스 외적 능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비즈니스 경험이 일천하며 말이 앞서기 쉬운 상대로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사전 시장 조사 및 투자 형태 결정

사전조사를 통해서 투자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이 필요하다. 또, 사전에 투자 절차도를 작성하여 소요 시간과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캄보디아 투자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현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행업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사전조사에서는 투자자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투자 진행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투자절차는 대체로

- ① 사전조사
- ② 투자방식 및 투자구조 확정
- ③ 직간접투자 관련 계약체결
- ④ 법인설립
- ⑤ 사업부지 확보(임대, 양허, 구매)
- ⑥ 관련인허가신청
- ⑦ 시설, 자재 및 고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은행업이나 건설업 및 특정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인허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농업투자의 경우에도 사업부지확보에 있어서 정부 부지를 양허 받은 토지의 경우 양수도에 제한이 있고 사용목적에도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 토지등기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정확한 소유주 및 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하는데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나. 지사 개설

- 자본금: 불요
- 신청처: Ministry of Commerce 산하 Legal Affairs Department
- 주소: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Cambodia
- 전화: (855-11) 812992, (855-16) 836228
- 팩스: (855-23) 213288
- 담당자: Mr. Uok Samnang (Deputy Director)

- 제출 서류
 - 등록 신청서
 - 본사 설립 등기 영문/국문 공증본
 - 본사 영업 등록증 영문/국문 공증본
 - 본사 정관 영문/국문 공증본
 - 캄보디아 책임자 피 위임장
 - 여권 사본 및 사진 3매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 주소지 동장의 확인서
- 소요 비용: US\$450
 - 관련 등록세: US\$300
 - 인지세 및 공고비: US\$100
 - 행정 수속 대행료: US\$50
-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7~15일
- 지사의 활동 범위: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에 국한되며 영업 활동은 불가(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여 가능)

다. CDC 승인 신청

- 투자 금액 요건: 50만 달러 이상
- 신청처: CDC 산하 Information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 주소: Government Palace, Sisowath Quay, Wat Phnom, Phnom Penh, Cambodia
 - 전화: (855-23) 981156, (855-12) 827672
 - 팩스: (855-23) 428426
 - E-메일: CDC.CIB@bigpond.com.kh
- 담당자: Mr. Chea Vuthy (Director) 제출 서
 - 투자신청서(Form CIB 01A)
 - 투자의향서
 - 정관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재무 및 기술 측면)

- 소요 비용
 - 신청 시: US\$ 100(1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US\$ 200)
 - 승인 시: US\$ 500(1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US\$ 1,000)
-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단, 기술적 검토 사항이 많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예외)

라. 입지 선정

현재 캄보디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 공단이 전무하다. 프놈펜을 중심으로 소재한 산업 공단은 민간이 개발하여 외국 기업에 임대해 주는 임대 공장 수준이며 엄밀한 의미 에서 공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 수출 가공 지대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실제 공단 개발 및 운영은 민간이 맡아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공단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 공장 설립

1) 법인 등록

- 최소 자본금: 2천만 Riel (약 US\$5,115)
- 신청처: Ministry of Commerce 산하 Legal Affairs Department
- 주소: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Cambodia
- 전화: (855-11) 812992, (855-16) 836228, 팩스: (855-23) 213288
- 담당자: Mr. Uok Samnang (Deputy Director)
 - 제출 서류
 - 등록 신청서
 - 정관
 - 신원 보증서
 -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사무실 주소지 지역 동장의 확인서
 - 소요 비용: US\$ 750
 - 관련 등록세: US\$ 300
 - 정관 작성비: US\$ 300
 - 인지세 및 공고비: US\$ 100
 - 행정수속 대행료: US\$ 50

-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7~15일
- 기타 요건
 - 여행사 설립 시에는 6천불을 은행에 예치해야 관광부 라이선스 획득이 가능함.
 - 건설회사 설립 시에는 캄보디아 건설 전문 자격자가 있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공업성에 공장 등록을 필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재무경제성에 부가세 등록 등 세제 신고를 해야 함.

2) 영업세 등록

- 신청 서류
 - 법인 등록증
 - 대표자 사진 2매
 - 회사 정관
- 등록 비용
 - 영업세 등록비: 24만~114만Riel
 - 법인 등록세: 10만 Riel
-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등록 기관: Real Regime Tax Office
 - 소속: Tax Dept.,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 주소: 35, Street 222, Sangkat Boeung Raing, Phnom Penh, Cambodia
 - 전화: (855-12) 883889
 - E-메일: taxdept@forum.org.kh
 - 담당자: Mr. Pan Bun Thouen (Office Head)

3) 부가가치세 등록

- 신청 서류
 - 신청서
 - 회사 등록증
 - 영업세 등록필증
 - 회사 정관
- 등록 비용: 없음.
-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등록 기관: Real Regime Tax Office
 - 소속: Tax Dept.,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 주소: 35, Street 222, Sangkat Boeung Raing, Phnom Penh, Cambodia
 - 전화: (855-12) 883889
 - E-메일: taxdept@forum.org.kh
 - 담당자: Mr. Pan Bun Thouen (Office Head)

4) 공장 부지 확보

공장 부지의 구입은 현지인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지 출자 비율 51% 이상의 법인 명의). 그러나 70년 장기 임차가 가능하므로 부지 확보에 문제는 없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합작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5) 공장 건물 확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장 건물 역시 구입이 불가능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합작에 의한 구입은 가능하며 임대인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인 경우 대부분 건물주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6개월 치 임대료의 선불을 요구하며 월 임대료는 별도로 납부한다.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거의 반환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수개월 전부터 월 임차료를 고의로 체납하여 상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6) 공장 건물 신축

1999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000㎡ 이상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Ministry of Territorial Management, Urbanization & Construction 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일 경우 방지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모든 건축 계획은 토지 소유주와 캄보디아 건축사 또는 캄보디아 건축사와 합작한 외국 건축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 후 1년 내 착공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이 허용되며, 건물 완공 후 사용 전에 반드시 완공 검사를 필해야 한다.

7) 공장 등록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공업성에 등록해야 하는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회사 등록증
- 회사 정관
-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 CDC의 프로젝트 승인서
- 건물 및 기계 배치도
- 관련 지역 관청 입지 승인서
- 프로젝트 개황 설명도
- 상표(있을 경우)
-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 토지 소유증 혹은 토지/건물 임대차 계약서 공증본

□ 등록처: Ministry of Industry, Mines & Energy 산하 2개 부서

- Department of Industrial Affairs
 - 주소: 45,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Cambodia
 - 전화: (855-23) 210810, (855-12) 866573
 - 팩스: (855-23) 428263, 216536
 - E-메일: 012866573@mobitel.com.kh
 - 담당자: Mr. Keo Sovatha (Director)
- Department of Industrial Technique
 - 주소: 45,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Cambodia
 - 전화: (855-23) 724177, (855-12) 929522
 - 팩스: (855-23) 982303
 - E-메일: industry@camnet.com.kh
 - 담당자: Mr. Ping Sivlay (Deputy Director)
 - 소요 경비: 공장 규모에 따라 US\$1,200-1,500
 - 소요 기간: 7~10일

8)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캄보디아는 1993년 헌법 제44조 및 1994년 투자법 제16조에 의거,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 출자 비율 51% 이상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 명의로 하거나 현지인 명의를 차용할 수밖에 없다.

투자법에 의하면 장기 임차한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소유권을 허용 하고 있으나 토지법 등 기타 법률에서는 동 소유권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에서는 토지 거래의 관행이 법률이나 각종 서류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래 관련 서류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혼동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공장 부지 및 건물 임차/구매 비용

임차 비용

지역별	부지	건물
Phnom Penh & Outskirt	㎡당 연간 US\$1.20~1.50	㎡당 월 US\$1.50~1.80
Kandal Province	㎡당 연간 US\$0.30~0.50	㎡당 월 US\$1.00~1.20
Kompong Speu Province	㎡당 연간 US\$0.03~0.06	㎡당 월 US\$0.80~1.00
Sihanouk Ville	㎡당 연간 US\$0.80~1.00	㎡당 월 US\$1.20~1.50

주 1: 상기 가격은 부지 또는 건물의 위치 및 계절에 따라 상이함.

주 2: VAT 등 제세 제외 가격임.

구입 비용

지역별	부지	건물
Phnom Penh & Outskirt	US\$7~30/㎡ 또는 일괄가격	US\$40~60/㎡ 또는 일괄가격
Kandal Province	US\$1~3/㎡ 또는 일괄가격	US\$35~40/㎡ 또는 일괄가격
Kompong Speu Province	US\$0.30~0.50/㎡ 또는 일괄가격	US\$10~15/㎡ 또는 일괄가격
Sihanouk Ville	US\$3~5/㎡ 또는 일괄가격	US\$35~40/㎡ 또는 일괄가격

주 1: 상기 가격은 부지 또는 건물의 위치 및 계절에 따라 상이함.

주 2: VAT 등 제세 제외 가격임.

바. 투자 관련 정부 기관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가 One-Stop 서비스 체제로 지원해 주고 있다. CDC는 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훈센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CDC에서 요청하는 제반 외국인 투자 허가 관련 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되면 CDC는 관련 정부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게 되며, 해당 부처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투자를 허가 하게 된다. 투자 허가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Address: Government palace, Sisowath Quay, Wat Phnom, Phnom Penh
- Tel.: (855-23) 981 154
- Fax.: (855-23) 428 426
- Email: cdc.cib@online.com.kh
- Homepage: www.cambodianinvestment.gov.kh

사. 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이를 서비스해 주는 법률회사 등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허가를 받아내는 편이 바람직하다.

1) 법률 회사 리스트

- Cambodia International Law Firm(CILF)
 - Address: #254, Monivong Blvd., Interlligent Office Center, 5th Floor room F5-R02, Phnom Penh
 - Tel.: (855-23) 221 843 Ext. 1501, 023 219 066, 023 212 966
 - Fax.: (855-23) 219 077
 - Email: cilf@online.com.kh
- DC Law Firm
 - Address: Preah Monivong, The Interlligent office Center Building, Phnom Penh
 - Tel.: (855-23) 357 778
 - Fax.: (855-23) 357 778
 - Email: dc_law_firm@lawyer.com, cdra04@yahoo.com
- Borima Dy International Law Firm & Associates
 - Address: #38, Samdech Pan (St. 214), Phnom Penh
 - Tel : (855-23) 991 688
 - Fax.: (855-23) 991 688
 - Email: bilfa@camintel.com, bilfa@online.com.kh
- BNG - Advocates & Solicitors
 - Address: #84, Monireth (St. 217), Phnom Penh
 - Tel : (855-23) 217 510, 023 223 128
 - Fax.: (855-23) 212 840
 - Email: info@bngkh.net
 - Homepage: www.bngkh.net
- Chaktomuk Law Group
 - Address: #31AEo, St. 294, Phnom Penh
 - Tel : (855-23) 996 358
 - Fax: (855-23) 996 358
 - Email: clg88@camintel.com

- Cabinet D' Avocat Law Office
 - Address: #79A, St. 186, Phnom Penh
 - Tel.: (855-23) 367 670
 - Fax: (855-23) 367 670
 - Email: spdc@opr.org.com
- Cambodia Law Firm
 - Address: #159, St. 113, Phnom Penh
 - Tel.: (855-23) 212 958
 - Fax.: (855-23) 212 958
 - Email: N/A
- International Law Firm for Business & Legal Affairs
 - Address: #146, St. 118, Phnom Penh
 - Tel : 023 224 830
 - Fax.: N/A
 - Email: sovansa@online.com.kh
- Law Office Mao Sophearith
 - Address: #147Eo, Kampuchea Krom, Phnom Penh
 - Tel.: (855-23) 994 391, Fax.: (855-23) 994 391
 - Email: admin@sophaltang.com
- Law Office of Benson & Association
 - Address: #183, Norodom Blvd., Phnom Penh
 - Tel.: (855-23) 215 516, Fax.: (855-23) 215 516
 - Email: samay-law@camnet.com.kh
- Lawyer office Bin Heng
 - Address: #73, St. 608, Phnom Penh
 - Tel.: (855-23) 883 915
 - Fax.: (855-23) 883 915
 - Email: pbinheng@hotmail.com
- Lawyer Office Chun Veasna
 - Address: #6Eo, St. 107, Phnom Penh
 - Tel.: (855-12) 883 915
 - Fax.: (855-23) 992 001
 - Email: chunveasna@yahoo.com

- Lean Chinda Law Firm
- Address: #35D, St. 488, Phnom Penh
- Tel.: (855-23) 994 765
- Fax.: (855-23) 994 765
- Email: leanchinda@camintel.com

2) 회계/세법 서비스 기관 리스트

- Price Water House Coopers
- Address: #124, Norodom Blvd., Phnom Penh
- Tel.: (855-23) 218 086
- Fax.: (855-23) 211 594
- Email: jean.loi@kh.pwc.com, senaka.fernando@kh.pwc.com
- Homepage: www.pwcglobal.com

- Fides Services (Cambodia) Ltd.
- Address: #60C, Mao Tse Toung Blvd., Phnom Penh
- Tel.: (855-23) 217 307
- Fax.: (855-23) 217 308
- Email: fides@fides.com.kh
- Homepage: www.fides.com

- Vanda Institute of Accounting
- Address: #216-218, Mao Tse Toung (St. 245), Phnom Penh
- Tel.: 023 213 563
- Fax.: 023 213 562
- Email: vanda@camnet.com.kh
- Homepage: www.vanda.edu.kh

- Angkor Certified Accountant
- Address: #110, Confederation de la Russies, Phnom Penh
- Tel.: (855-23) 883 174
- Fax.: (855-23) 885 234
- Email: youkheang@camnet.com.kh

- Conical Hat Ltd.
 - Address: #209, St. 63, Phnom Penh
 - Tel.: (855-23) 362 957
 - Fax.: (855-23) 215 190
 - Email: info@conicalhat.com
 - Homepage: www.conicalhat.com
- Grant Thornton Law & Associates
 - Address: #313, Sisowath, Suite 14, hotel Cambodiana
 - Tel.: (855-23) 218 266
 - Fax.: (855-23) 218 128
 - Email: gtla@gt.com.kh, www.gt.com.kh
- Kampuch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Auditors(KICPAA)
 - Address: #26, St. 370, Beong Keng Kang I, Phnom penh
 - Tel.: 023 990 664
 - Fax.: 023 991 037
 - Email: kicpaa@kicpaa.org.kh
 - Homepage: www.kicpaa.org
- KPMG Cambodia Ltd.
 - Address: #2, Charey Ponn (St. 208), Phnom Penh
 - Tel.: (855-23) 216 899
 - Fax.: (855-23) 217 279, 023 216 405
 - Email: kpmg@kpmg.com.kh
 - Homepage: www.kpmg.com
- Morison Kak & Associés
 - Address: #25, St. 360, Phnom Penh
 - Tel.: (855-23) 218 994
 - Fax.: (855-23) 218 993
 - Email: kakcpa@online.com
 - Homepage: www.morissoninternational.com
- NAS Co., Ltd.
 - Address: #65AEo, Oknha Nor Kan (St. 274), Phnom Penh
 - Tel.: 012 786 971
 - Fax.: 023 990 496
 - Email: nas@camintel.com

- Premier Partner Co., Ltd.
- Address: #171-173, Ang Duong (St. 110), Phnom Penh
- Tel.: (855-23) 217 382
- Fax.: (855-23) 353 132, 023 992 876
- Email: premier@online.com.kh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캄보디아에서는 철수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나 규정을 기업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s)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해산 시 각종 신고 등을 각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어 절차가 다소 복잡한 편이다. 또한 법에서 기업 청산절차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현지 기업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한 후 다시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파산법을 도입하여 파산관련 조항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파산법 조항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파산

파산 신청자는 캄보디아 거주자 및 캄보디아 법이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파트너십으로서 캄보디아 내에 자산을 소유한 자, 캄보디아 비거주자로서 캄보디아 내에 자산을 소유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파산신청 대상물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소유한 캄보디아 내 재산에 국한되며,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한 유형자산, 캄보디아 관할하의 공공기관에 등록된 자산 및 권리 등이다. 그러나 은행 및 금융 기관 법(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에 의해 인가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결정은 법원 청문회를 통해 해결되며, 법원의 파산절차 개시 또는 기각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청산

청산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금화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현금화 한다. 비 현금 자산을 현금화 하는 경우 집행관은 가장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비현금 자산을 현금화할 때 집행관이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은 모두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12. 투자입지여건

현재 캄보디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공단 및, 자유무역지대 개설이 CDC주도 아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놈펜을 중심으로 소재한 산업 공단은 민간이 개발하여 외국 기업에 임대해 주는 임대 공장 수준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공단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대표적인 특별경제구역은 다음과 같다.

□ Sihanouk Ville Special Economic Zone

- 개황
 - 캄보디아의 유일 최대의 항구도시 Sihanouk Ville에 특별경제구역을 설치, Sihanouk Ville Special Economic Zone으로 개칭함, 중국과 긴밀한 협력 끝에 2012년 운영 시작함. 현재 15개사 6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중.
- 위치
 - Tumnub Rolork District(태국만 연변으로 Sihanouk Ville 북동쪽 10Km 지점)
- 면적
 - 260ha

□ Koh Kong Special Economic Zone

- 개황
 - 캄보디아-태국 경제협력 10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양국 국경 지대에 특별경제구역(SEZ) 설치
- 기본 개념
 - 태국은 기술 및 설비, 캄보디아는 저렴한 노동력 및 농수산 자원 상호 제공
 - 특히 태국으로서는 캄보디아가 최빈국으로서 미국, EU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GSP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
 - 다만 캄보디아 내륙 깊숙이 진출할 경우에는 도로, 에너지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경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가 국경 지역 선호
- 진출 업종
 - 수출 지향적인 완구, 전자, 식품 통조림 등
 - 금융, 통신, 컴퓨터 등 서비스 분야도 적극 유치 방침

- 규모 및 재원
- 동EPZ 설치 계획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은 국제 사회의 원조 및 양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임.
- 수출 가공 지대의 규모는 280ha로 계획되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태국 국경에서 6km 떨어진 Mondul Seima지역 Bak-Klong군의 Neang Kok마을임.

캄보디아 경제 특구 리스트

이름	지역	면적	참여사	주산업군
Neang Kok Koh Kong SEZ	Koh Kong	335.43 Ha	2개사	차량용 부품
Manhattan (Svay Reing) SEZ	Bavet	157Ha	18개사	봉제
Poi Pet O'Neang SEZ	Poi Pet	467Ha	1개사	귀금속 가공
Phnom Penh SEZ	Phnom Penh	350Ha	37개사	기계, 식품, 봉제, 플라스틱
Sihanoukville SEZ 1	Sihanoukville	178Ha	2개사	전력, 에너지
Sihanoukville SEZ 2	Sihanoukville	1668Ha	18개사	전자, 봉제
Tai Seng Bavet SEZ	Bavet	99Ha	11개사	봉제
Goldfame Pak Shun SEZ	Kandal	80Ha	3개사	봉제

자료: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 (Cambodia Development Committee)

13.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많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에 이르러서야 S&P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채무위험도를 발표하였다. S&P는 캄보디아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적격등급 바로 아래인 'B+'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2007년 5월에는 Moody's사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는데 내국통화 및 외환 국채에 대한 등급을 'B2(높은 위험도)'로 평가하였고, 2013년 Moody's 평가는 여전히 B2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총선 이후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벌어진 봉제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와 파업과 더불어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 정치적 측면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국왕이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수상은 국왕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각료는 수상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현재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2003년도 총선 이후에 실시된 2006년의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집권당은 의석수를 늘렸으며 2007년도 4월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 거의 99% 의석을 차지하는 등 캄보디아 인민당은 지지를 얻으며 정치적인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훈센총리를 정점으로 수십 년간 다져온 절대 권력으로 정치가 2013년 7월에 있었던 선거를 기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당인 CNRP의 선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겹치면서 정국불안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앞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훈센을 위시한 여당에서 최저임금 상승 및 유화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해외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경제적 측면

2013년 기준 캄보디아의 외채는 50억 달러 규모인 반면 2013년 외환보유고는 36억 달러이다. 외채규모가 GDP 규모에 비해 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외채의 대부분은 중장기 외채이며 단기부채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가 되는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는 국가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어 부채 탕감 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며 실례로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러시아, 미국 채무 등을 현 정권과 상관없는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니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 중국에서는 부채 전액 또는 부분 탕감을 받았다. 그러나 추후 원유개발 계획,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라. 사회적 측면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는 총기 소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사회질서 안정 정책으로 총기 사고가 많이 감소하였다. 2000년에 정부 전복을 시도했고 2001년도에 프놈펜에서 두 호텔의 폭파를 주도했던 캄보디아 자유전사(CFF: Cambodia Freedom Fighters)도 프놈펜과 지방에서 대부분 검거되어 세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봉제산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노조는 미약하고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일부 계층에 부의 편중이 심각해지고 있고 대다수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마. 인프라 미흡

국가의 기본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여 도로망, 철도 운송 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총 39,618km의 도로 중 약 6%정도인 2,492km의 도로만이 포장된 도로이다. 이러한 환경은 물류비 비용 증가에 따른 이윤감소로 이어진다. 전력 보급률 또한 19%에 불과하여 공장 설립 시 발전 및 송배전망에 추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관개시설, 창고 보관시설 등 미약하고, 정보통신망 미흡에 따른 제약도 따르게 된다. 외국인이 주재하여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 중 병원 및 의료시설 낙후에 따른 제약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 행정 열악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2008년 부패정도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행정조직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50~100불 내외의 공무원 월급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뇌물을 받아서 소득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공무원 조직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로 행정처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익(급행료, 수고료 등)이 생기지 않는 부분의 행정처리 속도는 아주 느리다. 또한 행정전산화 정도가 미흡하여 기본적인 자료, 정보 축적 잘되어 있지 않으며, 직원의 근무강도가 매우 낮다.

사. 숙련 노동력 확보 어려움

전기공, 기계공, 공장 가동 경험자 등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일부 가용 기술 인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임금(150~600 달러)이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초보자를 채용하여 숙련공으로 자체 양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시설이 절대적인 부족하여 필요 인력을 태국 및 베트남 등지로부터 조달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봉제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캄보디아로 많이 진출하면서 노동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비공식적인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아. 필수 원부자재 확보의 어려움

캄보디아 내에서 원·부자재를 확보하려 해도 도로 사정에 기인한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타피오카의 경우 부족한 원료는 캄퐁참, 바탐방 등지에서 수매를 하고 있으나, 산지가 공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250~400km) 운송비를 고려할 경우 채산성이 없어 공장 인근의 캄퐁스프 주에서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트랙터 임차료, 종자 구입 대금, 재배 인건비 등의 농업 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재배가 확산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공장 용수 정수에 필요한 화학 제품, 황산 등의 생산 기업이 전무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 시설 가동을 위한 수선 유지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국내에 부품 생산 시설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CDC의 승인을 득하고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CDC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개인 투자의 경우 수출 목적의 생산 설비,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를 납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한국인 관리자 비자

한국인 관리자의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입국 시 사업 비자(Business Visa)를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 시 수수료는 US\$ 180이며 CDC 투자 기업은 CDC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데 소요 기간은 14일 정도이다. 구비 서류는 여권만 제출하면 되며 최초 연장 이후에는 신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나. 현지 노무 관리

외국 기업이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는 노동법이 정하는 일정 구비 서류만 갖추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저임 노동력은 풍부하나 노동 생산성은 베트남에 비해서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법정 근로 연령은 18세
- 외국인 고용도 사전 허가를 요하기는 하나 인근국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인데 이는 기술, 관리 등 면에서 고급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 캄보디아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의 경우 노동성에서 발급하는 Work Permit을 받고 이를 토대로 내무성에 Work Permit, 여권 사본, 관련 자격증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고용 비율은 10%가 상한선이나 이를 초과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노동성에 요청할 수 있다.

다. 임금 수준

1) 월평균 임금 수준

- 교사: 50달러
- 공무원: 25~150달러
- 건설 노동자: 85~120달러
- 공장 노동자: 80~130달러
- 서비스업 종사자: 80~120달러
- 요리사: 120~200달러
- 경비원: 70~110달러
- 점원: 80~120달러
- 비서: 150~180달러
- 사무 관리직: 150~300달러
- 봉제 미숙련공: 100~120달러
- 봉제 숙련공: 120~150달러
- 기술자: 130달러 이상

2) 초과 근무 수당

- 주중 초과 근무는 시간당 정상 급여의 150%
- 주중 야간 초과근무는 동 200%
-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동 200%
- 주말 및 공휴일 야간 근무는 동 300%

3) 수습 기간의 임금

전습기간을 거친 수습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며 수습기간은 비전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전문 근로자의 경우 2개월(봉제근로자 포함), 정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봉제 근로자의 경우, 정식 봉제공이 되려면 전습기간을 마친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월 80달러의 최저 임금은 전습 및 수습기간을 마친 고용원에게만 적용된다.

라. 근무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공장의 일일 근무 시간은 08:00~12:00 및 13:00~17:00이다.

마. 유급 휴일 및 휴가

근로자는 일요일 또는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요일에 하루를 쉴 수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그러나, 성수기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작업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18일간의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90일의 유급 임신 휴가가 주어진다.

바. 작업장 안전

- 적절한 조명, 과도한 소음 방지, 먼지 및 악취 환기
- 음료 공급, 화장실 구비, 탈의실 설치
- 위해 물질 보관 장소 설치
- 작업복 및 안전 장비 무료 지급
- 위험 장소에 대한 차단막 설치, 화재 경보기, 누전 대비

사. 사회보장 기금

고용주는 환경보호, 노동자의 안전, 작업자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캄보디아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원의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지는데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회보장 제도 규정에 따라 급여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 기금으로 납부한다.

아. 노동조합

1) 개황

- 캄보디아 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노조 활동을 보장.
- 캄보디아의 노조는 7개의 전국 규모 노조와 각 직장 별 노조로 대별되는데 직장 노조는 근로자 대표 위원회로 명명.
- 노조의 성향은 근로자 대표위가 사용자 측에 협조적인 반면 연합 노조는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들의 선동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 이 외에도 봉제/신발 분야에 28개 연합노조가 있고, 건설에 5개 연합노조 등등이 있다.

2) 근로자 대표 위원회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근로자 대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3년 임기로 근로자들에 의해 선정된다.

□ 캄보디아의 연합 노동조합 현황

캄보디아의 연합 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설립연도	전화
Cambodian Labour Confederation(CLC)	Mr. Ath Thorn	2006년	012 998 906
Cambodian Confederation Trade Union (CCTU)	Mr. Vong Sovann	2004년	023 221 124 012 785 890
Cambodia Confederation Unions (CCU)	Mr. Rong Chhun	2006년	012 930 706
Cambodian Confederation for Workers Right (CCWR)	Mr. Som Aun	2007년	012 866 682
Cambodia Inheritance Confederation(CIC)	Mr. Sok Sambath	2006년	016 767 070
Confederation Union National Independent Cambodia (CUNIC)	Mr. Heng Bunchhun	2008년	012 868 352
Cambodia National Labour Confederation (CNC)	Ms. Morm Nhim	2005년	012 824 640

주: 2012년 3월 기준

자. 해고 및 퇴직

- 합법적 해고의 조건
 -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결여
 -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할 때
 -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고용 규모 감축
- 사전 통보 기간
 - 종신 계약의 경우 숙련공일 때는 45일 전, 미숙련공일 때는 15일전 사전 통보 필요
 - 고용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15일 전 통보
- 퇴직금
 -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불해야 함.
 - 퇴직금은 직종 및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7일치에서부터 최대 6개월 치 급여를 지급함.
(단,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 지급 불가)
 - 불법 해고로 판정되면 정상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복직 내지 여타 직장을 알선해야 함.

차. 사회보장 제도

캄보디아는 2012년 기준 1인당 GDP가 \$ 909정도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서 사회보장 제도 라고 불릴 만한 제도가 없다. 단 정부에서 퇴역군인, 정신지체아, 장애인들에 대해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MINISTRY OF SOCIAL WELFARE & LABOR가 관장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는 전무하다.

15.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외국 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새로 개정된 캄보디아 금융법(FINANCE LAW: 97.1.16일 제정) 및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1994.8월 제정)에 근거하고 있다. 세율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투자 면허 신청 시 관계기관(CDC)과의 세율 협상이 가능하다.

2011년 기준 비즈니스 관련 주요 세제는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이익에 근거)
- 부가가치세
- 개인소득세
- 최소세(총 매출에 근거)
- 수출입 관세
- 등록세

국내 세금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은 재무성의 세무국(TAX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수입세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은 별도 관세청(CUSTOMS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독립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캄보디아 재무성에서 공인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여 캄보디아 내에서 적용하게 되어 있다. 현재 모든 외자 기업은 1994년 4월에 재무성 시행령 635호로 공표된 법령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연간 5억 리엘 이상 매출 시,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2.5억 리엘 이상 매출 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실제 적용은 미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무신고 시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재무제표는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기타 부속 명세서 등이다.

나. 법인세

외국 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새로 개정된 캄보디아 금융법(1997.1.16일 제정) 및 캄보디아 투자법(1994. 8월 제정)에 근거한다.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외국 투자법인은 9%의 세율을 부과하고 정부 우선 개발분야의 경우 최고 8년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 기간은 처음으로 이익을 발생한 연도부터 계산하며, 5년간 손실의 이월이 허용된다. 또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미 부과 되며, 석유 가스 및 기타 자연 자원 시추 개발 사업은 예외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는 0-20%의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세전 이익이 \$55,000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전월 기간 동안 매출 실적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사후 정산하게 되어 있다.

법인소득세 부과 유형	세율
일반 기업 경영 활동	20%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계약 및 자연 자원 개발	30%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IB)에서 투자 승인 획득 기업	0-9%
세금 공제 기간은 최장 8년	
개인 사업자	0-20%
캄보디아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보험회사	5%

다. 개인 소득 과세

개인 소득세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간은 1년 (1.1-12.31) 기준으로 원천 징수 부과된다.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술자, 엔지니어 및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월 급여(리엘 화 기준)	소득세율
500,000리엘 - 1,250,000리엘	5%
1,250,001리엘 - 8,500,000리엘	10%
8,500,000리엘 - 12,500,000리엘	15%
12,500,000리엘 초과	20%

주: US 1\$ = 4,085RIEL (2013년 9월 기준)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부과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는 정기적인 소득(근로 소득)과 비정기적인 소득(급여성 각종 복지 수당: Fringe Benefit)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고 개인 소득은 거주자(Residents: 1회계 연도 중 182일 이상 체류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의 경우 캄보디아 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개인 소득세 부과 대상 범위

- 기본 급여, 부대 수익(시간외 근무 수당, 초과 수당, 보너스, 계약 비용의 지급 등)
- 종업원 복지를 위한 해외에서의 비용 지출
- 종업원에 대한 가불금의 지급 및 대출

2) 개인소득세 부과 면제 대상

- 종업원이 고용주 대신 지불한 인보이스상의 비용에 대한 반환
- 노동법상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해고에 대한 보상금
- 사회적 관습에 의거 지급된 추가적인 급여
- 회사 단체복 및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무료 또는 할인 제공
- 여비 교통비
- 외교관 및 기타 인정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비정부 사회공인기관: NGO제외)

정기적인 소득의 경우 기업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천징수하여 과세 당국에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비정기적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주들은 매달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도 그들의 근로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당하지 아니한다.

라. 부가가치세

99.1.1부터 도입, 시행된 부가가치세는 캄보디아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10%씩 부과된다.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나 의류 봉제 수출에 대하여서만이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유보되고 있다.

마. 최소세

현지에서 Minimum Tax라고 불리며 누구를 막론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투자시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은 투자기업이라도 최소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연간 총 수익(Annual Revenue)의 1%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선납부하며 회계 연도 말 법인세와 비교하여 최소세 납부액이 법인세보다 적으면 법인세액으로 전환 인정이 되며 추가

차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정산하게 된다. 한편 최소 세액이 법인세보다 많으면 그대로 최소세로 법인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갈음된다.

16. 금융제도

은행 및 금융 분야는 캄보디아(National Bank of Cambodia)와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Finance)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법령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99년 은행 법의 경우 1992년도에 제정된 은행법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크게 상업은행, 특수은행, 특수금융기관(부동산 신용 기관이나 증권회사를 포함) 및 소규모 금융기관 등 4가지로 분류되며,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은행만이 은행법에 규정한 사업행위를 할 수 있다. 특수 은행과 소규모 금융기관은 이전 은행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비 정부조직(NGO)에 의해서 주로 운영되어 오던 많은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은행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캄보디아에는 27개의 상업은행과 8개의 특수은행이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싱업체(MFI)은 20개가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 일반상업은행이 3개, 특수은행이 3개 운영 중일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하다. 그 외에도 금융부문에 대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 수 있어 점차 금융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은행 및 금융기관의 취급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① 리스, 보증 등을 포함한 신용업무, ② 일반으로부터의 예금수신, ③ 국내통화 또는 외화로 고객에 대한 결제 수단의 제공 등이다. 이 세 가지 활동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 가지 활동 중 하나의 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부른다.

기본적인 세 가지 활동 외에도 외환거래, 금융시장 중개, 파생상품 취급, 상품 선물 및 현물시장 거래, 주식거래 등의 업무가 허용된다.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중앙은행이 지니며 은행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중앙은행이 취급한다. 다만 주식 등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 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개정된 신은행법에 따르면 자본금의 규모는 적어도 1,3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17. 외환제도 및 자금조달

가. 외환관리

캄보디아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한 지급, 송금, 투자를 포함한 자본이동 등의 외환업무는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외환법(Law on Foreign Exchange)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은 투자법(Law on Investment)을 따른다. 외환법 제5조에는 인가된 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에는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업은행은 1만 달러 이상의 외환거래에 대해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금, 원석, 기타 귀금속 원석도 사전에 중앙은행에 신고하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다.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이나 자국화폐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의 반출 시에는 중앙은행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사본을 매월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환중개상(은행)은 정기적으로 송금 등 외화의 유입과 반출에 대하여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10만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거주자가 10만 달러 이상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캄보디아의 경우 외환거래와 관련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나 화폐의 반출입에 대해 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외환규제는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공인된 외환중개상을 통한 경우 외환의 대출과 차입도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캄보디아의 거래화폐

캄보디아에서는 외국화폐에 의한 사업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구, 인터넷 회선료, 식당, 호텔, 교통비 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달러화가 통용되므로 실제로 자국통화는 쓰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국영기업인 전력공사와 수도, 그리고 정부의 사업허가수수료 및 공공수수료 등에만 한하여 자국통화가 사용되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동전이 전혀 유통되지 않고 있어 센트 단위 거래시 현지화가 주요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 미국 달러화와 현지 통화인 리엘간의 환율이 1998년 이후 4,000리엘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중심의 거래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은행계좌 또한 현지화와 미국 달러화 2종류를 사용하지만 주요 거래는 미 달러화 중심으로 발생한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예금 중 자국화폐인 리엘의 예금액은 2.7%에 불과하며 외환예금이 9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금은 결국 현지 유통화폐가 외환(미국달러화) 중심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지화 계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화 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과실송금

2003년도에 개정된 투자법 제11조에서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금융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인가된 은행을 통해 매입한 외환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금융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수입대금, 국제차입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상환
- ② 로열티 또는 경영자문료의 지급
- ③ 이윤의 송금
- ④ 기업 해산 시 투자자본의 송금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과실 송금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만큼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송금하여야 한다. 일반 법인세율이 20% 이므로 100%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0%를 원천 징수 한 후 송금하여야 한다. 법인세를 면제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없이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과실송금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금조달

1)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

.

□ 담보대출과 단기대출

캄보디아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은 대부분 담보를 제공해야만 가능하다. 전체 대출 중 99% 이상이 담보대출이며 신용대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단기적인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기대출은 기피하는 편이다. 이는 과거 정치적인 변동이 많았고 농업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화의 역사가 짧고 금융거래가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높은 대출이자율

캄보디아 은행의 대출이자율은 연 20% 전후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현지통화인 리엘의 6개월 만기 저축예금이자율은 연 5.28%, 달러는 연 4.35%에 불과하지만 6개월 만기의 대출이자율은 현지통화인 리엘이 22.68%, 달러는 17.17%로 나타나 예금과 대출 이자율 격차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대출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높은 신용의 고객의 경우 대출이자율이 10% 미만까지 하락을 하였으나, 여전히 일반 대출자에게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낮은 대출 한도

캄보디아 은행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본금의 20%로 설정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는 경우 최대 35%까지 높아질 수 있으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은행은 법정 한도를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일반상업은행이 법정 최저 자본금인 3,8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760만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지 은행이 대출방식으로 특정 대형 프로젝트 수행기업에 여신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우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 보다는 주로 본국이나 제3국에서 조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신용도가 낮으므로 금융조달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2) 현지 우리나라 은행에서의 대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일반상업은행의 경우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담보 대출 이자율은 연 12% 전후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자금의 용도, 담보에 대한 내용, 대출기간, 상환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접촉하여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은행에 의하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외에, 업체의 3년간 재무제표, 담보물에 대한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균대출금리가 연 20% 전후로 높게 설정된 것은 특수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프놈펜 생활물가

(1 US\$ = 4015 KHR)

구분	항목	가격(KHR)
식품류	쌀 1kg	2,800
	계란 10개	4,400
	쇠고기 등심 1kg	27,200
	돼지고기 등심 1kg	18,000
	우유 500ml	6,000
	식용유 1L	4,500
	생수 1L	2,000
	맥주 (하이네켄 355ml, 1Box)	104,00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5,000
	김치찌개 1인분	22,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8,550,8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29,05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87,423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191,498,000
	무연휘발유 1L	4,000
	자동차 등록비	624,45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4,158,17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000
	택시 기본요금	4,2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1,20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8,99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54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240,57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330,4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3,262,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0,407,5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0,407,5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48,9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666,000

구분	항목	가격(KHR)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749,3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562,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3,850,7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출산휴가일수	90일
	연간 국경일수	27일
	주5일 근무 여부	대부분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41,210

주: 2013년 기준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현지취업 유의사항

현지 업체에서는 장기간 근무를 할 인력이 필요로 구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및 근로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업자가 단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취업 유망 분야-봉제업

현재 캄보디아는 봉제의 메카라고 칭하는 만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곳 또한 봉제공장이다. 많은 공장들이 새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자로의 현지 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현지 취업사례 및 기업 만족도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캄보디아에서 6년을 거주한 B씨를 채용했다. 통역 및 전체적인 공장 관리를 맡기고 있다. 공장의 근로자들과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근로자들의 고충 또한 잘 처리하고 있어 기업측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박스 및 플라스틱 포장용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는 C사는 한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D씨를 채용했다. 적극적인 업무 태도와 활발한 성격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어 회사의 큰 도움이라 말하고 있다.

현재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6년 전에 캄보디아로 와 2년 전부터 공관에서 일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오자마자 현지 대학교의 어학원에서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 왕립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캄보디아 내 한국기업의 활동이 많이 지고 있어 현지어 구사 가능한 한국인을 찾던 대사관은 A를 경제정무를 지원할 행정원으로 채용하였다.

현지 대형 은행에서 대외 투자 유치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B씨는 현재 캄보디아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캄보디아에 와서 현지 왕립법대를 졸업하고 현지 대형 은행 기업인 Canadia Bank에서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한국기업 상대로 한 대출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다.

대체적으로 현지의 기업에서는 진취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족도 또한 높았다. 캄보디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3. 비즈니스에티켓

캄보디아 거래선을 만날 때 가급적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답례한다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전통적인 인사법은 불교식으로 양손을 합장하여 얼굴 쪽으로 당겨 모은 채로 머리를 숙이는 방식이다. 현재는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합장 인사를 하면 아주 좋아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위 인사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한국산 담배나 인삼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초대를 받거나 사무실로 방문할 경우 소량을 준비하여 가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시간 관념이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으며 식사 초대 시 가끔씩 야생 동물 요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시식을 해보거나 정중하게 사양해도 무방하다.

가. 명함

캄보디아인을 처음 만날 때는그리고 한국과 유사하게 두손으로 공손하게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기본 예의다. 명함을 받을 경우, 바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찬찬히 읽어보고 지갑에 넣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존중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캄보디아인의 이름은 한국과 같이 성이 나오고 이름이 뒤에 따른다. 따라서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보다는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과 성을 함께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총리 훈센(Hun Sen)의 경우, Mr. Hun Sen 이나 Mr.Sen 이라고 불러야 한다.

나. 언어 구사

캄보디아 신세대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를 자유롭게 접하는 편이다. 그러나 실제 영어 구사능력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어를 현지인 보다 잘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통역을 대동할 경우에도, 시선은 현지인에게 맞추어 바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다. 복장

캄보디아는 연간 고온의 날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복장 선택에 관대한 편이다. 비즈니스 복장은 얇은 반팔 셔츠에 정장바지를 입거나 여자는 블라우스를 입는 것을 추천한다.

라. 인사 예절

전통적으로 캄보디아인들은 양손을 모아 가슴 끝에 모아 인사하는 것이 기본 인사예절이다. 이 인사방법은 처음 만날 때 혹은 작별인사를 하는데 쓰이는 방법인데, 인사에 익숙해지면 따뜻하게 화답을 받을 수 있다. 악수를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인사방법이다. 악수는 동성간에 보통 하며, 이성간 악수를 할 때는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에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된다.

마. 사업 미팅 및 비즈니스 협상

미팅룸에 들어갈 때는 가장 연장자가 먼저 입장한다. 캄보디아인에게 침묵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며, 또 협상을 격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의 있게 상대방의 제안을 듣고 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조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인간관계 형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첫 미팅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계약 과정은 수많은 미팅과 조건 변경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즈니스에 관한 열정과 예의를 캄보디아인들이 평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캄보디아 인들은 친절하며 가끔 상대방이 무슨말을 했는지 모를 때에도 웃으면서 이해하는 동작을 취할 때가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크메르어를 구사하는 동료를 대동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업 혹은 정부기관과 함께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이중언어(한국어, 캄보디아어)로 계약서, 명함, 서비스 메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미팅 전에 캄보디아어로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미팅에 나간다면 서로 명확하게 비즈니스 미팅에 임할 수 있을 수 있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프놈펜 시내에는 외국인이 거주할 만한 주택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임대 가격도 비교적 비싼 편이다. 단신으로 현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월100-1,000달러 수준이 경제적이며, 가족이 동반되고 중급 수준의 가격을 원할 경우 월1,000-2,500달러 수준의 주택이 바람직하나 치안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고가의 주택 및 치안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월 2,500달러 이상 수준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프놈펜 시내의 고급 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식 아파트로서 월 임차료가 약 3,000달러 이상으로 매우 비싼 편이다.

프놈펜의 대표적인 EMBASSY PALACE의 경우 임차료가 월 2,800-4,000달러 정도의 높은 가격대에 임대되고 있다. 청소 및 가구, 식기 등이 무료로 지원되는 관리식이다.

한편 임대차 기간은 통상 2년 정도이며 매 6개월씩 임차료를 내면 되고 소개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별도의 지불 부담은 없다. 또한 최초에 예치금으로 6개월 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급적 6개월 선불 개념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계약 해지 시 불필요한 마찰도 줄일 수 있다.

나. 행정 절차

캄보디아는 외국인의 거주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사실 투자, 합작, 사무실 개설 등을 하거나 단순 주재를 원할 때도 여권 및 사진 2매와 미 250달러 정도를 내면 1년 장기 체류 비자를 3일 이내에 쉽게 발급 받을 수가 있다. 이는 해당 경찰서까지 통보가 되기 때문에 1년 장기 체류 비자 발급 후 추가적인 등록은 불요하다.

다. 계좌 개설

캄보디아 내에서는 은행을 통한 계좌 이체 등의 제도가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도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 은행들이 대부분 부실하고 수시로 예금 인출이 정지되는 등 은행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에 송금 등을 위해 계좌 사용이 필요할 정도이다. 여권 사본만 있으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가급적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함이 바람직하다.

라. 전화 신청

MINISTRY OF TELECOMMUNICATION에 전화 신청을 하면 약 3일 후에 전화가 설치되며 비용은 약 미 260달러 수준이다. 국제전화 사용의 경우 보증금 미 200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일반 전화보다는 휴대폰을 선호하며 가입도 간편하고 활용도도 높다. 신청금은 전화기를 포함하여 대략 미 200달러 수준이며 국제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 200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마. 비품 구입

집을 구할 때 임차료에 따라 가구 및 집기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굳이 무거운 가구를 국내서 운반해 올 필요는 없다.

전자제품 역시 우리나라와는 전압, 주파수 등이 달라 현지에서 새로 구입하든지 임대인에게서 지원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구입의 경우 모니봉 거리에 늘어난 가구상이나 센트럴 마켓 주위의 전자제품상에서 구입 하면 웬만큼 구색을 갖추 수 있다.

또한 생필품은 슈퍼마켓에서 우리 나라의 중급 이상 되는 품질 제품의 구입이 가능하며 구색도 웬만하여 불편이 없다. "럭키슈퍼", "바이온", "시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바. 자녀 교육 여건

캄보디아에서의 외국인 자녀 교육 환경은 인근 동남아 국가에 대비하여 떨어지는 형편이다. 우선 학교시설이 영세하고 설비가 취약하며 교사의 질적인 면에서도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아닌 호주나 캐나다인 교사가 많아서 발음 면에서 다소 부담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학생수도 적어서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가 아니라 방만하다는 비판도 받기도 한다.

한편 수업료는 타 지역과 유사한 편에 속한다. 프놈펜에도 현재 여러 개의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외국인 자녀가 수학할 만한 곳은 2-3개의 소수에 불과하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INTERNATIONAL SCHOOL의 경우 월 수업료가 약 1,000달러에 달한다.

□ 주요 외국인 학교 및 학원 현황

- ISPP-INTERNATIONAL SCHOOL OF PHNOM PENH
 - ST. 163, PHNOM PENH
 - TEL.: (855) 23-360507, FAX.: (855) 23-360041, 23-426209
 - 영국과 미국계의 중간 형태
-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PHNOM PENH
 - # 213, ST. 51, PHNOM PENH
 - TEL.: (855) 23-430066, 23-725351
 - FAX.: (855) 23-720724
 - 영국계 인터내셔널 스쿨
- INTERNATIONAL CAMBODIAN AMERICAN SCHOOL
 - # 9A, ST. 178, PHNOM PENH
 - TEL.: (855) 23-428206
 - 미국계 인터내셔널 스쿨

캄보디아의 주요 외국인 학교 교육비 현황

교별	학제	교육비 (US\$)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Capital Fee	기타	계
International School of Phnom Penh (ISPP)	PRE		500	2,240	500		3,240
	R 1		500	3,760	500		4,760
	R 2	2,500		6,430	1,500		10,430
	G 1-5	2,500		6,980	1,500		10,980
	G 6-8	2,500		8,130	1,500		12,130
	G 9-10	2,500		8,480	1,500		12,480
	G 11-12	2,500		9,230	1,500		13,230
Northbridge International School Cambodia (NISC)	PRE			1,800		버스비400	2,200
	R 1			3,200		버스비400	3,600
	R 2	1,000		5,500	1,800	버스비400	8,700
	G 1-5	1,500		6,300	1,800	버스비400	10,000
	G 6-8	1,500		7,200	1,800	버스비400	10,900
	G 9-12	1,500		7,800	1,800	버스비400	11,500

주 1: 음영 처리된 난의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지불

주 2: Capital Fee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실상 등록금에 해당

주 3: NISC의 경우 재학생에 대해서는 1,200달러의 Capital Fee 적용

주 4: ESL 비용은 학생의 영어 수준에 따라 학교 측에서 별도로 결정

주 5: 예치금 제도가 있으나 추후 환불되기 때문에 본 표에 미포함

5. 생활여건

가. 기후

1) 기후 특성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이며, 고온 다습하다.

5월-10월은 우기로 남서풍이 불며 평균 강수량 1,270-1,900mm에 달한다. 한편, 건기는 11월-4월까지이며 11월-1월까지의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2월-4월 중에는 북서풍이 불며 건조한 가운데 폭서가 지속된다. 우기에도 아침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며, 주로 오후에 비가 내린다.

연중 가장 더운 달은 4월로서 최고 기온은 35℃이며, 가장 시원한 시기인 1월의 최고 기온은 20℃ 정도로 일교차는 8-11℃에 달한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여 바다를 향하고 있는 남동 고지의 연간 강수량은 500mm에 불과하나 중부 저지대의 연간 강수량은 1,400mm를 넘는다. 연간 강수량의 80%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근래에 들어와서 기후 온난화와 함께, 기존에 대개 5년 단위로 발생하였던 홍수의 주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하였고, 매해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생활 시 추천 비즈니스 복장

일년 내내 무더운 열대 몬순 기후이므로 서울의 여름 복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월의 아침 날씨를 제외하고는 항상 반팔 소매가 필요하며 현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비즈니스상 노타이 긴 팔 혹은 반팔 와이셔츠가 정장으로 인정된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2시간으로 가령 한국에서 오전 9시일 때 캄보디아는 오전 7시이다. 태국 및 베트남과 동일 시간대이며 서머타임은 시행하지 않는다.

2) 근무 시간

정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오후 5시 30분(점심시간 11:30-14:00)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4시 30분 이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드문 실정이다.

은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영업하고 있으며, 일반 상점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영업하며 대체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개장한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아침 7시에서 12시까지 오전 업무를, 12시에서 2시까지 중식 시간, 이어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다. 도량형

1) 도량형

미터, 킬로그램 등 국제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다.

2) 전기 규격

일반적으로 단상 220볼트, 50 HZ의 전력이 공급되며 공장의 경우 3상 220볼트, 50HZ의 전력이 공급된다. 전력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대부분의 공장이나 큰 건물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라. 환율/환전

1) 사용 화폐

캄보디아는 'Riel'이라는 자국 화폐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오랜 전란 및 외국 원조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화도 그대로 통용되므로 굳이 환전하지 않아도 된다.

현지화인 리엘의 경우 주로 1달러 미만의 잔돈으로 사용되는데 공시 환율이 아닌 1달러당 4000리엘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시환율은 2013년 12월 기준 US\$ 1 = KHR 4,015)

2) 여행자 수표 및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에는 수수료가 부과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가능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호텔 수수료 약 7%인데 비해 은행 수수료 약 2%에 불과하다.

신용카드는 최고급 호텔 등 극히 일부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마. 교통

1) 택시

수도 프놈펜에서는 최근 들어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택시회사 본사에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말하면 연락담당자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운전기사에게 무전을 쳐서 기사가 손님에게 직접 찾아오는 콜택시 방식이다.

요금은 미터로 계산하며 기본요금은 US\$0.49 이고 1km당 US\$0.49의 추가 요금이 가산된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가장 쾌적하게 이동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한편, 반나절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 15달러이며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 30달러 정도이다. 시간은 택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다.

2) 시내 대중 교통

버스가 아주 간헐적으로 일부 구간에만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객을 싣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택시(모또둑), 혹은 자전거를 개조한 씨클로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은 치안이나 안전 문제로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 요금은 오토바이 택시는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회 편도에 2,000~ 4000리엘 정도이다.

몇 해 전부터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태국식 오픈 택시(뚝뚝이)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가격은 택시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짧은 구간을 이동할 경우에도 최소한 5000리엘 이상이며 인원이 많아진다면 요금은 갑절이 된다. 여행의 재미를 위해서 몇 번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고 저렴하며 쾌적한 이동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낫다.

한편, 개인이나 조그만 회사가 운영하는 렌트카 제도가 하루 또는 반나절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하므로 호텔이나 주변 한국인에게 부탁하면 쉽게 지정된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시외까지도 다녀올 수 있다.

참고로 1일 기사 및 유류대 포함하여 임차료가 40달러 수준이며 반나절의 경우 약 20달러 면 이용 가능하다. 가끔씩 기사를 영어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 안내 보조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공항에서 시내로 오는 방법

캄보디아에는 지하철, 셔틀버스 등 선진국형 대중교통이 전혀 없고 치안도 불안하므로 가능하면 친지가 차를 몰고 공항에 출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내 중심가까지 약 25분 소요되며 요금은 US\$ 9 정도이다. 짐이 없으면 약 3달러 정도에 '모토'를 탈 수도 있으나 위험하므로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통신

캄보디아는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3월부터 국제전화 요금을 12% 인하했으나, 투자 인프라 측면에서 고가의 통신비용은 고가의 전기료와 함께 대 캄보디아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캄보디아의 전화 요금은 미달러화로 청구되고 있는데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근국 국제전화의 1분당 요금은 1.50달러(VAT 10% 별도)이며, 기타 아시아 국가는 1.60달러, 나머지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1.80달러이다.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 주말 요금은 인근국이 1.35달러, 아시아 1.44달러, 기타 국가 1.62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동 요금 체계는 MPTC(캄보디아 통신부) 직영 001 및 최대의 통신회사 MOBILTEL의 007에 공히 적용된다.

한편, 국영 전화 회선 설치 비용은 70달러이며, 회선 월 임차료는 프놈펜 8달러, 지방은 6달러이다. 국내 통화 요금은 프놈펜 권역에서는 분당 0.01달러, 장거리 전화 및 휴대폰 통화에 대해서는 0.15달러가 적용된다.

캄보디아의 국제전화 요금 체계

(단위: US\$/분)

구분	평일	주말
태국 / 베트남 / 라오스	1.50	1.35
여타 아시아 국가 (한국)	1.60	1.44
기타 국가	1.80	1.62

주: VAT 10% 별도

현재의 통신 요금 체계에 대해 대부분 업계에서는 아직도 캄보디아의 통신비 코스트가 동남아 인근국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경우 국제 전화 요금이 지역 불문 분당 0.40달러로 캄보디아의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 기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책임감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매우 길다. 또한, 취약한 봉급 탓에 민원 처리에 사사건건 뇌물을 바라거나 급행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규정된 처리 기간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 시는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배제할 수 없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 사항

외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로 특별히 관공서 출입 시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중요한 면담 시 사전에 시간 약속을 철저히 하고 확인도 2-3차례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전 7:30에 출근 하고 점심 시간이 11:30분에 시작이며 오후 근무가 2:00부터 5:30까지 이나 대개 오전 8시가 되어야 면담이 가능하며 오전 11시 이전에 만나서 민원을 처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11시경에 점심을 위해 외출 후 오후 잠시 들르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복장은 무더운 날씨 탓으로 반드시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개 긴 소매나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면 정장으로 통용되므로 옷차림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사. 공휴일

1) 캄보디아의 공휴일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에 속하면서도 공휴일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토요일 및 일요일의 이틀 주말 외에도 연간 23일 내외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연이은 월요일, 화요일 등으로 휴일이 연장되나 정부 기관 외에는 공휴일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한 실정이며 외국업체를 중심으로 휴일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 출장 지양 기간

4월의 신년(Cambodian New Year), 5월의 국왕 탄생일(Birthday of His Majesty the King of Cambodia), 10월의 추석(Pchum Ben) 및 11월의 물 축제(Water Festival) 기간 중에는 실제 공휴일보다 2-3일씩 연장하여 휴무하므로 이 기간의 출장은 삼가는 편이 좋다. 또한 화교 수입상들은 우리나라의 구정부터 대보름 기간 동안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

- 1월 1일: 신년(International New Year's Day)
- 1월 7일: 학살정권에 대한 승전기념일(Victory over Genocide Regime)
- 2월 7일: 석가 열반일(Meaka Bochea Day)
-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 4월 14~16일: 크메르 신년(Cambodian New Year's Day)
- 5월 1일: 노동절(Labour Day)
- 5월 5일: 석가 탄신일(Visak Bochea Day)
- 5월 9일: 왕실 농경의 날(Royal Ploughing Ceremony)
- 5월 13~15일: 시아모니 국왕 탄생일(Birthday of His Majesty the King of Cambodia)
- 6월 1일: 어린이 날(Children's day)
- 6월 18일: 전 왕비 탄생일(Birthday of Hers Majesty the Queen of Cambodia)
- 9월 24일: 제헌절(Constitution Day)
- 10월 14~16일: 크메르 추석(Pchum Ben)
- 10월 29일: 시아모니 국왕 즉위 기념일(Coronation Day)
- 10월 31일: 전 국왕 탄생일(Birthday of His Majesty the King of Cambodia)
- 11월 9일: 독립 기념일(Independence Day)
- 11월 27~29일: 물 축제(Water Festival)
-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아. 여행시 유의 사항

1) 여행 준비

□ 의복 준비

일년 중 무더운 열대성 기후로 한국의 한 여름 복장이 필요하다. 특히 5월에서 11월까지의 우기로서 매일 한차례 이상 비가 오므로 우산이 필요하다. 한편 현지에서는 특별히 격식을 차릴 상담이나 면담이 아니면 굳이 양복과 넥타이 차림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반팔 혹은 긴 소매 셔츠는 현지에서 반 정장으로 통용되므로 복장에 그다지 유의하지 않아도 된다.

□ 전기 규격

50HZ, 220Volt로서 플러그가 유럽형으로 한국보다도 다소 가는 편이다

2) 여행 여건

□ 치안

치안이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일몰 후(대개 7시 이후) 외출은 삼가는 편이 바람직하다. 외출 시 반드시 렌트카나 바이어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오토바이 택시, 씨클로 등이 손쉽게 보이더라도 여간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범죄나 강도, 탈취 사건이 이들 오토바이 택시 운전수등과 결탁되어 있어 각별히 경계해야 하며 낮 시간에도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항상 화려한 차림이나 값비싼 장신구를 자제하며 돈지갑을 함부로 꺼내서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소액권을 바지 주머니에 분산시켜 놓고 지불하는 것이 강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된다.

□ 응급

응급 시에는 현지 의료 수준이 극히 취약하므로 상태의 경중을 따져 외과수술을 요하거나 심각한 상태는 인근 태국이나 싱가포르로 메디컬 이베큐에이션(후송)을 하여야 한다. 다소 가벼운 증세일 경우 국립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대사관 영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메디컬 이베큐에이션이나 국립병원 응급실 치료를 위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팁 관행

팁 관행이 거의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팁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호텔이나 식당 등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약 1,000~2,000리엘 정도의 팁이면 충분하다. 어느 경우에라도 이 정도 팁이면 무난하다.

□ 식수

현지의 수돗물 및 일반 음료수는 철분과 칼슘이 너무 많이 용해되어 있어 냄새와 맛이 유쾌하지 않다. 반드시 슈퍼나 식당에서 미네랄 워터를 사서 마시기를 권하며 길가에서 사서 마실 경우 포장 상태와 상표를 잘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 이발소

현지에는 노천 이발소가 많이 있으나 위생상의 문제로 이용을 삼가는 편이 바람직하다. 2009년 기준,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이발소 및 미용실도 다수 있으며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다소 저렴한 수준이다.

□ 구두닦이

거리나 식당에서 흔히 구두 닦는 어린이들이 테이블로 다가와 구두를 닦으라고 조르는데 대개 제대로 닦지 못하며 먼지만 털어주는 수준이다. 약 1,500리엘이면 충분하다.

3) 쇼핑

□ 물가

물가는 태국 등지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며 모든 제품이 전부 달러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 쇼핑 장소

2014년 6월 30일, 캄보디아 최초의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AEON MALL)이 개장하였다. 소티어루어 도로에 위치한 이온몰 내부에는, 마트, 각종 식당, 전자제품 대리점, 영화관 등이 입점해있다. 그 외의 백화점인 Sorya 백화점과 Sovanna 백화점에서는 의류, 전자기기, 스포츠용품, 화장품 등등을 찾을 수 있다. 의류 또는 스포츠 용품은 대부분이 카피(짝퉁)제품이다. 일반 여행 중 생필품은 럭키슈퍼(현 지인 경영) 나 동 슈퍼 이층의 간이 백화점을 이용하면 의류나 신변 잡화를 구입할 수가 있다. 토산품 및 공예품 등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러시아인 마켓이다. 중앙시장은 프놈펜에서 유일하게 싱싱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프놈펜을 장악한 중국식당들의 해산물 수요 덕분에 중앙시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해산물을 찾아볼 수 있다. 중앙시장에서는 이외에도 보석류나 전통의류가 있으며 온갖 종류의 볶은 벌레를 맛볼 수 있다.

□ 특산품

인건비가 저렴한 탓에 수공 은제품, 특히 동물 모양, 과일 모양, 테이블 집기 등의 경우 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고 모양도 산뜻해 외국인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선물이 된다.

6. 취항정보

항공사	취항노선	운항일	내용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인천↔프놈펜	매일	자세한 스케줄은 해당항공사 사이트 참조
Vietnam Airlines	하노이↔프놈펜 호치민↔프놈펜	매일	하노이↔프놈펜 구간은 매일 1회, 호치민↔프놈펜 구간은 매일 3회 운항 상세 스케줄은 웹사이트 참조
Lao Airlines	프놈펜↔비엔티안	매일	라오스의 비엔티안과 프놈펜 구간을 매일 1회 운행
Air Asia	방콕↔프놈펜	매일	운항 스케줄은 항공사 사이트에서 참조 가능 타 항공사보다 저렴함.
Bangkok Airways	방콕↔프놈펜	매일	방콕 출발 (08:10,13:20,17:1021:00) 프놈펜 출발 (06:20,10:20,15:20,19:20)
Thai Airways	방콕↔프놈펜	매일	방콕 출발 18:15, 프놈펜 출발 20:25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프놈펜 국제공항 사정

프놈펜-방콕 간에는 타이항공, 방콕에어웨이 등 항공이 일일 10편 가량, 프놈펜-호치민 시티 간에는 베트남 에어 등 이 일일 5편 운항하고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 칼라룸푸르, 홍콩 등 여타 동남아 주요 도시 들과의 항공편은 주 5회 정도이다. 인천과 프놈펜 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매일 1회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휴대품이 과다하지 않으면 세관 검사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며 동남아 인근국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항공편 좌석 예약이나 출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국 시에는 항공편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며 공항 이용료 US\$25가 소요된다.

□ 면세품 보유 한도

- 담배 400개피
- 카메라 2대
- Cigar 50개피
- 술 2병
- 무비 카메라 1대
- 라디오 1대
- 휴대용 녹음기 1대

나. 캄보디아 입국 비자

캄보디아 입국 비자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3785-1040/1)에서 발급 가능하나 대부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즉석 비자를 발급 받고 있다. 유효기간 30일 또는 60일로 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 사진 1매가 필요하다.

- 관광 비자: 수수료 US\$ 20, 연장 불가
- 사업 비자: 수수료 US\$ 25, 연장 가능

캄보디아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 등 국가로부터 입국할 경우에도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공항 공무원이 신속한 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5-10달러를 요구하는 일이 잦으나 응할 필요는 없다.

8. 관광, 호텔, 식당

가. 관광

1) 프놈펜 시내

□ Royal Palace

방콕의 로얄 팰리스에 대응하며 프랑스가 소규모로 지은 것이지만 형형색색 겹겹으로 놓인 지붕, 조각된 린텔, 은으로 된 마루에 10,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부처가 있는 옥좌의 방 등이 유명하다.

□ National Museum

로얄 팰리스 건너편의 선홍색 박물관은 푸난, 참파, 첸라 왕조의 예술품을 비롯하여 크메르 예술의 정교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 Wat Phnom

프놈펜의 이름은 시 북쪽 가장자리에 사람이 만든 30m 언덕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 1880년대에 세워진 얼룩덜룩한 회색의 불교 석상을 발견할 수 있고, 시내 전역을 내다볼 수 있고 도심에서 5분 거리에 있으므로 한번쯤 들러 볼 만한 장소이다.

□ Central Market

중앙시장은 문자대로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붕이 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돔의 외곽은 야채, 생선 등의 식료품을 팔고 있다. 건물 안에는 선물이 될 만한 상품이 다양하며, 전자제품 등은 화교들이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한 것들이다. 이곳에는 귀금속 매장이 있는데 캄보디아인들은 금을 선호하고 있고 루비, 사파이어 등 장신구가 즐비하다.

2) 프놈펜 근교

□ Cheoung Ek Genocide Center (Killing Field)

프놈펜 남서쪽 14Km 지점에 크메르루즈에 의해 학살된 100만 명의 사람들 중 8,000명을 위한 유리벽으로 된 기념비가 서 있다.

□ Tonle Baty

프놈펜 남쪽 50Km 지점에 대규모의 휴양을 위한 호수와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를 위해 12세기에 건설한 작은 크메르 사원으로 앙코르와트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3) 앙코르와트 사원

크메르의 고대도시인 앙코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이며 시엠 립 공항 북 쪽 7Km에 위치한 앙코르와트라 앙코르 톨은 1858년 프랑스 자연학자인 헨리 모호(Henri Mouhot)가 이곳을 발견하여 그의 항해와 발견에 관한 묘사를 발표한 이래 서구 여행자들의 열광적인 찬사를 받아오고 있다. 거대한 호수라는 뜻을 지닌 톨레삽 호수 북쪽에 자리잡은 앙코르와트는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크메르 제국의 수라바르만 2세가 12세기에 완성한 힌두교 사원이다. 가로 1.5km, 세로1.3km, 높이 65m에 이르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다. 앙코르와트가 각광받는 건축물로 여겨지는 것은 새겨진 정교한 조각 솜씨 때문이다.

나. 호텔/식당

1) 고급 호텔

호텔 명	주 소	전화번호	상세 정보
Diamond Hotel ***	#172-184, Monivong Blvd., Phnom Penh	023-426 636	Range: \$40~50 net(아침 포함)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available * Free airport shuttle
Holiday Int'l ****	St. 84, 100 meters east of Monivong Blvd., Phnom Penh	023-427 402	Range: \$40~55 net(아침 포함)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available *Free airport shuttle
Hotel Inter-Continental *****	#123-125, St. 110, Phnom Penh	023-424 888	Range:\$150~1500++(아침포함)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bar *Free airport shuttle
Hotel Cambodiana *****	#313, Sisowath Quay, Phnom Penh	023-426-288	Range: \$70~345++(아침 포함) River view, restaurant, bar, banquet, conference facilities, spa/swim/tennis *Free airport shuttle

호텔 명	주 소	전화번호	상세 정보
The Juliana Hotel ****	#16, St. 152, Phnom Penh	023-366 070	Range: \$66~88net(아침 포함) Newly remodeled restaurant, Lounge biz center, spa/hair salon. *Taxi airport-hotel: \$6
Phnom Penh hotel ***	#53, Monivong Blvd. Phnom Penh	023-991-868 023-991-818	Range: \$65~100 net(아침 포함) Full room facilities fitness/spa/swim
Sunway Hotel ****	#1, St. 92, Phnom Penh	023-430 333	Range: \$65~300++(아침 포함)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Taxi airport-hotel:\$5.50

2) 비즈니스 호텔

호텔 명	주 소	전화번호	상세 정보
Bayon Hotel ***	#2, St. 75, Phnom Penh	023-427 281	Range: \$30~50net(아침포함) Full room facilities *Taxi airport-hotel:\$5
Hawaii Hotel ***	#18, St. 130, Phnom Penh	023-362 679 023-426 652	Range: \$22~54net(아침 제외)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Taxi airport-hotel:\$5
Pailin Hotel ***	#219-B&C, Monivong Blvd., Phnom Penh	023-426 697 023-426 698	Range: \$20~55net(아침 제외) IDD telephone, Satellite TV, Mini-bar, Refrigerator, Private shower/ bath, *Free airport shuttle
Ranak Se Hotel ***	#40, Sothea Blvd., Phnom Penh	023-722 457	Range: \$30~50net(아침 제외) Air-con, Refrigerator, Mini-bar, color TV & amp, private bath room *Taxi airport-hotel:\$5
Ho Wah Genting ***	#132, Monivong Blvd., Phnom Penh	023-725 531	Range: \$40~90 net(아침 포함)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Free airport shuttle
Le President Hotel ***	#680, St. 128, Phnom Penh	023-427 055	Range: \$40~80net(아침 포함) Full room facilities, Chinese restaurant *Free airport shuttle
Princess Hotel ***	#302, Monivong Blvd., Phnom Penh	023-801 066	Range: \$45~50net(아침 포함) restaurant available *Free airport shuttle

3) 여관

호텔 명	주 소	전화번호	상세 정보
Asia Hotel **	#113-119, St. 136 Monivong Blvd. Phnom Penh	023-427 825	Range: \$20~45net(아침 제외) Full hotel facilities *Taxi airport-hotel: \$5
Dusit Hotel ***	#2, St. 120, Phnom Penh	023-427 483	Range: \$20~60++(아침 제외)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gym *Free airport shuttle
Favour Hotel **	#429, Monivong Blvd., Phnom Penh	023-801 336	Range: \$20~30net(아침 제외) Private shower/bath, Hot & cold water, laundry service, IDD tele phone, satellite TV, restaurant *Free airport shuttle
Beauty Inn **	#100, Sihanouk Blvd., Phnom Penh	023-721 676 023-721 505	Range: \$20~45net(아침 제외) Full room facilities *Free airport shuttle
Paradise Hotel **	#213, Monivong Blvd., Phnom Penh	023-426 540	Range: \$20~25net(아침 제외)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Taxi airport-hotel: \$5
Sidney Hotel **	St. 360, Phnom Penh	023-428 312	Range: \$20~30net(아침 제외) Full room facilities, restaurant *Taxi airport-hotel: \$5

4) 식당/현지 및 외국 식당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Chao Pra Ya	#177, Mao Tse Toung Blvd. Phnom Penh	023-722- 754	Thai style, fine foods, indoor & outdoor seat, Thai/Chinese/Japan/Khmer/Western foods buffet net: \$ 14.00 (exclude beverage) [6:00-22:00]
Chef's Deli	#87, St. 214, Phnom Penh	023-368- 418	Malaysian and Int'l Foods, nice indoor seating With A/C. Catering and banquets. Various French cakes [7:00-23:00]

Chieng Mai	#112 St. Sothearos, Phnom Penh	023-360-502 012-808-816 012-809-581	Various of Thai cuisines, nice indoor & outdoor, next to Hong Kong Center seating, Moderate priced [10:00-23:00]
Ecstatic Pizza	#193 Norodom Blvd. Phnom Penh	023-367-614	Italian delicious pizza and many other Italian and French favorites, spaghetti Bolognese, burgers & eggplant parmesan [10:00-23:00] Pizza: \$4.50-\$15(free delivery)
FCCC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Cambodia	#363 Sisowath Quay, Phnom Penh	023-724-014	International, a Phnom Penh classic, beautiful old building overlooking river, western foods, drinks [7:00-24:00]
La Paillote	#234, St. 130 & 53, Phnom Penh	023-722-151	French and Western foods Fine international cuisine as well as very affordable sandwiches and entrees served in an elegant atmosphere. [lunch and dinner] Favorite: beef and cheap steak \$7~12
Nagasaki	#39 Sihanouk Blvd. Phnom Penh	023-218-394	Japanese style and foods Air-condition and private room, moderate price [lunch and dinner] Favorite: Nagasaki raw fish \$13
The Khmer Restaurant	#24 Monivong Blvd. Phnom Penh	023-428-439	French and excellent Khmer foods [6:00-21:30] Favorite: White noodle & Khmer curry \$5
Wagon Wheel	#353 Sisowath Quay, Phnom Penh	023-363-601	French, American and German foods, soups, pancake \$3.5, and seafood pizza \$4.5 Favorite: Smoked salmon & toast \$13 [7:00-24:00]
Li Lay	#321, Kampuchea Krom Blvd. Phnom Penh	023-428516/7 012-845-475	Nice Chinese foods, clean, quality services, fish with energy herb \$10 each per medium size.

5) 식당/한국 식당

식당 명	전화	핸드폰	위치
서울VIP가든	(023)365477	(012) 827230	Cambodiana 호텔 앞
압사라가든	-	(012) 995354	Monivong 길 뒷골목
비원	-	(012) 707733	공항에서 15분 거리, 뚝딱 인근
수라	(023)993733	(077) 848707	KOTRA프놈펜 무역관 인근
르 서울	(023)427000	(092) 411700	르 로얄호텔 뒷편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체류 및 유의사항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가 발생하고 있다. 툭툭, 모토 탑승 시 신호대기 중 핸드백 날치기, 야간 음주 후 귀가 시 폭행 및 강도 등 사례 다수 존재한다.

야간 외출 및 단체행동, 야간 모토택시 및 시클로 탑승, 집회, 시위, 정치적 성격의 회의 장소에는 접근 삼가는 것이 좋다. 또,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고액권 화폐 역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캄보디아인들은 친절하고 순수하지만 역사적으로 타민족에 대하여 배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을 심하게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행동을 하면 폭행이나 총격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요망한다.

또한 최근 총선 결과에 따른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기관, 군·경찰 시설 등 만일의 사태 시 시위대의 표적이 되기 쉬운 장소와 정당 사무소 및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나. 기타 참고사항

식당 등에서의 팁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지불하는 경우 가 있으며 1인 기준 1\$ 정도면 충분하다. 캄보디아의 특산품으로는 상황버섯, 노니와인, 캐슈넛, 후추, 실크제품, 은세공품 등이 있다. 달러화 통용되므로 추가 환전이 필요 없다. Sim card 구입 후, 스마트폰에 삽입하면 곧바로 사용 가능하다.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 캄보디아 상원
 - <http://www.senate.gov.kh>
- 캄보디아 하원
 - <http://www.cambodian-parliament.org>
- 관방부(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 <http://www.camnet.com.kh/ocm>
 -
- 농림수산물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http://www.maff.gov.kh>
- 문화예술부(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 <http://www.mcfa.gov.kh>
-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http://www.mef.gov.kh>
- 교육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 <http://www.moeys.gov.kh>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http://www.mfaic.gov.kh>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http://www.moh.gov.kh>
-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 <http://www.mime.gov.kh>
-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 <http://www.information.gov.kh> (크메르어, 불어, 영어)

-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 <http://www.interior.gov.kh>

- 체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 <http://www.mptc.gov.kh>

-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 <http://www.mot.gov.kh>

- 프놈펜시(Municipality of Phnom Penh)
- <http://www.phnompenh.gov.kh>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

-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NiDA
(Nation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Development Authority)
- <http://www.nida.gov.kh>

나. 공공기관

- 캄보디아 국가 메콩위원회(Cambodia National Mekong Committee (CNMC))
- <http://www.camnet.com.kh/cnmcs>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 <http://www.cdc-crdb.gov.kh>

- 캄보디아 지뢰제거센터 (Cambodia Mine Action Centre)
- <http://www.cmac.gov.kh>

- 캄보디아 적십자사(Cambodian Red Cross (CRC))
- <http://www.camnet.com.kh/crc>

- 캄보디아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NIS) of Cambodia)
- <http://www.nis.gov.kh>

- 프놈펜 상공회의소(Phnom Penh Chamber of Commerce)
- <http://www.ppcc.org.kh>

- 시아누크빌 항만청(Port Authority of SihanoukVille)
- <http://www.pas.gov.kh>

- 캄보디아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of Cambodia)
- <http://www.camnet.com.kh/customs>

다. 금융기관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http://www.imf.org/external/country/KHM/index.htm>

- Asian Development Bank (ADB)
- <http://www.adb.org/Cambodia/default.asp>

- World Bank
- <http://www.worldbank.org/kh>

- Canadia Bank (Local Commercial Bank)
- <http://www.canadiabank.com>

- SBC Bank (Foreign Commercial Bank)
- <http://www.sbc-bank.com>

라. 주 캄보디아 외국대사관

- Australian Embassy
- <http://www.dfat.gov.au/missions/countries/kh.html>

- Canadian Embassy
- <http://www.dfait-maeci.gc.ca/cambodia>

- U.S Embassy
- <http://cambodia.usembassy.gov/>

- Japanese Embassy
- <http://www.bigpond.com.kh/users/eojc/>

- French Embassy
- <http://www.ambafrance-kh.org>

마. 기타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 <http://www.un.org.kh/undp>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cambodia.html>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http://www.unhcr.org>
- United Nations Cambodia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COHCHR)
- <http://cambodia.ohchr.org>
-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 <http://www.un.org.kh>
- United Nations Food Agriculture Organization (UNFAO)
- <http://www.un.org.kh>
- The Food Aid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in Cambodia (WFP)
- <http://www.wfp.org>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http://www.who.int/countries/khm/en/>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 <http://www.ilo.org>
-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 <http://www.mrcmekong.org>
- 캄보디아 중소기업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ambodia)
- <http://www.smicambodia.com>
- 메콩 민간분야 개발처(MPDF - The Mekong Private Sector Development Facility)
- <http://www.mpdf.org/>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프놈펜 무역관

- 주소: PGCT center, St. 274, Phnom Penh
- 전화: (855-23) 999 099
- 팩스: (855-23) 211 598
- E-메일: kotrapnh@gmail.com

나. 직원

- 관장: 전미호
- 부관장: 김연건
- 직원: 박해영
- 직원: 김재형
- 직원: 김도현
- 직원: 정희범
- 직원: 김웅기
- 직원: 정원혁
- 인턴: 안현일
- 인턴: 홍준기
- 현지직원: Mr. Kum Kim / Mr. Koi Sokharoath

□ 무역관 찾아오는 방법

목적지: 프놈펜 독립기념탑 부근의 ‘프놈펜 센터’ 옆, PGCT 건물 B동 2층

무역관 약도



○ 공항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프놈펜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모두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도착, 도착터미널을 빠져 나오면 공항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거의 모든 택시 내에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협상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는데, 공항에서 프놈펜 시내까지는 약 10불에서 15불 정도 지불하면 된다.

○ 모토택시, 툭툭을 이용하는 방법

도착터미널에서 시내까지 모토 택시요금 및 툭툭 요금도 역시 협상으로 결정되며 모토택시의 경우 약 3~4불, 툭툭의 경우 6~8불 선에서 협상이 가능하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